금주의 법구-〈열반경〉
남이 베풀었다고 교만한 마음을 갖거나
은혜를 갚을 것이라 기대해서도 안된다.
베풀 때는 자신을 돌아보지 말아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07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2년 · 단기 4351년 음력 6월 20일) 2018년 8월 1일 수요일

KTX 복직, 뒤엔 '불교' 있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 등 불교계 중재 노력 재조명

윤호섭 기자 · 김지원 수습기자

2006년 코레일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다 해고된 KTX 승무원들이 12년여 만에 극적으로 일터에 복귀하게 됐다. 이로써 4,526일간 이어진 갈등이 일단락되면서 각계 환영입장이 나온 가운데 긴 시간 동안 해고승무원들과 함께한 불교계의 숨은 노력이 재조명받고 있다.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지부장 김승하, 이하 KTX노조)와 한국철도공사(사장 오영식, 이하 코레일)는 오는 11월 30일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해고승무원 180여 명 중 희망자 전원을 6급 사무영업 경력직으로 특별채용하기로 7월 21일 합의했다.

해고승무원들 "불교계 도움 컸다"

이번 합의결과를 두고 KTX노조 당사자들은 복직문제 해결 전까지 종교계의 도움이 컸으며, 그 중 불교계가 가장 큰 힘이 됐다고 한 목소리로 전했다. 해고승무원 오미선 씨는 "(복직투쟁 과정서)경찰에 연행되는 등 오늘에 이르기까지 힘든 시간을 버텨왔다"며 "동료들마저 중도 포기하는 상황에서도 불교계가 시종일관 함께 해주시고 위로를 건넨 게 큰 힘이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불교계는 2006년 6월 7일 불교인권위원회(대표 진관)가 '제4회 박종철인권상'을 KTX 해고승무원들에게 수여한 때부터 KTX 갈등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해고승무원들 파업 100일을 하루 앞둔 날로, 이들이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나가는 원동력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오 씨는 "20대에 승무원 일을 하다 예정에 없던 파업에 뛰어든 우리는 인권상의 의미를 잘 알지 못했다"며 "13년 청춘을 다 바쳐 정당한 권리를 위해 함께 싸운 동료들은 이제 아기를 낳고 엄마가 됐다. 지금 돌이켜보니 아무나 받을 수 없는 뜻 깊은 상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후 한동안 KTX 갈등문제 해결에 나서지 못한 불교계는 2012년 조계종이 지금의 사회노동위원회 전신인 '노동위원회'를 출범하면서 본격적으로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앞장섰다.

특히 해고승무원들이 2008년 코레일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서 1 · 2심 모두 승소했으나 2015년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히며 빚더미를 안았을 때 불교를 비롯한 종교계 중재가 빛을 발했다. 당시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승무원들은 각종 소송비용 등 1인당 8700만원을 부담할 처지에 놓였고,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을 비롯한 4대 종교지도자들이 오영식 코레일 사장을 만나 중재안을 제시했다. 그 결과 대전지방법원은 2018년 1월 "승무원은 원금 5%인 총 1억4256만원(1인당 432만원)을 2018년 3월 말까지 철도공사에 지급한다. 철도공사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KTX노조는 곧바로 조계종을 예방해 불교계에 감사인사를 전했다.

김승하 지부장은 "힘든 투쟁을 지속한 가운데 현실적으로 금전적 비용의 압박은 실로 어마어마했다"며 "설정 스님을 포함한 종교계 지도자들이 먼저 나서 비용 문제를 해결해주셔서 직접 찾아뵙고 감사인사를 드리고 싶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현장서 끝까지 호흡한 불교

이뿐만 아니라 불교계는 해고승무원들의 고된 투쟁과정서 늘 함께 현장을 지킨 점에서 이웃종교보다 더 많은 도움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017년 5월, 조계종 사회노동위는 위원회 노력만으로 KTX 갈등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는 판단에 이웃종교 · 시민사회단체와 'KTX 해고 여승무원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꾸렸다.

그 중심에는 20여 명의 사회노동위 실천위원 스님들과 양한웅 집행위원장이 있었다. 이들은 투쟁 장기화로 점점 지쳐가는 해고승무원들을 '자타불이(自他不二)' 정신으로 다독이고, 쉽지 않은 일들을 주도했다. 사회노동위원회는 △광화문 정부청사~서울역, 서울역~청와대 구간 오체투지 △매주 목요일 복직염원 법회 △기자회견 및 성명 발표 등을 통해 대중의 관심을 환기하고,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활동에 앞장섰다. 올 여름에는 최고기온 40도에 육박하는 폭염 속에서도 서울역 천막 앞에서 59일간 '복직 염원 108배'를 올리기도 했다.

이처럼 몸을 사리지 않은 사회노동위의 열정에 처음에는 오체투지조차 생소했던 노조원들도 차츰 스님들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됐다는 후문이다.

해고승무원 정미선(KTX노조 총무) 씨는 "처음 오체투지 제안을 받았을 때 내 몸을 학대한다고 생각해 망설여졌다. 문득 낮은 자세로 계신 스님들을 보고 오히려 부끄러움을 느꼈다"며 "당사자도 하기 어려운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해 함께 연대한 스님들의 결심이 너무나 감동적이었다. 스님들과 함께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장서 함께한 서원 스님(사노위 실천위원)은 "사실 파업 10년차부터는 국민 대부분이 그랬듯 나 역시 이들을 차츰 잊어갔다. 그럼에도 밝은 표정을 한 승무원들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팠다"며 "있어선 안 되는 일로 인해 고통 받으면서 웃고 있는 그 마음이 어떨지 생각하니 정말 가슴이 미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님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무력투쟁이나 말싸움이 아닌, 이야기를 들어주고 지지해주는 것뿐이었다. 같이 해준 마음을 잃지 않겠다는 승무원들의 말에 오히려 우리가 힘을 받았다"며 "해단식 날, 불편한 교통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서 찾아온 다른 스님들과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고 덧붙였다.

KTX 갈등문제 해결에 톡톡한 역할을 한 사노위는 앞으로도 불교계를 대표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해 함께 한다는 계획이다. 양 위원장은 "완전한 해결은 아니지만 직접 고용이라는 결과는 소중하고 큰 의미를 갖는다. 끈질긴 기다림 끝에 비로소 회향할 수 있었다"며 "국민들은 KTX 사태를 절대 잊지 말고 쌍용차노조 등 다른 장기투쟁장 문제들도 관심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여름휴가 관계로 다음주 휴간합니다.

KTX 고용분쟁 불교계 주요 활동

2006. 6. 불교인권위, KTX노조에 '박종철 인권상' 수여
2012. 8. 조계종 노동위원회 출범
2015. 3. 대법원 파기환송에 따른 긴급토론회
2015. 12. 사회노동위 확대 개편
2017. 5. 사노위 등 종교 · 시민사회계 KTX 대책위 출범
2017. 9. 오체투지(광화문~서울역~청와대)
2017. 12. 부산역 복직기원 108배
2018. 1. 종교계 중재안에 환수금 조정 서울역 복직기원 108배
2018. 5. 사노위, 격주 목요법회 대전역 복직기원 108배 양승태 前대법원장 재판거래 의혹에 대법원 행정처장 면담
2018. 6. 서울역 108배(59일간) 오영식 코레일 사장 면담
2018. 7. KTX노조 · 코레일, 복직 합의



KTX노조 · 사노위 수년간 연대
대법원 패소 후 떠안은 빚더미
종교계의 중재안으로 감축돼

투쟁 장기화로 지친 노조에는
정신적 버팀목 역할한 불교계
"스님들 보여준 진심에 늘 감사"



폭염 만큼 짙어가다 연일 폭염이다. 100여 년 만의 일이다. 추워서 힘들던 때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더워서 힘들다. 유난히 더운 것에도 분명 이유는 있을 것이다. 우리가 만든 이유일 것이다. 그 바람에 산사로 이어진 천년 숲길도 100년 만에 폭염을 맞는다. 하지만 아우성치지 않는다. 오히려 폭염만큼 짙어가고 있다. 폭염에 짙어가는 월정사 천년 숲길을 걸으며 숲길처럼 짙어갈 수 있다면, 다음 여름은 좀 더 편안하지 않을까. 글 · 사진=박재완 기자

本紙, 일회용품 줄이기 환경캠페인 전개

7월 23일 불교환경연대와 MOU… 텀블러 · 장바구니 사용 독려

본지가 전 세계적인 환경 위기 극복을 위해 일회용품 줄이기 환경캠페인을 전개한다.

현대불교신문(사장 박종수)과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일)는 7월 23일 서울 운니동 본사 사무실서 '환경실천 캠페인 협약'을 맺고, 연말까지 텀블러와 장바구니 사용을 독려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본지와 불교환경연대는 우선적으로 오는 9월까지 1차 캠페인 '일회용컵 안 쓰고 텀블러 사용하기'를 실시한다. 본지는 신문 지면에 환경캠페인의 중요성을 알리는 기사를 게재하고, 사찰과 단체들이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9월 이후 전개되는 2차 캠페인 '일회용비닐 대신 장바구니 사용하기'는 연말까지 이어진다. 캠페인 참가자들은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장바구니를 쓰겠다는 서약을 한다. 특히 본지는 장바구니 사용과 관련된 참가자들의 수기를 받아 환경운동서 겪는 스스로의 변화를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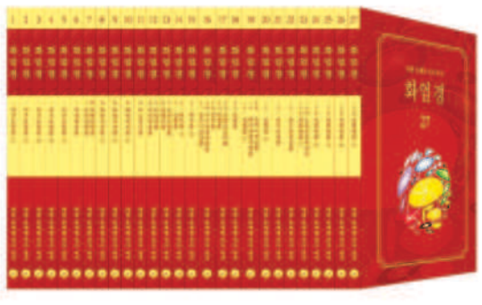
협약식에서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일 스님은 "환경문제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불교계가 앞장서야 한다"며 "불자들의 신행과 문화를 적극적으로 취재하는 현대불교신문과 환경운동 확산에 매진하고 싶다"고 밝혔다.



박종수 현대불교신문 사장(사진 왼쪽)과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일 스님이 협약서 서명 후 악수를 하며 웃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이에 박종수 현대불교신문 사장은 "오래 전 환경운동이 국책사업으로 인한 무분별한 도시개발을 막고자하는 것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개개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비중이 커지는 것 같다"면서 "불교계 언론으로서 캠페인 홍보뿐만 아니라 함께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윤호섭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수덕사 **만공 · 전강선사님**으로 이어진 법맥과
해인사 **용성선사님**으로 이어진 강맥을 한 몸에 받으신
대원 문재현 선사님 현재 103권째 서적 출간



화엄경 출간

불조정맥 제78대인 명안종사의 눈으로, 역해와 더불어서 각 권과 각 품마다 자문자답의 결문으로 선미(禪味)를 더하여, 대천세계를 손바닥의 겨자씨 들여다보듯이 한 불보살님들의 지혜와 신통으로 누리는 불가사의한 화엄세계를 열어 보였다.

<공안의 교과서>라 불리는 전등록, 선문염송을 모두 역해하고 착어한 혜안으로 화엄세계를 열어 보이다

선문염송 30권, 전등록 30권을 모두 역해하여 세계 최초로 1,463칙 전 공안에 착어한 혜안으로 화엄경 81권의 역해를 마치다 !!

1권부터 5권까지 무료 전자책 공개

전자책 1, 2, 3, 4, 5권을 무료로 공개하였으니 읽어보시고 만인에게 권할 만한 화엄경이라고 여기신다면 81권의 서적과 전자책 출간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료 전자책은 아래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출간불사 관련문의 031-534-3373 www.zenparadise.com

2018년 정맥선원 禪 여름 수련회
마음이 내가 되는 시간
장소 : 포천 성불사 국제정맥선원
일정 : 8월 11일(토)-8월 15일(수) 4박5일
교재 : 바로보인 도가귀감
심지법문/참선/명상요가/발우공양



여름 수련회 신청문의 010-8670-1445

‘대행선·불교학 진흥’ 最大 학술상 제정

대행선연구원, ‘묘공학술상’ 제정 · 〈한마음연구〉 발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한마음 주인공 관법’이라는 생활선 수행으로 중생 교화에 힘쓴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의 선사상과 한국불교학 진흥을 위한 대규모 학술상이 제정된다.

대행선연구원은 “‘묘공학술상’ 제정과 자체 학술지인 〈한마음연구〉 발간 등의 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행 선사의 법호인 ‘묘공’을 인용한 ‘묘공학술상’은 대행 선사의 가르침과 생애를 체계적으로 연구 조명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제정됐다. 학술상은 대행 선사와 한마음선원의 역사 · 사상 · 수행 · 포교 연구뿐만 아니라 불교학 · 선학 전반에 관련한 학술 연구를 대상으로 하며, 박사과정 수료 이상과 제방의 선학 · 불교학 전문가라면 응모 가능하다.

‘묘공학술상’은 불교학계 최대 규모의 학술상이 될 전망이다. 대상 수상자 1명에게는 1000만원의 상금이, 우수상 2명에게는 각 7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기 때문이다. 올해 대상 수상 논문은 내년 7월 발표되며, 자체 학술지인 〈한마음연구〉에 게재된다. 우수상 논문들도 수정 · 보완 후 〈한마음연구〉에 수록된다.

또한 학술상 응모 논문 중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나 탈락된 논문들도 별도의 심사를 거쳐 〈한마음연구〉에 게재한다는 방침이다.

‘묘공학술상’이 박사학위와 전문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면 ‘〈한마음연구〉 논문투고’는 박사과정 2학기 이상을 수료한 신진학자들까지 저변을 넓힌 학술연구 진흥사업이다.

매년 2월 28일과 8월 31일에 출간되는 〈한마음연구〉의 논문 투고 분야는 ‘묘공학술상’과 동일하게 대행선과 불교학 전체를 관통하며, 투고 시기는 연중 어느 때나 가능하다.

한마음사상 학술적 기반 마련
연구 통한 대행선 전법 추진
전문 연구자 양성 효과 기대

대행선 · 불교학 전반 응모 가능
대상 1천만원 학계 최대 규모
석 · 박사 연구논문 지원 사업도

투고방법은 투고 논문을 심사 · 게재하는 기존 학술지와는 조금 상이하다. 연구계획서와 자기소개서, 투고지원서를 제출하면 연구계획서 통과자에 한해 논문 투고 예비 선정자가 결정된다.

이때 예비 선정자와 집필계약을 하며, 원고료 400만원의 25%가 지급된다. 이후 예비 선정자의 집필 논문은 중간발표와 완성 논문 심사를 통해 게재 확정된다. 논문집 게재 확정시 나머지 원고료가 지급된다. 게재 논문은 저자가 희망할 경우 연구원의 정기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이에 대해 대행선연구원은 “‘묘공학술상’과 학술지 〈한마음연구〉 등 여러 가지 학술 진흥사업을 통해 불교 연구자 전체를 아우르는 불교학 연구 네트워크를 촘촘하게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선 2021년까지 〈한마음연구〉를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로 만들 계획”이라고 포부를 내비쳤다.

대행선 연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들도 본격화 된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대행선연구원이 추진하는 ‘인재양성 프로젝트’다. 이는 석 · 박사 학위 논문 및 연구논문 작성에 실제적 도움을 주는 데 목적이 있다.

‘인재양성 프로젝트’ 참여는 대학원 재학생이나 수료자로 대행선과 불교학 관련 학위 · 연구 논문을 준비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선발은 10명 내외로 매년 3월과 9월에 이뤄지며 참가자에게는 프로젝트 유형에 따라 소정의 발표비와 학술 지원비, 논문 작성 지원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프로젝트는 격월로 이뤄지는 정기 공부모임 형태로 운영되며, 참여자가 준비하고 있는 학위 · 연구논문에 대한 주제 · 초록 관련 대화 · 토론 등이 진행된다.

또한, 대행선연구원은 전문연구자를 초청해 관련 연구를 발표하는 ‘계절 발표회’도 추진한다. 계절발표회는 매년 3 · 6 · 9 · 12월에 열리며, 대행선과 불교학 전반 관련 연구 논문이 각 1편 씩 발표된다. 오는 9월에는 조계종 교수아사리 정운 스님이 대행선사 관련 발표를, 김경집 진각대학 교수가 원효 관련 발표를 각각 진행한다. 12월에는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고영섭 동국대 교수의 발표가 예정돼 있다.

대행선연구원은 “학술연구를 통해 한마음선원의 3대 핵심 목표인 생활불교 · 현대불교 · 세계불교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일련의 사업을 통해 대행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한마음사상의 학술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엇갈린 친모 증언에 친자의혹 진실공방

하와이 무량사 도현 스님, 1999년 친모 녹취 공개

하와이 무량사 주지 도현 스님이 1999년 설정 스님 친자의혹을 받는 전○경 씨 친모인 김○정 씨와 나눈 대화라고 주장한 녹취파일을 공개했다. 녹취서 김 씨로 지목된 여성은 “22살 때 설정 스님으로 인해 임신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친모인 김 씨가 조계종 총무원과의 인터뷰서 밝힌 내용과 상반된 것으로, 설정 스님 친자의혹에 대한 진실공방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도현 스님은 7월 24일 서울 조계사 옆 우정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99년 김 씨가 무량사에 찾아와 설정 스님을 만나고 싶다며, 스님의 아이를 낳았다고 말해 녹취했다”고 주장했다. 도현 스님은 녹음테이프 내용을 컴퓨터파일로 변환해 CD로 배포했으며, 속기사무소를 통해 정리한 녹취록도 기자들에게 전달했다.

녹취에 따르면 김 씨로 예상되는 여성은 22세 때 차 안에서 설정 스님의 강요에 의해 성관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성은 두 번째 만남에서 설정 스님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밝히며, 설정 스님에게 임신사실을 알리자 15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현 스님에게 “죽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외에도 수십 페이지에 걸쳐 작성된 녹취록에는 이 여성이 10여 년간 어떤 고통을 받으며 살아왔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이 담겼다.

도현 스님은 “김 씨는 당시 암 치료차 미국에 있던 설정 스님을 찾고자 무량사에 왔다. 녹음 여부는 김 씨도 몰랐으며 이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면서 “설조 스님의 단식이 길어지고, 설정 스님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아 녹취를 공개하게 됐다. 설정 스님은 결단을 내려주시고, 설조 스님도 생명을 위해 단식을 멈춰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7월 24일 조계사 옆 우정공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취록을 공개한 하와이 무량사 주지 도현 스님.

한편 김 씨는 지난 5월 조계종 총무원 인터뷰서 “경북의 모 사찰서 거사에게 성폭행 당해 임신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조계종 총무원은 도현 스님 기자회견 이후 입장문을 내고 “김 씨는 지난 5월 진실을 밝히는 영상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1999년 당시 스스로가 심신이 불안한 상황이었고, 당시 진정과 소송 등이 모두 거짓이었음을 밝히며 참회하는 내용이었다. 이는 대중에게 공개됐다”며 “도현 스님은 20년 전 어떤 의도로 김 씨와의 대화를 녹음했는지 진위를 밝혀야 할 것이다. 당사자가 허위라고 밝힌 내용을 새로운 것처럼 이제야 공개해 혼란을 부추기는 도현 스님과 배후 세력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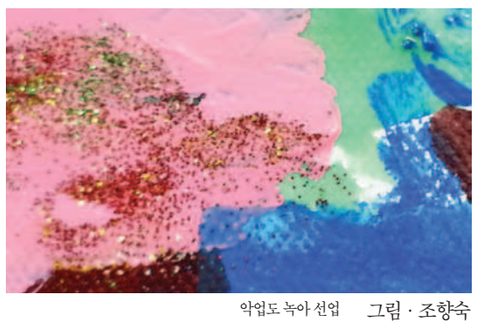
성운 스님의
보리수 아래서

신구의 삼업 몸 · 입 · 뜻으로 짓는 업

노회찬 국회의원이 삶을 마감하던 날, 어느 택시 기사는 “그게(돈) 뭐길래”라며 안타까워 했습니다. 노 의원이 오랫동안 단골로 다닌 아주 허름한 이발소 주인도 미국가기 전날 다녀갔다며 애도했습니다.

우리는 매순간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선업(善業)과 악업(惡業)의 회전 속에 살아갑니다. 인간이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의지적 행위를 업이라고 하고 그에 따라 받는 필연적 결과를 업보(業報)라고 합니다. 업과 보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있어 선업에는 착한 보(善報)가 따르고 악업에는 괴로운 보(惡報)가 따릅니다.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업을 신구의 삼업(身口意 三業)이라고 합니다. 삼업을 세분한 것이 10업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선업보다 악업을 익혀온 중생의 무지를 일깨우기 위해서 10악업부터 설명하십니다.


악업도 녹아 선업 그림 · 조향숙

신구의 삼업의 근본 ‘意業’
탐진치에서 10악업 나와
6바라밀 계정혜로 단속

10악업은 감각기관 6근에 탐진치 삼독이 들어와 일으키는 중생의 업입니다. 10악을 범치 않는 것이 10선업입니다.

신업(身業): 몸으로 짓는 3가지 악업으로 살생, 도둑질, 사음입니다. 몸3(身三)업은 5계의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계로 브레이크를 걸어 통제할 수 있습니다. 8정도의 정업과 정명, 7각지 수행도 신업을 제어합니다.

몸으로 짓는 업을 단속해 선업을 닦으면 살생은 방생으로, 도둑질은 보시로, 사음은 지계로 바뀝니다.

구업(口業): 거짓말(妄語), 속이는 말(綺語), 이간질하는 말(兩語), 나쁜말(惡口)입니다.

5계의 불망어계와 8정도의 정어로 4가지 구업을 다스리면 이웃에게 사랑의 말, 진실한 말, 유익한 말을 하게 됩니다.

의업(意業): 뜻으로 짓는 3가지 업으로 탐욕(貪慾), 성냄(瞋恚 진에), 어리석음(痴暗 치암)입니다.

줄여서 탐진치라고 하며, 삼독이라 불리는 ‘업 덩어리’입니다.

탐욕은 재물, 성, 명예를 탐내어 집착하는 욕심입니다. 6바라밀의 보시와 지계로 단속할 수 있습니다. 진에는 욕망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분노입니다. 인욕과 정진 삼매로 극복해 보세요.

치심은 사물의 이치를 바르게 못 보는 어리석음의 업으로 무명이며 무지입니다. 업은 마음(뜻)에서 생겨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의업은 신구의 삼업의 근본이 됩니다.

즉 모든 악업은 탐진치에서 시작됩니다. 무아와 무상을 보면 오온을 나라고 집착하는 유신견(有身見)과 탐진치를 녹이게 됩니다.

*신구의 삼업은 중생심이 몸과 입과 뜻으로 나오는 10악업입니다. 부처님의 신구의는 자비의 모든 것 10선업입니다. 10악업을 10선업으로 돌리려면 6바라밀 수행과 계정혜 삼학으로 정진하여 선업이 익어야 합니다. 중생심 송곳이 주머니에 있어 안 보여도 여름에 가습기로 습기를 제거하듯 6바라밀로 다스려야 합니다.

보살의 계위를 한 계단씩 올라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법운지에 들때까지 날마다 지금 여기에서 신구의 삼업을 들여다보고 소통합시다. 나와 이웃이 함께 행복 할 수 있는 답입니다. 자비의 방에서 인욕의 옷을 입고 비움의 방석에 앉아서 보살행을 합시다.

〈삼천사 회주 · 동국대 석좌교수〉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선연구원 불교학술 진흥사업 공모

(재)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에서는 대행 큰스님의 가르침과 생애를 체계적으로 연구 조명하고 널리 알리기 위하여, 매년 학술발표회를 개최하고, **논문집『한마음연구』**를 발행합니다.

연구원은 한국불교의 미래 100년을 위하여서는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앞으로 불교학술 진흥사업을 본격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입니다. 불교학과 관련하여 뜻있는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묘공학술상 공모

- **공모 분야 :** 대행선 혹은 불교 관련 역사, 사상, 수행, 문화, 포교, 계율 등
- **응모 자격 :** 박사과정 수료 이상 / 제방의 불교학 관련 전문가
- **선정 분야 :** 대 상 1명 : 1,000만원의 상금과 상패
  우수상 2명 : 각 700만원의 상금과 상패
- 대상 논문의 경우『**한마음연구**』논문집에 게재. 우수상을 받은 논문은, 수정 보완 후에 심사를 거쳐,『**한마음연구**』논문집에 게재
- 대상 및 우수상을 받지 못했지만 우수한 논문의 경우, 별도심사를 거쳐,『**한마음연구**』에 게재 [원고료 400만원 지급]

☞ 묘공학술상과 관련하여 심사규정 등 자세한 사항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 참고

『한마음연구』 논문 투고

- **투고 분야 :** 대행선 혹은 불교 관련 역사, 사상, 수행, 문화, 포교, 계율 등
- **투고 시기 :** 년 중 어느 때나 투고 가능
  ☞『한마음연구』출간 일정 [2월 28일, 8월 31일]에 따라 투고논문의 심사 및 게재일자를 결정
- **투고 자격 :** 불교관련 박사과정 2학기 이상을 수료한 학자 제방의 불교학 관련 전문가
- 원고료 : 400만원
- 3인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한마음연구**』에 게재
  ☞『한마음연구』논문투고 심사규정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 참고

계절발표회

- **발표 분야 :** 대행선 혹은 불교 관련 역사, 사상, 수행, 문화, 포교, 계율 등
- **시행 :** 1년에 4회, 매 3, 6, 9, 12월의 3번째 일요일 전 금요일 오후 1시~5시
- **장소 :** 한마음 선원 안양 본원
- **초빙 대상 :** 불교학 관련 박사학위자/제방의 불교학 관련 전문가
- **발표 방법 :** 매 발표회당 2명의 연구자가 논문[초고 가능]을 발표 대행선 관련 논문과 불교학 관련 논문 각 1편 씩 발표
- **원고료 :** 400만원
- 3인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한마음연구**』에 게재
  ☞ 보다 자세한 것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를 참고

인재양성 프로젝트

- **대상 :** 현재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및 수료자로 대행선 혹은 불교와 관련하여 학위논문 내지 연구논문을 작성하거나 연구하려는 사람
- **운영 :** 정기 공부모임[격월 4째 주 토요일], 멘토 시스템
  ☞ 학위 및 연구 논문 주제/초록 발표와 토론, 높은 완성도를 위한 방향의 제시
  ☞ 1년에 6회 [1, 3, 5, 7, 9, 11월 4째 주 토요일 오후 2시 ~ 5시]
- **선발 시기 :** 매년 3월, 9월 [년 2회]를 원칙으로 함
- **인원 :** 10명 내외
- **특전 :** 참가자에게 학술지원비, 세미나 발표비, 학위논문 작성 지원비 지원
  ☞ 보다 자세한 것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를 참고

문의 및 서류 제출처

- 주소 :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대행선연구원
- 전화 : 031)470-3276, 3277
- E-mail : ds7788@hanmaum.org
- 홈페이지 : www.daehaeng.org

※ 모든 서류는 E-mail로만 받음

“세계유산 산사 위한 법령 제개정 필요”

설정 스님, 7월 24일 문화재청장 등 예방서 강조

신성민 · 윤호섭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이하 산사)’의 원활한 보존 · 관리를 위해 관련 행정과 법령에 대한 제개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설정 스님은 7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접견실에서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종진 문화재청장, 김계식 문화재활용국장, 홍석인 외교부 문화외교국장, 서은지 외교부 심의관의 예방 자리에서 세계유산 산사 관련 법령 제 · 개정을 정부와 지자체에 당부했다.

설정 스님은 “이번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산사는 이전 단일 사적 등재와는 다른 의미를 가진다”면서 “건축, 유적만이 아닌 불교의 신앙과 수행, 문화, 생활 등 무형적 가치도 인정됐다. 이는 산사가 ‘살아있는 유산’임을 세계가 높게 평가한 것”이라고 등재 의미를 되짚었다.

이어 스님은 “기존의 문화재보호법과 전통사찰보존법으로는 산사의 관리에 한계가 있다. 법령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유네스코에서 인정한 산사의 무형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세계유산법 · 문화재보호법 · 지자체 조례 등 관련 법령의 내용 신설과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국회 계류 중인 세계유산법에
‘살아있는 유산’ 산사 포함해야
기존 문화재보호법 · 조례는 한계
행정 · 법령 등 보완 개정 필요해

이에 김종진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여기에 산사를 포함해 세계유산들이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법령과는 별개로 산사의 진정한 가치가 제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조계종과 긴밀한 협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산사의 원활한 보존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의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산사의 경우 사적이 아닌 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첫 사례로 당장 통도사, 마곡사, 부석사, 봉정사 등은 사적 지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전각, 탑 등 점 단위 보존 정책이 아닌 산 속에서 사찰을 유지하며 신앙과 수행을 지켜온 환경과 문화가 보장될 수 있는 면 단위 보존 정책도 새롭게 정립돼야 한다는 게 조계종의 입장이다.

문화부장 종민 스님 역시 지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등재는 점 단위가 아닌 면 단위로 문화유산을 인식해 이뤄진 것”이라며 “한국의 문화재 인식 역시 단순히 단일 문화재가 아닌 구성 요소를 함께 보존 관리하는 방안으로 확대돼야 한다. 산사와 같이 ‘살아있는 유산’은 더욱 면 단위의 보존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바 있다.

한편 조계종은 26일에도 한국의 산지승원 7개 사찰 대표 및 각 지자체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향후 사찰 보존 ·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댈 것을 약속했다.


조계종은 7월 24일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세계유산 등재에 공로가 큰 정부 부처 관계자를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사진 왼쪽부터 서은지 외교부 심의관, 홍석인 외교부 외교문화국장, 총무부장 지현 스님, 강창일 국회의원, 총무원장 설정 스님, 김종진 문화재청장, 문화부장 종민 스님, 김계식 문화재활용국장.

청담문도회 문장 혜성 대종사 원적

7월 25일 법랍 62년, 세수 82세로

白雲下一僧(백운하일승)
惜心建通山(석심건통산)
次生再出盲(차생재출맹)
丹志及心王(단지급심왕)

백운대 밑 수행자 있어 안타까운 마음으로 산을 뚫어(도량을) 세웠네.
다음 생에는 어두움 벗어나 굳센 뜻 부지런하여(마음의) 왕이 되리라.
-혜성 대종사 임종게-



청담문도회 문장 진불장 혜성 대종사〈사진〉가 7월 25일 낮 서울 도선사에서 법랍 62년, 세수 82세로 원적에 들었다. 분향소는 도선사 호국참회원에 마련됐으며, 영결식은 29일 오전 10시 도선사서 엄수됐다.

1937년 경북 상주에서 태어난 혜성 대종사는 청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56년과 1962년 각각 동산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와 비구계를 수지했다.

제3 · 4 · 5 · 9 · 10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과 총무원 사회부장 등을 역임하고, 도선사 주지 재임시절 도량불사에 힘을 쏟아 당시 도선암을 지금의 도선사로 사격을 키웠다.

이외에도 1976년 혜명보육원을 설립해 복지분야서도 활동을 시작, 1995년에는 청담종합사회복지관을 개관했다. 1974년에는 팽성중학교를 인수해 학교법인 청담학원을 설립했고, 중앙승가대학교가 김포로 이전하고 4년제 대학으로 인가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교 인재 양성에도 뚜렷한 족적을 남겼다.

혜성 대종사는 1980년 전두환 신군부가 자행한 ‘10.27 법난’으로 고문과 폭행, 도선사 주지 직에서 강제 퇴임되는 등 온갖 고초를 겪었지만 법난 이후 고문 후유증을 이겨내며, 인재불사와 불교사회복지 등에 공을 세웠다.

윤호섭 기자

화쟁의 눈으로 ‘낙태죄’ 바라본다

화쟁위, 8월 22일 토론회

낙태죄 폐지와 관련된 찬반논쟁이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불교계서도 이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화쟁위원회(위원장 도법)는 오는 8월 22일 오전 10시 서울 전법회관 3층 회의실서 백년대계본부 미래세대위원회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등과 함께 ‘낙태죄, 화쟁의 눈으로 이야기하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화쟁위는 앞서 지난 2월 같은 주제로 한 차례 집담회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토론은 지난 집담회서 패널로 참가한 박사 북 칼럼니스트가 사회를 맡는다. 또한 변신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수가 ‘낙태죄 논쟁의 배경과 역사, 현 상황의 쟁점 및 대안’을, 이미령 북 칼럼니스트가 ‘낙태와 관련된 종교의 역할’을 발표한다. 이외에도 신호승 동그라미대화훈련센터 대표와 이채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간사가 화쟁위원회의 역할 등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윤호섭 기자

조계종복지재단 6억원 횡령 사건 ‘파문’

직원 횡령, 재단 측 7월 13일 확인
4년여 간 6억원 이상 횡령 드러나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내부감사 과정서 회계담당 직원이 4년여 동안 6억 원 이상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국 산하 190여개 복지시설 운영을 관장하는 불교계 대표 재단서 벌어진 일인 만큼 불교복지 신뢰도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설정)은 7월 19일 운영비 횡령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회계업무 담당 직원이 2014년 9월~2018년 4월 약 6억3천여만 원의 운영비를 횡령한 사실을 7월 13일에 최종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사실 확인 후 횡령 당사자 직무는 즉시 정지됐으며, 전액 변제 조건 하에 환수조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 사실은 내부 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당사자 진술 및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해 횡령금이 대부분 쇼핑, 미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이 파악됐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홈페이지 갈무리.

당사자 직무정지, 변제 밝혀
환수 별도로 민형사 책임
“일말 의혹 없게 후속 조치”

현재 재단 내 감사권 발동 및 외부추천 감사를 통한 회계감사, 총무원 감사국의 사실관계를 확인, 조사가 진행 중이다.

횡령금 변제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힌 재단 측은 “현재 횡령 당사자 및 부모 등이 전액을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전액 환수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횡령금 환수와는 별도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재단은 이번 사건에 대한 관리부의 책임도 시인했다. 재단은 재발 방지와 운영 투명성 · 안정성 향상을 위해 △회계 관리 시스템 전면 재점검 △사업담당 부서 간 상호 확인 절차 정비 등을 공고히 할 방침이다. 또한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 대한 일정은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

재단 측은 “무엇보다도 도덕성과 투명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회복지기관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사부대중에게 깊이 참회한다”며 “일말의 의혹이 없도록 조사과정 및 후속조치를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수년간 이어진 횡령 사건이 최근 밝혀진 점에서 재정 · 감사 시스템에 대한 우려는 당분간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계종복지재단은 현재 내부 감사 이후 외부 전문회계사를 통해 추가 감사를 시행 중이며, 횡령사건에 대해서는 산하 복지시설에 상황을 전달했다. 책임자 처벌 수위와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원 수습기자

“현 집행부 중심으로 결속하라”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 7월 25일 특별담화 발표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 등
집행부 종단현황 보고 자리에서
선암사서 합동득도 수계산림도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이 7월 25일 “태고종 집행부를 중심으로 전 종도가 결속해야 한다”는 특별담화를 발표했다.

담화 발표는 태고종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을 비롯해 호법원장, 종무원장 등의 종단 현안 보고 자리에서 이뤄졌다.

혜초 스님은 “편백운 총무원장이 빚도 갚고 잘하고 있으니 호법원과 규정부는 해종 행위를 하는 종도에 대해서는 종단기강을 바로 세워야 하고, 현 집행부를 중심으로 결속하라”고 지시했다.

혜초 스님은 또 “태고종은 사설사암이 종단의 기본사찰들이지만, 창건주의 권한은 절대적이며 창건주는 주지를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천중사 재산의 경매처분에 대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종회측의 행위에 대한 비판 등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태고종 전국시도교구 종무원장 협의회 회장 법성 스님과 총무 진성 스님은 종정 혜초 스님이 입회한 자리에서 ‘지난 7월 18일 대전에서 개최한 종무원장 협의회 간담회에서 도산 전원장과 도광 종회의장, 법담 종회특별감사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고, 종무원장 협의회의 입장문을 통해 사과하고, 종무원장 협의회를 해산한다’는 공고문에 서명했다.

한편, 태고종은 7월 25일 선암사에서 제43기 합동득도 수계산림을 개최했다. 이날 입교식에는 총 46명의 행자가 등록, 참가했다.

태고종 정수원장 호명 스님은 “행자교육이란 사찰의 공동체 생활을 경험하는 것인 만큼 힘들더라도 참고 견기는 연습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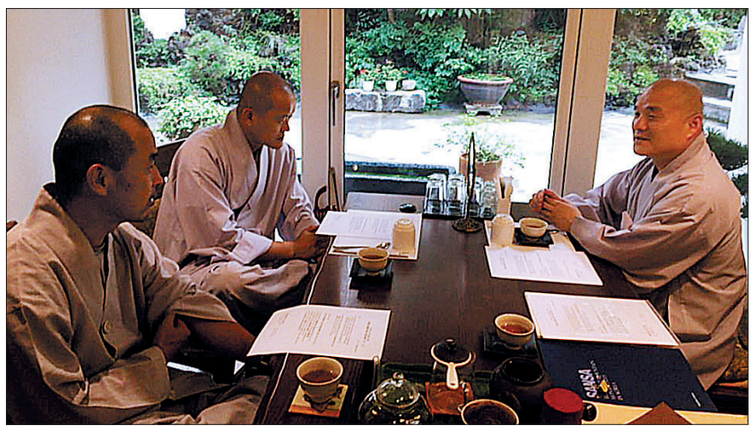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은 “태고종림 정수원에서의 수련생활이 출가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두고두고 지남이 되고 추억이 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가행정진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공공사업 영역, 포교종책 첫 접근 눈길

조계종 포교원 7월 26일 부산서 종책간담회

교육 · 복지 · 환경 등 포교 접목
11월 중 솔루션 보고서 발간
개별사찰 사례 취합해 연구


26일 오후 진행된 지역사찰 사례 취합 간담회 모습.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정부와 지자체의 사회참여형 공모사업에 대한 종단차원의 첫 접근이 눈길을 끈다. 불교계 기관 · 단체들이 개별적으로 선정하는데서 더 나아가 종책차원에서 사회참여 비중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7월 26일 부산시청에서 '공공영역 참여 포교 솔루션' 개발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부산지역 정관계자를 비롯해 사회참여형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사찰이 참여해 사례를 소개했다.

포교원의 이번 종책간담회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 교육, 복지, 의료, 환경 등 사회공공영역의 종교계의 참여 현황을 파악하고 새로운 포교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포교원은 광역자치단체 2곳을 시작으로 기초자치단체 3곳 등 표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어 포교전략과 방법론으로서 〈공공영역 참여 솔루션〉에 대한 보고서를 11월 중 발간할 예정이다.

이상봉 포교원 포교정책팀장은 "현대는 민관협력시대로 지역에서 한정된 자원과 역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협력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 생활 전반에 자치단체의 공공사업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며 "포교 차원에서 개별사찰의 참여를 위한 과제를 설정하고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지역별 사례를 먼저 취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포교원에서 파악한 정부부처별 공공영역 민간단체 지원 사례는 △문광부-종교문화활동지원, 종교문화기반구축, 한류대중문화 육성 △통일부-민간통일운동지원, 남북사회문화교류 △행정안전부-취약계층, 안전사회통합, 시민의식, 자원절약 등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외교통상부 문화외교 및 국제교류, 해외한국학 연구 △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사회통합 △보건복지부-아동시설지원, 방과후활동지원, 장애인복지, 노숙인지원, 생명윤리 및 안전관리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 육성 △산림청 숲가꾸기, 공공산림가꾸기, 수목장 활성화 △산업통상자원부-신재생에너지 보급, 녹색성장기반 확충사업 등이다.

불교계에서는 현재 불교상담개발원이 서울시와 자살방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불교여성개발원이 행정안전부 비영리 공모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범수 불교상담개발원 부원장은 "공공영역에 대한 참여는 사회 요구에 따라 종교계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3년 이상의 사업 신뢰성이 기반되기에 준비과정이 치밀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폭염에도 어린이 청소년 행사 그대로

파라미타 연합캠프 7월 30일, 불교스카우트 잼버리 8월 2일

무더위에도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불교계 행사는 차질없이 진행된다.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심산)는 '제21회 파라미타 청소년 전국연합캠프'를 7월 30일 입재한데 이어 8월 1일 회향했다.

대구 동화사 등지에서 열린 이번 캠프에는 13개 지역협회의 청소년 대표 및 지도자 500여 명이 '대프리카(대구 + 아프리카) 즐기러 가즈아'를 캐치프레이즈로 함께 모여 무더위를 극복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는 매년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의 심신과 호연지기를 키우고 회원 상호 간의 교류를 위해서 전국연합캠프를 개최해왔다.

올해로 21회째를 맞은 이번 전국연합캠프는 '한 여름밤의 축제', '간송미술전 관람', '대구 근대골목 투어', '대구 랜드마크 이월드 체험', '음악놀이축제', '백일장', '동화사 순례' 등 다양한 활동으로 채워졌다.

이와 함께 8월 2일부터 7일까지 불교스카우트연맹은 고성 세계잼버리수련장에서 열린 제5회 국제패트롤잼버리에 참여했다.

이번 잼버리에는 45개국 6500명의 청소년과 지도자들이 모인다. 캠프서는 곰돌이밧줄놀이, 곰돌이 활강, 프리스비골프, 헌터×헌터(새총쏘기), 앵그리버드, 기능장빌리지, GDV(지구촌개발프로그램), 아마추어무선 HAM, 호랑이 발자국, 캠핑안전스쿨, 개척물만들기, 체험오리엔티어링 등 체험행사가 열린다.

이와 함께 조계종 포교원은 잼버리장에 불교관을 개설하고 24색 합장주 만들기, 태극부채꾸미기, 아침예불, 일요법회 등을 진행한다. 노덕현 기자

"이젠 나도 '글로벌 에코리더'"

고양시 덕양복지관, 11월까지 학교연계 환경교육

친환경 생활습관을 실천하고 확산시키는 청소년 '에코리더십' 환경교육이 시행된다.

고양시 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관장 강영규)은 고양시 에코교육시티 환경조성사업 일환으로 '2018 글로벌에코리더 양성과정'을 11월까지 운영한다. 2년차인 올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환경 체험학습 및 수행과제 등 교육 특강을 학교와 연계해 진행 중이다.

글로벌에코리더 양성과정은 상반기 서정초 5학년 110명(5월 18~6월 1일), 소만초 3학년 76명(6월 15~29일) · 1학년 80명(7월 3~19일) 참여했다. 프로그램은 △물 순환과정 실험 △하천 맑히는 EM흙공 만들기 △지렁이 관찰 수업 △우유팩 팽이 만들기 실습 등이 진행됐다.


2018 글로벌 에코리더 양성 학생들의 '흙공 만들기' 체험 모습.

상반기 참여 학생들은 "글로벌 에코리더로서 성사천 수질검사를 통해 하천이 얼마나 오염됐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소감을 전했다.

김지원 수습기자

기차로 즐기는 템플스테이 · 강원도 여행

불교문화사업단-코레일, 8월 11~12일 일정 기획

전국적인 '불가마 무더위'가 계속되는 요즘, 피서를 고민하는 이들을 위해 강원도 계곡과 바다, 사찰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여행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과 코레일관광개발(대표 방창훈)은 8월 휴가철을 맞아 공동 기획한 '기차 타고 떠나는 템플스테이'를 8월 11~12일 선보인다.

여행 첫날인 11일에는 서울역서 KTX를 타고 출발, 평창역에 도착하면 '한국의 알프스'라 불리는 대관령 양떼목장에서 양에게 먹이를 주는 체험이 진행된다. 이어 묵호항서 논골담길과 묵호등대 자유관광을 한다.

이후 동해 삼화사로 이동해 △사물체험 △소원 담은 염주 만들기 △스님과의 차담 △추암 촛대바위 일출보기 △바닷가 산책 △무릉계곡 명소 탐방 등 1박2일 템플스테이를 즐길 수 있다.

12일에는 삼척중앙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5000원)이 제공된다. 삼척중앙시장을 비롯해 관동팔경 중 제1경인 죽서루 자유관광이 진행되며, 삼척해변을 둘러본 뒤 바다열차를 타고 정동진으로 이동한다.

모든 일정이 끝나면 강릉역에서 KTX를 타고 서울역으로 돌아온다.

'기차 타고 떠나는 템플스테이'는 이번이 6번째 여행이다. 지난 봄부터 하동 쌍계사, 고창 선운사, 예산 수덕사, 광주 무각사, 순천 송광사에서 1박2일 또는 당일여행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문화사업단은 9월과 10월에도 운영할 예정이다. 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은 "올 여름, 해외보다 멋진 우리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국내에서 시원한 여름나기 해보시길 바란다"며 "앞으로 지역관광자원과 템플스테이를 연계해 다양한 전통문화 여행코스를 개발하고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차 타고 떠나는 템플스테이' 상세한 정보와 예약은 코레일관광개발 홈페이지(www.korailtravel.com)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능하다. 윤호섭 기자


"병마 굴하지 않고 늘 씩씩하길"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설정(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은 종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박지선)를 7월 25일 방문, 국내외 난치병 어린이 대표 박해룡(8 · 소아당뇨 1형) 환우를 만나 치료비 총 1억5500만원을 전달했다. 이 치료비는 총 17명 대상자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김지원 수습기자

포교사단 서울 10대단장 선거 치러질까?

포교사단 서울지역단 제10대 단장 선거가 8월 14일 치러진다.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윤기중)은 8월 14일 제10대 서울지역단 단장 및 감사 선거를 실시한다고 공고했다. 입후보자 등록기간은 8월 6일까지로 입후보자는 포교사단 지역단 단장 및 감사 입후보 신청서, 이력서, 추천서 등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선거권자는 선거공고일 6개월 이전 임명된 운영위원으로 포교사단 서울지역단 사무국에서 투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포교사단 서울지역단 제10대 단장 선거가 관심을 모으는 이유는 지난해 11월 15일 예정된 선거가 지역단 내 절차문제로 연기됐었기 때문이다.

포교사단 관계자는 "서울지역 포교전법을 총괄하는 지역단의 선거가 원만히 치러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바른법연구원 제7회 금강경 수련회

8월 4일 원주 박경리 토지문화관서

금강경 독경 수행모임 바른법연구원(이사장 김원수)은 8월 4일 원주 박경리 토지문화관 대강당에서 제7회 금강경연수원 수련회를 개최한다.

이번 수련회에서는 참가자들이 일상에서 겪는 난제들을 금강경의 지혜로 풀어내는 분임토의와 금강경 독송, 선지식과의 대화, 금강경 세미나 등으로 진행된다.

먼저 의학계 대석학인 서정선 마크로젠 회장의 '실생활에서의 여시관' 강연을 시작으로 대덕화 포시즌 리빙데코 대표의 '문수보살 서원기도' 수행발표, 성현사 주지 원행 스님의 진행으로 산사음악회 등이 이어진다.

노덕현 기자





7월 28일 우리나라 최고의 힐링문화를 제공하는 오대산 자연명상 마을이 문을 열었다. 오대산 대자연 속에 불교명상과 힐링문화의 절묘한 조화로 국민치유에 나설 OMV의 미래가 기대를 모은다.

대한민국 최고의 힐링공간, '옴뷔' 문 열다

특집탐방 오대산 자연명상마을(OMV)

5년간 준비 끝에 7월 28일 개원
편백나무 등 최고급 자재 사용
150명 수용, 가족 · 개인 수행

'쉬다' '먹다' '놀다' 기본 테마
열린 플랫폼, 명상 · 요가 가능
정원, 숲길 등 사색 공간 제공

평창=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민족의 영산으로 일컬어지는 오대산 자락에 국내 최고의 힐링 공간이 들어섰다. 7월 28일 개원한 '오대산 자연명상마을' (Odaesan Meditation Village, 옴뷔)이 그 곳이다.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는 7월 28일 오대산 초입에 위치한 '오대산 자연명상마을'에서 개원식을 개최했다.

2014년부터 5년이라는 세월 동안 준비한 오대산 자연명상마을의 면모는 화려하다. 오대산 국립공원 초입의 대지 99,174㎡에 9,917㎡의 건평으로 100실 규모의 숙박, 문화, 체험 시설을 자랑한다.

오대산 자연명상마을은 단순한 명상시설이 아니다. '쉬다', '먹다', '놀다'라는 기본 테마로 이루어진 오대산 자연명상마을은 스스로 몸으로 느껴 쉼이라는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곳이다.

개인 · 단체 힐링 숙소 '가람채'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곳은 숙소인 '가람채'다. 가람채의 가람은 '절'의 옛말로 2층의 목재건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컨셉으로 편백나무의 명상공간이 함께 마련돼 있다. 또 해와 달, 별로 이름 붙여진 단독빌라 형태의 별채는 하늘을 향해 열린 공간을 선물한다.

총 150여 명이 수용 가능하며 개인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1인실을 갖춘 숙박시설이 총 80곳이 준비됐다. 이밖에 가족단위 숙박이 가능한 2인실과 복층형태의 시설도 마련됐다. 모든 시설마다 수행이 가능한 작은 명상실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전통수행 · 명상 공간 '동림선원'

대중들이 함께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는 명상홀인 '동림선원(東林禪院)'이 있다. 육송으로 만들어진 160평의 웅장한 전통한옥으로, 마음을 알아차리고 밝히는 수행공간이다. 선원의 명칭인 '동림'은 햇살이 쏟아지는 동쪽의 맑은 기운을 품은 사람들이 숲처럼 더불어 수행하는 것을 뜻한다. 이와 함께 오대천을 타며 생활 속에 고요함을 알아차리는 힐링공간인 '성적당(惺寂堂)' 등도 세워졌다.

독서 · 차 즐기는 문화시설 다양해

오대산 자연명상마을에서는 명상을 통한 힐링뿐만 아니라 독서와 차 등을 통한 다양한 문화생활도 영위할 수 있다.

먼저 '비움채'로 이름 붙여진 '웰컴센터'에는 북카페가 있다. 또 태백산맥, 아리랑 등의 저서로 한국문학의 거장으로 꼽히는 조정래 작가가 명예촌장으로 인문학 지혜를 나누는 '조정래 문학관'도 위치한다.

오대산 자연명상마을 맞은 편에는 오대산사 박물관마을이 함께 조성돼 있으며 왕조실록의궤박물관, 성보박물관, 한강 시원지체험관 등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문화체험 및 견학도 할 수 있다.

대자연 속 삶의 방식 선사

오대산 자연명상마을은 자연과 함께 살아 숨쉬는 삶의 방식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식사 장소인 '수피다'는 모든 생명에 대한 감사와 건강한 삶을 기도하며 만들어진 채식단을 제공하는 웰빙식당이다.

이와 함께 오대광명탑이 세워질 '붓다의 정원', 주목나무로 화엄세계를 표현한 '깨달음의 정원', 사색의 공간인 '지혜의 정원', 한강시원지 첫물이 모인 강가에 일품송이 함께 들어선 '아리야 숲', 소나무숲 속에 위치한 '비밀의 정원', 오대산 바람을 느낄 수 있는 '바람의 빛깔길' 등 정원과 숲길도 마련됐다.

집중명상 등 알찬 소프트웨어

오대산 자연명상마을은 대자연 속에서의 공간을 바탕으로 다양한 힐링 명상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먼저 생활 속 깨어 있음을 알아차리는 '자애와 마음챙김 명상', 우주를 품는 '걷기 명상', 생명과 더불어 행복해지는 '자연명상', 하루를 느림으로 거두는 '요가' 등이 기본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또 토요일에는 문화재 타임랩스, 일요일에는 착한음식 쿠킹클라스, 전통다도체험 등 인문강좌도 이어진다. 매월 1회 인문학 강의 및 지혜문답, 선지식과 함께하는 선문답과 집중수행도 함께 병행된다.

자연명상마을 원장 인광 스님은 "불교 내 참선수행과 함께 다채로운 명상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또 스님과 대작가와 만남을 비롯한 인문학적인 체험으로 스스로의 삶에 '쉼'을 선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사상을 담은 숙소동 디자인.


식당 '수피다' 실내모습.



명상홀 '동림선원' 일주문.


명상홀 동림선원 실내모습.

"불교 넘은 수행 1번지, 열린 플랫폼으로 일굴 것"

[인터뷰] 평창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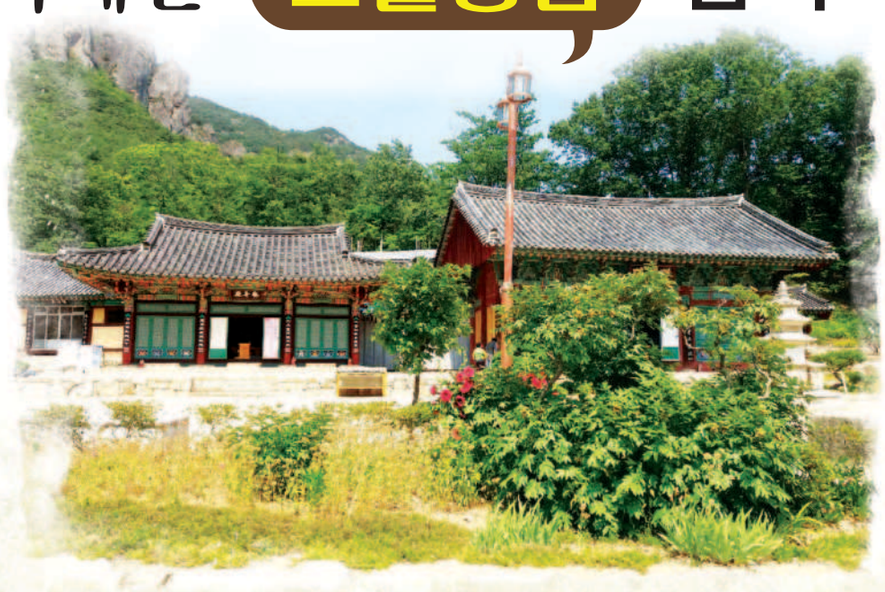


"1500여 년 전, 깨어있는 사람들이 오대산을 열었습니다. 그후 세월을 이어 2018년 자연명상마을이 오대산에서 탄생합니다. 옴뷔는 자유로운 플랫폼이며, 명상으로 현대인들을 건강케 하는 힐링스테이의 산실입니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사진〉은 오대산 자연명상마을의 개원을 앞두고 이 곳이 불교 수행 뿐만 아니라 요가와 명상, 인문교육 등을 통한 국민 힐링공간으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쉬며 먹고 즐기고 느끼면서 함께하는 모든 생활들이 자연명상이자 수행"이라며 "누구나 오대산 자연명상마을에서 삶의 기운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끝으로 "몸으로, 말씀으로, 생각으로 다른 것에 물든 습관들을 명상으로 치유해 행복을 담아가는 인연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다"며 관심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불교건축의 HOT 뉴스!
이제는 스틸공법 입니다



HOT
스틸공법 선두주자로 인기몰이 하고 있는 사찰건축 전문업체.
친환경적이며 단열효과가 탁월하고 구조변경이 용이 합니다.
목조건축물보다 시공비 1/5정도 대폭절감, 단청까지 3~4개월.
습기에 강하고 내구성이 우수합니다.

☎ 문의 : 민성기업(구,대진기업) 010-2628-9944

천년의 향기 선운사,
그 시간속에 노닐다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 프로그램

날짜	시 간	일 정
1일차	13:00~14:00	접수 및 숙소안내
	14:00~16:00	문화재토크콘서트 -만세루 (다도,가야금,국악연주,불교강의)
	16:00~17:40	자유시간
	17:40~18:10	저녁공양
	19:00~20:30	탁본(석씨원류 등) -지장보궁
	21:00~	취침

날짜	시 간	일 정
2일차	06:10~06:40	아침공양
	06:40~07:30	숙소청소 및 울력
	07:30~09:00	문화재답사, 포행 등
	09:00~11:00	도예체험, 소조상 만들기, 벽화그리기, 서각체험, 대웅보전 미니어처 만들기 -지장보궁 및 주차장
	11:00~	소감문 작성 및 회향 -지장보궁

* 예불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행사일정 8/18~19, 9/15~16, 10/13~14, 10/27~28 주말 1박2일 / 참가비 2만원
9/29 당일(경판이운식)

석씨원류 복원불사 안내
'석씨원류'란 석가모니의 일대기를 기록한 판각입니다. 석씨원류 판각은 조선시대 삽화의 걸작 가운데 걸작이며, 우리나라 미술사 특히 판화의 조각사에 있어 중요한 연구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강학과 수선의 도량 선운사는 불기2562(2018)년 4월 29일부터 3년에 걸쳐 망실 및 파손된 49판 석씨원류 판본을 복원합니다. 석씨원류 판본 복원불사에 많은 접수바랍니다.
* 복원불사 문의 및 접수 : 063-561-1422 * 계좌번호 : 농협 351-0820-4080-03 대한불교조계종 선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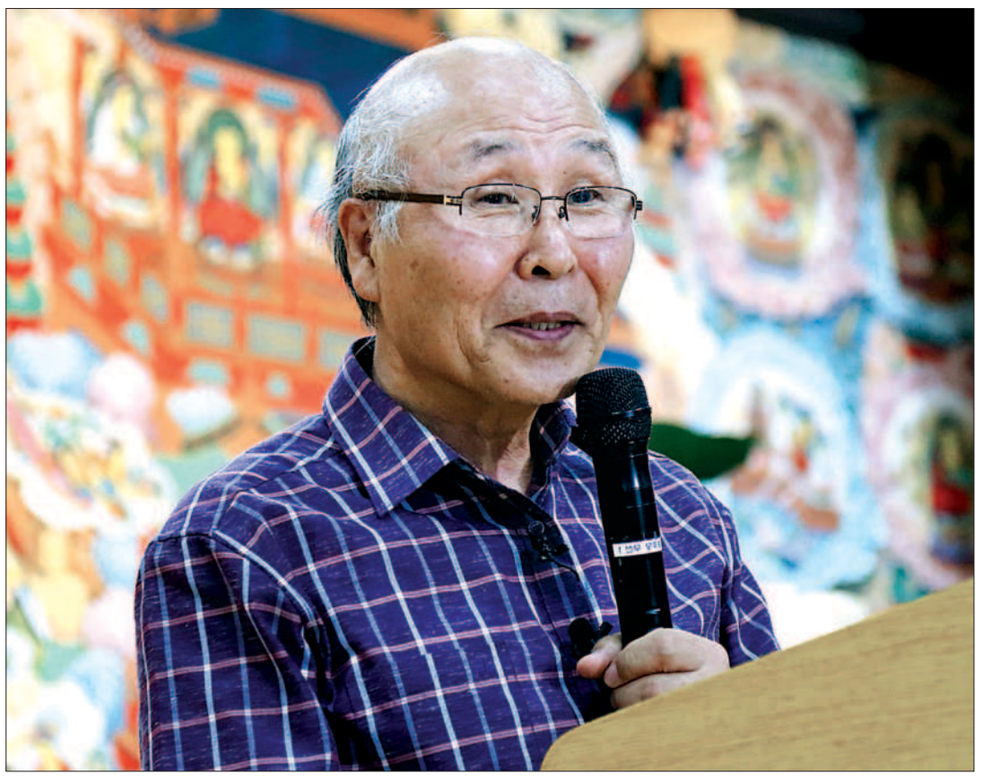
문화재청 전라북도 고창군
선운사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팀
문 의 063-561-2711

봉은사 불교교육 여름 특강

“대승불교 이해, 空보다 無諍 우선”

주제 : 부처님은 옛날에 뭐라고 했을까?

이중표 전남대 교수



이중표 교수는… 현재 전남대 철학과 교수이자 호남불교문화연구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불교학자로서 초기불교와 대승불교의 접점을 연구했으며 불교의 교리체계를 다양한 시각으로 조명,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데 기여했다. 주요 저서로는 〈불교란 무엇인가〉〈니까야로 읽는 금강경〉 등이 있다.

강남 봉은사(주지 원명)는 7월 24일 서울 봉은사 보우당서 〈니까야로 읽는 반야심경〉의 저자인 이중표 교수를 초청해 불교교육 여름 특강을 진행했다. 이 교수는 ‘부처님은 옛날에 뭐라고 했을까’를 주제로 “대승불교는 아비달마와 반야부운동이란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한다”며 “반야심경은 부처님 열반 후 왜곡된 불교를 비판하고 근본정신을 바르게 계승하자는 무쟁사상이다”고 강의했다.

정리=김지원 수습기자

강의 시작 전 여러분 모두가 반야심경을 독송했습니다. 반야심경 뜻을 이해한 분이 계신가요? 처음에는 한문으로 돼서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글로 번역해놓고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기가 더 어려워요. 오늘은 반야심경에 대해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승불교를 둘러싼 오해

〈반야심경〉은 대승경전입니다. 대승경전은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법문이 아니라 부처님 열반하시고 500년 뒤에 처음 이 세상에 출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등은 대부분 대승경전에 해당해요.

그런데 현대 학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대승경전이 불교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1700년 동안 불교가 아닌 것을 불교인 줄 알고 믿어온 것일까요? 한국에 들어온 불교는 대승경전이에요. 대승불교가 불교가 아니라고 하는 이들의 주장은 오해입니다.

우리는 대승불교가 왜 출현했는지, 대승불교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것이 어떻게 부처님 가르침과 연관되는지 올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런 이해 없이 대승불교와 초기불교인 아비달마를 나누게 되면 굉장히 혼란스러워 지는 것이죠.

현재 우리 불교계가 바로 이 혼란 속에 있습니다. 남방불교를 공부하다 오신 분들은 오직 초기불교만 부처님 가르침이고 다른 것들은 전부 가짜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전통은 전부 무시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또 뭐라고 합니까. 저네들은 소승이라고 무시하고, 대승이 우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한 집안에서 분열, 투쟁이 생겨나요. 지금 우리가 겪고있는 한국불교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초기결집과 ‘경’ ‘율’

먼저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불교사상사를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지금부터 2700년 전 북인도서 탄생해 출가, 성도하시고 45년 동안 법을 설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세상에 여래가 없어지니 우리는 누구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수행해야 하는지를 탄식했어요. 부처님은 열반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르친 가르침이 있다. 이제 그대들은 그 가르침에 의지해야 한다. 그리고 남에게 의지해선 안 된다. 자기 자신과 내 가르침에 의지하라.”

그럼 이제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돌아가셨지만 부처님 말씀은 남겨야겠죠? 그래서 시작한 게 결집이에요. 부처님 말씀을 들은 사람은 모두 모였어요. 500명 정도가 모여서 자기가 들은 이야기들을 쏟아낸 거예요. 바로 이 결집을 통해 각자 들은 말씀을 종합하다보니 모든 경전이 ‘나는 이렇게 들었습니다(여시아문)’로 시작하는 거예요.

같은 장소에서 부처님 말씀을 같이 들었는데 사람마다 의견이 분분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결집 때 부처님 말씀을 전체적으로 합치면서 이런 경우 누구 말이 맞는지 합의해서 하나로 정하게 됩니다.

열반 후 부처님 말씀 해석 분분
분열 · 투쟁 일삼는 아비달마
본질로 돌아가자는 반야부운동
대승불교는 무쟁서 공으로…

초기결집서 부처님 말씀은 ‘수트라(경)’와 ‘비나야(율)’, 두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부처님은 여러 철학적 관점에서 인간을 설명하고 세상을 이야기하셨는데, 이 말씀을 교리라고 합니다. 이 교리들이 모여진 게 바로 수트라 즉, ‘경’입니다. 비나야는 ‘율’입니다.

보통 불 · 법 · 승 ‘삼보’에 귀의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승’은 스님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삼보에 귀의한다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상가’에 귀의한다고 해야 합니다. 상가는 공동체입니다. 상가 형성에 있어서 스님(승부) 한 사람으로는 성립할 수 없어요. 또한 상가가 형성되려면 율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예로 들어보면,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아니죠? 국민들이 모여 있지만 헌법이란 국법이 있고, 그 국법을 따르기 때문에 국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이 서 있고, 율에 의해 유지되는 집단체를 ‘상가’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율이 없는 상가, 계율을 안 지키는 상가는 상가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율에 의지한다는 것은 나도 그 율을 따르겠다는 맹세나 다름없어요.

아비달마와 반야부운동

부처님 열반 이후 결집을 통해 경과 율을 편찬하면서 처음으로 부처님 말씀을 조직하게 됐어요. 그런데 부처님 경전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 ‘유’가 있어 ‘생’이 있다는 말이 이해가 되나요? ‘유’는 또 ‘취’가 있어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에는 네 가지 ‘유가 있어서 태어나서 죽는 윤회가 일어난다’고 많은 책들에서 설명을 해놨어요. 이런 책들이 다 부처님 열반 후 300년 쯤 됐을 때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부처님 말씀에 대한 설명이 이해되지 않아서 갖가지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서로 불교 해석이 달라서 20개 부파가 만들어져요. 이를 우리는 ‘아비달마’라고 칭하고, 이때 나온 수많은 책들을 ‘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경 · 율 · 론, 삼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비달마불교가 불교의 핵심을 제대로 못 보고 놓쳐버려요. 상좌부불교의 불교 이해는 근본적으로 왜곡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교리의 목적은 이론을 만드는 데 있습니까, 우리 괴로움을 해결하는 데 있습니까? 전자에 매몰되지 말고 후자로 돌아가자는 대승불교가 출현하게 된 배경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비달마불교가 스리랑카에 전해지고, 동남아시아 남방불교권으로 상좌부불교가 전해집니다. 그러면서 서로 교리가 달라 다툼이 생기고, 대승불교가 탄생합니다. 반야부운동은 언어에 집착하지 말자, 해석이 아닌 부처님 말씀의 본질에 집중하자는 운동입니다.

다툼은 이론에서 비롯된다

초기 대승경전으로는 〈금강경〉 〈소품반야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강경〉에 ‘공(空)’이란 단어가 안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사실 〈금강경〉의 핵심은 공 사상이 아니라 ‘싸우지 말자’예요. ‘무쟁의 수행자’ 수보리 존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무쟁분별경(無諍分別經)〉에서 부처님이 수보리 존자에게 다른 사람들과 다투지 않아서 무쟁을 수행하는 아주 훌륭한 수행자라고 칭찬하는 부분이 나와요. ‘아라냐 행자’란 말도 나오는데, 싸우지 않는 행자라는 뜻입니다.

부파불교에서 서로 다투니까 싸우지 말자는 내용은 다른 초기경전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이 점심 공양을 마치고 숲 속에서 휴식을 취하는데, 지팡이를 짚고 나타난 거만한 석가족 출신의 한 사람이 묻습니다. “당신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부처님이 깨달음이나 열반을 가르친다고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허망한 말씀을 합니다. “나는 세상 누구와도 다투지 않고 사는 법을 가르칩니다.”

이 간단명료한 경 속에 중요한 이론들이 전개되고 있어요. 석가족 출신이 부처님에게 “왜 사람들은 다툽니까?”라고 묻습니다. 부처님 말씀이, 사람들은 관념을 만들어서 이론을 가지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싸움의 본질은 이론에 있습니다. 불교는 이론이 아닙니다. 불교 교리들은 이론이 아닌 사실입니다. 부처님은 있는 것을 통찰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인데, 우리가 못 본 부분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는 불교를 통해서 “불교 이론은 이런 거야” 하면서 이론을 가지고 다녀봐야 인생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다른 이론을 만나 싸우기만 합니다.

그래서 대승경전에서 공 사상이 나온 겁니다. 그 말과 이론들은 전부 공한 것이다, 싹 다 지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로써 이론을 만들지 말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본뜻을 들여다보자고 말입니다. 반야 즉, 지혜로 통찰하라는 게 바로 〈반야경〉의 핵심입니다. 600종류나 되는 〈반야경〉의 정수만을 담아서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경이 바로 〈반야심경〉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괴로움 해결 뒤엔 버려라

아비달마불교는 ‘분별설’이라고 해서 부처님께서 다 구별해서 알려줬다고 말해요. 하지만 이는 불교가 아니에요. 부처님은 우리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언어를 사용했을 뿐이에요. 따라서 부처님이 사용한 모든 언어는 괴로움을 해결한 다음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무쟁분별론〉을 보면, “어떤 사람이 위험한 이쪽 언덕에서 안전한 저쪽 언덕으로 건너가기 위해 강을 건널 뗏목을 만들었다. 도착해서 보니까 건너게 해준 뗏목이 참 고마웠다. 그걸 짊어지고 다닌다면 이를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부처님이 묻습니다. 제자들은 뗏목을 버리지 않은 그 사람이 멍청하다고 대답합니다. 부처님이 “내 가르침도 이와 마찬가지니라”라고 해요.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 (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73-3722
팩스 031)573-3723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무료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30분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 (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 ~ 6개월 (주1회 특별수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 (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 (비법 전수)
■ 특 징 : 제 6차크라 (제 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체)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제 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 후원계좌 : 국민은행 (611225-92-121426 박성호)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명)

의식 변화 없이 과학으로 환경 지킬 순 없다

② 라돈침대사건과 실내오염

라돈방사능 침대사건

한 가정주부가 보급형 라돈측정기 '라돈아이'를 한번 써보려고 자기 침대의 수치를 측정하자 놀랍게도 라돈수치가 상상이상으로 높게 나와 이를 신고하면서 시작된 것이 라돈 방사능침대 문제의 발단이었다. 이후 조사해본 대진침대의 매트리스에서 실내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620배 크렐에 달하는 다량의 라돈이 검출되었다. 이렇게 문제가 되자 지난 7월 18일 대전경찰은 충남천안에 있는 대진침대본사를 압수수색하여 총 4만8천개의 침대를 수거했다. 수거한 것중 일부인 2만3천 298개중 1만8천개는 충남 당진항의 야적장에 쌓아놓고 해체작업을 해야했다. 현재 대규모 리콜사태를 겪으면서 수거하며 환불해주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과 향후 방사성물질 생활제품에 대한 각별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라돈은 1급 발암물질로 라듐에서 생성되는 방사성 비활성 기체원소이다. 미국환경보호국에서는 라돈 흡입이 흡연다음으로 꼽히는 폐암의 원인이라고 할 정도로 인체에 해롭다고 알려져있다. 이 사건은 음이온 효과가 있는 물질이라고 알려진 '모나자이트'라는 돌가루를 이용하여 매트리스를 코팅하는 과정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나오게 된 것이다. 실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문제의 침대 매트리스에서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9.3배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 라돈방사능 침대를 사용하면 폐질환, 피부질환, 갑상선 질환을 앓게 된다고 알려졌다.

문제는 라돈침대만이 아니다. 베게로 사용하는 라텍스도 라돈이 방출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라텍스는 베개, 아기범퍼, 유아용제품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어 방사능 오염의 범위가 커지고 있으며 취약한 유아들에게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문제가 되기 전까지 숲속에서 느끼는 쾌적한 공기에 많이 들어있는 음이온이 들어있다고 홍보하여 비싼 가격으로 판매되었던 것이다.

석면, 발암 생리대 등 라돈만 문제가 아니다

유용한 좋은 물건이라고 오랫동안 사용하다가 한참 뒤에야 치명적인 독성이 있다는 것이 알려진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우리가 건축자재에 오랫동안 자주 사용했던 슬레트는 현재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이다. 이 석면은 미세한 입자로 부서지면서 사람의 호흡기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져 죽음의 가루라는 명칭이 붙었다. 그 이전까지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사용했고 심지어는 이 슬레트를 불판으로 사용하여 삼겹살등을 구워먹기도 했다.

또한 과거 DDT는 아주 효과좋은 농약이자 살충제로 대량으로 사용했다. 50년대까지만 해도 사람 몸에 이가 많아도 DDT를 뿌렸고, 온갖 해충을 죽이고, 농약으로 제초제, 살충제로 사용했던 인간이 발명한 획기적인 물질로 알려졌다. 그러나 레이첼 카슨 여사의 '침묵의 봄'에서 농약으로 사용된 DDT를 먹은 물 속 플랑크톤에 축적되고, 그것을 먹은 물고기의 몸에 다시 축적되었으며, 또 그 물고기를 잡아먹는 새들 몸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축적된다. 이 생물학적 농축으로 인해 새들이 죽어 봄인데도 새들이 울지 않는 침묵의 봄이 되었다는 것이 〈침묵의 봄〉의 내용이다. 이 책은 전세계적으로 DDT사용을 중단하게 된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또 있다. 작년 8월 생리대에 발암물질이 들어있다는 실험결과가 발표되면서 한국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다. 여성들에게 생리시기가 되면 항상 사용해야하고, 직접적인 신체접촉을 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문제였던 것이다. 그 발암물질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인 TVOC로 대기 중으로 쉽게 증발되는 액체 또는 기체상 유기화합물을 통틀어 의미한다. 이 물질은 실내에서 페인트, 접착제, 카펫 벽지 등 건축자재로부터 발생하여, 피부 접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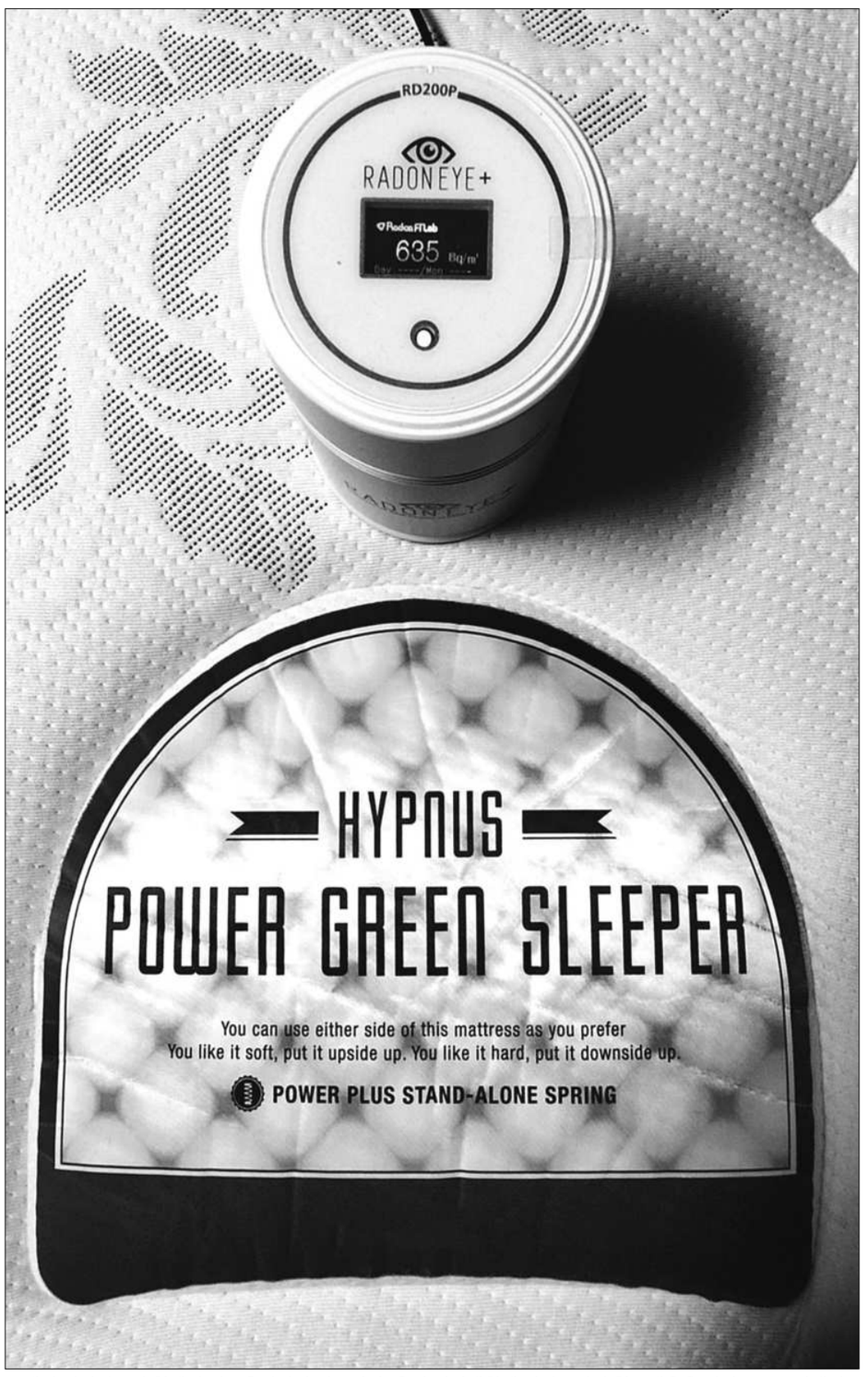
일상 생활에 침투한 환경오염
각종 증후군으로 나타나는 추세
근본원인 해결 않고 과학에 의존
친환경 생활로의 전환 없인 재앙

이나 호흡기 흡입을 통해 신경계 장애를 일으키는 발암물질이다. 총 11종의 생리대에서 발암물질인 스타이렌이 검출되었고 이 물질은 생식독성도 있다고 알려진 위험한 것이다. 이로 인해 출혈량 감소, 주기 불규칙화, 생리통 심화 등 부작용이 있었다고 알려졌다. 그래서 올해 2018년 10월부터 생리대 제품에 전 성분표시가 의무화되었다. 생리대는 3-40년간 장기사용하기 때문에 미량의 독성물질이어도 오랜시간 독성이 누적되어 심각한 피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

대기오염보다 더 심각한 실내오염

서강대 이덕환 화학과 교수는 라돈침대의 음이온은 "라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나오는 알파(α) 입자를 음이온이라고 포장한 것일 뿐"이라고 단언한다. 실제로 음이온 제품으로 알려진 모든 것들이 실은 방사능 제품이라는 뜻이다.

최근 가정이나 사무실 등 실내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실내 공기오염이 심화되어 '새집증후군' '건물증후군'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새집증후권은 건축자재나 벽지 등에서 나오는 유해물질로 인해 거주자들에게 건강상 문제를 야기시키거나 냄새로 인한 불쾌감 등을 말한다. 대표적인 새집증후군 물질로는 포름알데히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일렌, 스틸렌 등이다. 이들은 장기적으로 노출되면 암까지 유발하는 유독물질이다.



문제가 시작된 D사 침대와 라돈측정기인 라돈아이. 우리 일상생활에 환경오염이 침투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실내오염물 중에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건축자재와 시공과정에서 적정량 이상의 접착제 등 사용으로 발생된다. 벤젠이나 클로로포름 메틸렌 등이 원인이다. 준휘발성 화합물로는 폴리 염화비페닐(PCBs) 등이 있다. 또한 실내 미세먼지도 문제가 된다. 대략 0.005~500㎍/m의 크기를 먼지라고 하는데 이 중에 10㎍/m 이하인 먼지를 미세먼지라고 한다. 흡연이나 취사하면서 나오는 연소, 생활용품 등에서 발생하는데, 호흡을 통해 심폐질환을 야기시켜 수명단축과 건강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준다. 미세먼지는 실외 대기중 유입되는 경우도 있지만, 실내에서 발생되는 것도 있다.

이뿐 아니라 실내오염으로 '총부유세균'이 있다. 실내에 존재하는 미생물들이 다습하고 환기가 불충분하여 공기질이 나쁠 경우 잘 증식하게 되는데, 살포제, 공기정화기, 냉장고, 가습기, 애완동물 등으로부터 나오며, 이로 인해 전염성 질환, 알레르기 질환, 호흡기 질환등을 유발시키기도 한다. 병원의 경우 에어컨의 사용이나 세균제 살포 등으로 박테리아가 증식할 수 있고 환기장치를 통해 결핵, 폐렴 등을 옮겨 질병 발생이 촉진될 수도 있다. 이러한 부유세균은 먼지나 수증기 등에 미생물들이 부착되어 생존한다. 낙하세균은 지표면에 낙하하여 물품에 영향을 주고, 진균류라는 곰팡이도 심각한 실내오염물질이다.

과거 연탄을 많이 사용할 때 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는 일이 자주 발생했고, 이산화탄소 또한 난방시설과 인간의 활동으로 발생한다. 오존도 실내 오염물질인데, 이것도 복사기, 레이저프린트, 팩스 등 높은 전압의 전기를 사용하는 사무기기에 많이 발생한다. 환기가 부족할 경우 고농도의 오존에 노출되어 두통, 기침 등 기관지염과 심장질환, 폐기종이나 천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기관지 천식환자나 호흡기 환자, 어린이 노약자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의해야한다. 이외에도 이산화질소도 실내 오염물질이다. 앞에 언급되었던 라돈도 중요 실내 오염물질로 오래 전부터 주의를 받아온 가스였다. 실내 라돈 오염원은, 건물지반이나 토양, 광석, 상수도 및 건물자재에서 배출되기도 하고, 조리나 난방목적으로 사용되는 천연가스에서도 발생한다. 라돈의 붕괴과정에서 생성되는 라돈 자손은 호흡을 통해 흡입하게 되면 폐에 흡착하여 폐암을 유발할 수 있다.

과도한 인위, 과학기술 의존에 대한 재앙

최근 GMO(유전자 조작식품)문제는 그야말로 인간이 모든 식물과 동물의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지구상에 없던 물질을 만드는 것이다. 최근 환경운동가들은 GMO완전표시제를 주장하고 있다.

과거 한때 게놈(Genome)프로젝트로 인간의 유전자 지도를 파악하여 유전자를 조작하여 특정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유전자병을 근원적으로 치료하는데 사용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인간은 생명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신의 역할을 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인간의 유전자는 인간이 자연과 관계하면서 진화해온 결과물이다. 어떠한 개인이나 집단, 기관도 오늘날 살아있는 개체들이나 미래세대를 대신하여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환경문제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과학기술은 양면성을 갖고 있어 신중한 이용을 요구한다. 과학기술은 환경오염을 정화하고 자연복원력을 돕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발생한 부작용을 과학기술에 의존하여 해결함으로써, 현재의 인간자신의 파괴적인 생활양식은 변화하지 않은채 과학기술로 처리하여 문제를 덮어버려, 오히려 해결할 시기를 놓쳐 가까운 시일내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라돈침대문제, 석면, DDT, 생리대 발암물질 문제 모두 과도한 과학기술의존의 사회문화속에 발생한 부작용이다. 환경파괴적 생활양식의 전환 없이 과학기술에만 의존한다면 그것이 다시 재앙이 될 것이라는 경고를 잊어서는 안된다. 〈끝〉



유정길(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단기속성 3개월과정 (54기)

본 대학에서는 일상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 교육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 교육안내
· 개강일시 : 2018년 9월 3일 (월요일) 오후 3시 (목탁 지참)
· 교육시간 :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후 3시 ~ 5시
· 출 강 반 : 서울 본 대학 (위치 : 서울 조계사 근처)
· 통 신 반 : 지방 거주자를 위해 통신교육을 실시함 (교재, 교육자료, 녹음CD 우송)

2. 교육내용
① 송 주 편 (도량석, 조석종성 등)
② 예 경 편 (상단예불, 조석예불, 각단예불, 향수헤례, 사성례, 신중단 등)
③ 헌 공 편 (삼보통청, 중단퇴공, 관음, 지장, 신중청, 각종 불공의식 등)
④ 재의식편 (천도재, 49재, 시다림, 기제사, 명절제사 등)
⑤ 시 식 편 (관음시식, 화엄시식, 상용영반, 구병시식, 방생의식 등)

3.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 접수 (우편, 팩스 접수 가능)
·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 지도함
· 필요에 따라 일부 범음범패를 병용해서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함

☎ 02)733-1959
720-1836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

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승가회 종도모집

귀의 하옵고, 불제자로서 수행과 전법 포교만을 위해
함께 하실 제방의 큰스님들을 모십니다.

임 | 원

대 승 정 : 성광당 경보 대종사
원로원장 : 무명당 월곡 종회의장 : 대진당 혜월 승가원장 : 고암당 정인

▶각교구원장◀
서울교구 : 법룡 부산교구 : 무비 대구교구 : 지광 인천교구 : 혜초 대전교구 : 정수
창원교구 : 정우 경기교구 : 연봉 충북교구 : 심공 충남교구 : 능원 전북교구 : 진원
경북1교구 : 서암 경북2교구 : 대현 경남교구 : 혜묵

■ 문의 : 입종문의 안내(입종 구비서류 및 발급 증명서)
☎ 053)654-0408. 010-5051-3422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현충로 5길 99 원광사
(전화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남·녀 행자 수시 모집 합니다

※ 본 종단은 문광부 허가 제2010호-4호
※ 법인등록 274321-0029935로 등록된 사단법인 종단입니다.

(사) 대한불교조계종 승가회 승가원 승가원장 고암 정인 합장

탐욕에 사라진 불화들 제자리로 오려면…



최선일의
다시 찾아야 할 聖寶들

⑭ 포항 보경사의 도난 성보

한국전쟁의 피해를 입지 않은 경상도에 위치한 사찰은 1970년대까지 20세기 전반에 작성된 사찰 귀중품 대장에 적힌 성보물들이 온전하게 남아있던 경우가 많았다. 특히, 사찰의 연혁을 알 수 있는 사적기가 남아있다면 유물과 비교하여 조선 후기 불교미술사 연구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그 가운데 대표적이면서 잘 알려지지 않은 사찰이 포항 보경사이다. 보경사는 1500년의 역사를 가진 고찰이면서 임진왜란 이후에 건립된 전각과 성보문화재가 다른 사찰에 비하여 잘 보존되어 있다.

보경사(寶鏡寺)는 경상북도 포항시 송라면 보경로 내연산 기슭에 자리하고 있다. 사찰의 창건 설화를 보면, 지명(智明) 스님이 중국 유학 중에 어느 도인으로부터 팔면보경(八面寶鏡)을 받아 동해안 명당에 이 거울을 묻으면 왜구의 침입을 막고 이웃 나라의 침략을 받지 않으며 삼국을 통일할 수 있다고 전해 듣고 귀국해서 왕과 함께 동해안 내연산(內延山) 아래 있는 큰 못 속에 팔면보경을 묻고 못을 메워 금당(金堂)을 건립한 뒤 602년에 보경사를 창건하였다고 전한다.

그 후 723년에 각인(覺仁) 스님과 문원(文遠) 스님이 "절이 있으니 탑이 없을 수 없다"고 시주를 받아 금당 앞에 오층석탑을 조성하였다. 745년에 철민(哲敏) 스님이 중창한 후, 1214년에는 원진국사 승형(圓眞國師 承逈)이 승방 4동과 정문 등을 중수하고, 종 · 경(磬) · 법고(法鼓) 등도 구비하였다. 임진왜란 기간 중에 사찰이 소실되어 1677년에 도인(道仁) 스님이 3창 불사를 시작하여 1695년 가을에 준공하였으며, 삼존불상과 영산전(靈山殿)의 후불탱화도 조성하였다. 1725년에 성희 스님이 괘불을 중수하였다.

1916년부터 1921년까지 설산장욱(雪山壯旭) 스님이 많은 사재를 내어 전당(殿堂)과 탑을 중수하였으며, 1917년 10월에는 태인(泰仁) 스님이 명부전을 중수하였다. 1932년에는 대웅전과 상지전(上持殿)을 중수하였고, 1975년 이후 전각에 새롭게 단청을 하였다.

현재 보경사에서 도난당한 성보문화재는 조계종 총무원이 지난 2016년 발간한 〈불교문화재 도난백서 증보판〉에 대웅전 삼불회도와 삼장보살도(1997.10.10. 도난), 명부전 지장보살도와 팔상전 영산회상도(1999.5.14. 도난)가 올라가 있지만, 문화재청 사범단속반에는 1999년 5월에 도난당한 명부전 지장보살도(199㎝×183㎝)와 팔상전 영산회상도(245㎝×235㎝)만 신고되어 있다.

일제강점기까지 보경사에 소장되어 있던 성보문화재의 현황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된 보경사 재산대장을 통해 알 수 있다. 이 재산대장은 20세기 전반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전각과 암자별로 불상과 불교회화 등을 정리하고, 석조물, 전적, 불구(佛具) 순으로 적혀 있다. 당시 보경사에 소장된 성보문화재는 149건 424점으로, 이 숫자는 임진왜란 이후 조선 말기까지 화재나 수해를 입지 않고 사찰이 잘 운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전쟁 이후 고미술품 수집의 붐이 불면서 1970년대 상당히 많은 성보물이 도난당한 시기에 보경사에서도 도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1978년 11월 18일 〈경향신문〉에는 이 같은 신문기사가 남아있다.

"부산남부경찰서는 8일 전국 사찰을 무대로 문화재급 탱화와 향로 화병 등 30억 원 어치를 훔쳐온 김창욱(37, 전과3범), 구만춘(35, 전과1범), 백춘웅(34, 전과3범) 등 3명을 문화재보호법위반 및 특수절도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이성우(50, 부산시 남구 용호동20)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중략〉 경찰에 따르면 이들 문화재 절도단은 지난 1월 6일 상오2시쯤 전남 승주(昇州)군 선암사에서 전남지방문화재 60호인 팔상전 후불탱화(싯가 1천만원) 등 8점을 훔친 것을 비롯, 지난 3월 5일 전북 고창군 선운사에서 전북지방문화재인 팔상전 후불탱화(싯가 1천만원) 등 4점을 훔치는 등 지난 76년 8월부터 포항 보경사, 양산 통도사, 합천 해인사 등 전국 유명 사찰 67개소에서 탱화 1백37점, 병풍 3점, 향로 1점, 동자상 5점, 업경대 2점, 목각 27점, 화병 1점, 촛대 3점 등 시가 30억원 상당의 문화재 1백 84점을 훔쳐 1점에 10만~30만원씩 고(高)씨 등이 경영하는 골동품상에 팔아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재청과 종단에 신고된 도난문화재는 4점의 불화로, 1997년과 1999년에 도난당한 것을 보면 이전에 잃어버린 성보문화재는 파악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보경사의 문화재 현황을 불교회화 중심으로 일제강점기재산대장과 2007년 간행된 〈한국의 사찰문화재〉에 수록된 현존하는 성보문화재와 비교해 보면 재산대장에 언급된 53점 가운데 많은 불화가 외부로 유출됐지만, 도난신고가 된 4점을 제외하고 사진이 공개되어 있지 않아서 구체적인 형태를 알 수 없다.

보경사에서 도난당한 불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작품은 대웅전에 봉안되어 있던 삼장보살도이다. 이 불화는 1778년에 혜화(惠和) 스님을 비롯하여 수민(守敏) · 도청(道淸) · 지연(智演) 스님이 그렸다. 화면 중앙의 천장보살과 그 좌우에 지지보살 · 지장보살을 두고 주위에 권속들이 둘러싼 형식이다. 상단 중앙의 천장보살 아래에 진주보살 · 대진주보살이 서 있고, 그 앞으로 2위의 권속이 배치되었다. 천장보살은 머리에 화려한 보관을 쓰고 연화좌 위에 결가부좌를 하였다. 화면 오른쪽의 지지보살은 경책을 들고 있으며 좌우에 용수와 다라니보살이 합장한 모습으로 협시하고 있다. 지지보살과 지장보살의 두광은 천장보살의 채색과 동일하나 신광은 연두색으로 칠하여 천장보살과 차이가 난다.

화면 왼쪽에 민머리의 지장보살은 조(條)가 있는 가사를 걸치고 결가부좌를 하였는데, 왼손에는 석장을 들고 가슴 앞으로 들어 올린 오른손에는 투명 보주를 들고 있다. 그 아래 도명존자와 무독귀왕이 협시하고 주위에 명부 권속들이 배치되어 있다.

또한 도난된 보경사 삼불회도는 대웅전에 후불도로 걸려 있던 불화로, 기존 자료에 의하면 1778년에 조성되었고, 크기는 일제강점기 재산대장을 근거로 가로 403cm, 세로 366.6cm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화면을 상하로 나누어 상단에는 석가불을 중심으로 좌우에 아미타불과 약사불을 배치하였다.

중앙에 자리한 석가불은 키형 광배를 갖추고 오른손을 항마촉지인하고, 엄지와 중지를 맞댄 왼손을 무릎 위에 자연스럽게 올려놓았다. 착의법은 오른쪽 어깨에 편삼을 걸치지 않은 상태라 맨살이 노출되지만, 아미타불과 약사불은 대의자락이 오른쪽 어깨를 덮은 변형편단우견으로 걸치고 있다.

화면 하단과 측면에는 팔대보살과 사천왕이, 좌우와 상단에 불제자인 아라한과 신중들을 꽉 차게 그려 넣었다. 삼불회도는 세련된 필치로 각 존상의 얼굴과 신체, 문양 등을 표현하고, 적색과 녹색을 주조색으로 사용하여 18세기 후반의 전형적인 불화의 설채법을 따르고 있다.

팔상전 영산회상도와 명부전 지장보살도는 전해오는 사진이 전체 화면을 알 수 없어 세부 존상의 배치를 알 수 없지만, 본존 신광(身光) 내에 화려한 문양을 꽉 차게 그린 것이나 여래와 보살상의 형태 등을 비교해 보면 같은 시기에 동일한 불화승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포항 보경사 성보박물관이 지난해 12월 박물관 등록절차를 마치고 전시와 더불어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성보박물관을 중심으로 사찰의 역사와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기를 바랄 뿐이다.

〈문화재청 인천공항 문화재감정관실 감정위원〉
공저=홍은미 옥천사성보박물관 학예실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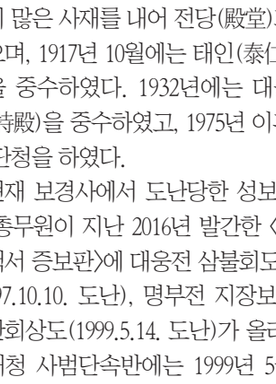
천년고찰 포항 보경사에서 도난된 삼장보살도(사진 위)와 삼불회도(사진 아래). 모두 조선 불화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귀중한 성보들이다.

1500년 역사를 가진 고찰 보경사
임란 이후 현대까지 중수 거듭해

1970년대 수집 붐… 수난 시작
불화 등 4점만 도난 기록됐지만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돼



천 지 운 명
건강 120세
대구 법당 이온식 특별 할인 판매



이 책에는 수백년부터 선조님들로부터 내려온 민간요법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래전부터 중국을 오가며 수집한 중국 민간 요법을 번역하여 수록했으며, 각종 약제 사용하는 방법 및 민간요법, 효소(발효) 담그는 방법 약 3,000여가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정가 15만원인데
50% 할인하여 특별 판매 합니다.
₩75,000원

기회는 딱 한 번 많이 주문해주세요!!
연세 많은 분들에게 최고 선물입니다.
지금 병원에 계시는 분, 병고에 시달리고 계시는분에게 최고 선물입니다. 어느 가정에서나 꼭 필요한 책자

무령 엮음 | 신국대판 | 730 페이지
정가 150,000원
※ 스님 특별우대
천지운명 건강 120세

1 어떠한 병이라도 민간요법으로 치유할수 있음을 사실 그대로 이 책자에 수록 되어 있습니다.
2 특히 기관지 천식, 심장병, 피부병에 관한 민간요법이 탁월합니다.
3 명절 선물용으로 최고로 실속있는 책자이며, 어느 집이고 꼭 필요한 민간요법서 입니다.

H·P 010-4496-6060, 010-6674-1356
입금계좌 : 농협 170972-51-038226 (예금주 : 장지엽)

피부·치아건강제
불 보살님의 기도, 가피, 지혜 원력으로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며, 회향공덕하는 마음으로
불자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국내산 자연식용재로 준비하였습니다.

스님, 불자님, 충치, 풍치, 시린이, 치주염, 치석, 잇몸출혈, 흔들리는 이, 입냄새, 담배냄새, 혀백태, 입안 건조, 임플란트 또는 틀니 하시고 윗몸 아프신 분, 탈모, 비듬, 얼굴 기미, 손발톱 무좀, 각질, 습진, 전신 잡티, 낭습진, 피부아토피, 알레르기, 벌레, 풀독, 모기 물린 후, 머리염색 가려움증, 상처, 비염, 화상 즉시 (여러번사용 물집안생김), 백반증, 노화성 피부건조, 역류성 식도염, 위염 등 피부 치아가 건강치 못한 분들 연락주시면 3개월 사용분을 보시합니다.

문의 및 보시처
안산 법흥사 개운 합장
010-6332-6070

관세음보살님 청정성지 관세음보살님
기도삼매 친견 일천성불 받는 도량
미타산 불관사
불사 자비 보행 25년 불사중

불자인연 행자승 구합니다.
26세 계유생 27세 임신생
34세 을축생 35세 갑자생
42세 정사생 43세 병진생
50세 기유생 51세 무신생
62세 정유생 63세 병신생

준비서류
기 본 증 명 서 ····· 1통
가족관계증명서 ····· 1통
혼인관계증명서 ····· 1통
주 민 등 록 등 본 ····· 1통
주 민 등 록 초 본 ····· 1통
범 죄 경 력 조 회 ····· 1통
(경찰서에서 발급해줍니다)

미타산 불관사
주 소 : 경남 의령군 부림면 미타로2북길 133
전화 상담 : H·P 010-7578-6788



지역친화적 대중성, 문화포교 지름길



조기룡의
사찰경영, 산문에 들다

⑭ 사찰의 문화포교 방안

불교문화가 곧 우리 전통문화라는 인식이 불교계에는 존재한다. 우리나라 국보와 보물의 상당수가 불교문화재임을 감안해보면 틀린 생각만은 아니다. 분명 한국불교는 전래 이후 1,700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민족과 하나 되어 전통문화를 형성해왔다. 우리 국민이면 종교를 떠나 수학여행 또는 관광레저 차원에서라도 명승고찰 한두 곳쯤 안 가본 사람은 없을 것이다. 석굴암, 다보탑, 석가탑을 비롯한 불교문화유산을 모르는 국민도 없을 것이다.

분명 불교문화는 우리의 전통문화유산이다. 그런데 불교문화가 과연 오늘날 살아있는 대중문화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해보아야 한다. 다시 말해 전통문화유산으로서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거나 절 마당에 놓여 있는 관람용은 아닌지 돌이켜 생각해보아야 하는 것이다. 불교문화는 전통문화로서만 존재해서는 안 되며 새로이 대중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그럴 때 불교문화는 생명력을 가지고 후세에 계승된다.

현재 문화가 미래 전통문화

오늘의 현재문화가 곧 미래의 전통문화이다. 이는 불교문화가 전통문화라는 자부심에 그칠 것이 아니라 현재문화가 되도록 노력해야 함을 일러준다. 그렇다면 불교문화는 어떻게 하면 현재의 살아있는 문화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인가?

그 대답은 불교문화가 대중에게 친숙한 문화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일선 사찰의 입장에서는 지역 주민과 하나 되는 공동체 문화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날 불교가 대중에게 다가가고자 문화적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노력은 전국 사찰에서 진행하고 있는 산사음악회가 대표적 사례이다.

산사음악회는 말 그대로하면 산사에서 음악회를 여는 것이다. 하지만 산사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도심 사찰에서도 음악회를 개최한다. 종교를 떠나 지역 주민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사찰에 와서 음악을 즐기고 불교문화를 접하고 있는 것이다. 산사음악회라고 하여서 불교음악을 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적 색채가 약한 음악을 공연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비불자인 지역 주민들이 불교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나아가 불교적 가치를 수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현재 산사음악회의 무대에 서는 공연자들은 불교음악가와 대중가수에 국한되지 않고 성악가, 악기 연주자, 국악인 등으로 다양하다. 이는 대중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사찰의 노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과거 사찰행사가 기도형식의 의식 위주였음과 비교하여 본다면 산사음악회는 사찰행사가 지역축제로 진일보한 것이다. 이는 산사음악회가 문화포교의 기능을 할 수 있음을 추정하게 해주는 대목이다.



봉화 청량사의 산사음악회 모습. 산중에 위치한 사찰이 어떻게 문화적인 방법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지를 잘 알려준 사례다.

하지만 개별 사찰의 특성이 없는 천편일률적인 산사음악회 프로그램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전국 어느 사찰의 산사음악회든 프로그램과 출연진이 대동소이(大同小異)하다. 개별 사찰의 특성을 살린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만일 어떤 사찰을 가나 비슷한 산사음악회를 만나게 된다면 대중의 관심과 호응은 이내 사라지고 말 것이다. 산사음악회에 대한 지역의 관심이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산사음악회가 사찰별 특성을 갖추어야 함을 시사한다.

전국 어느 사찰이나 약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자연과 전통을 머금은 공간 조건은 유사하다. 그 공간에 무엇을 담는가 하는 고민이 필요한데 그것이 사찰별 특성화이고 흔히 말하는 '행사 콘셉트(concept)'다.

산사음악회를 하는 주최 측은 출연진의 섭외에 많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으며, 신도나 지역 주민들도 어느 가수가 오나, 누가 출연하나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갖는다. 하지만 대부분 사찰의 입장에서는 출연료가 많이 드는 아이돌 스타와 같은 유명 연예인을 초청하기는 힘들다. 그러다 보니 과거에는 인기가 많았으나 현재는 선호도가 낮아진 연예인 그중에서도 불자로 한정하다보니 산사음악회에 나오는 출연진들의 면면이 사찰별로 겹치게 되었고, 산사음악회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호응이 점차 떨어지게 되었다.

만일 사찰이 재정적인 측면에서 부담을 느낀다면, 유명 연예인 초청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지역의 주민들이 주인공으로 참여하는 산사음악회를 시도하는 것도 좋다. 지역 문화 예술인을 비롯하여 관내 학교의 동아리, 이웃 종교의 찬조 출연 등을 적극 유도해서 사찰이 단순히 불교인만의 공간이 아니라 열린 지역문화공간으로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산사음악회에 지역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면, 사찰의 지역사회 참여도 자연스럽게 강화될 수 있다.

불교문화가 전통문화라는 인식 살아있는 대중문화인지 고민해야 비불자 참여가능한 문화로 변모 도심 외 농어촌 등에 접근 필요

사찰의 지역축제 동참 필요

산사음악회와 더불어 사찰이 지역축제에 동참하는 것도 지역친화적 문화포교를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지역축제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경쟁적으로 개최하여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전시행정의 표본, 졸속 기획, 지역민과 유리된 관(官)중심 행사라는 부정적인 면도 노정하고 있지만 주민자치, 지방화, 문화주권의식의 고양이라는 사회적 흐름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이러한 지역축제는 성격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이중 '지역의 역사, 문화 전통에서 비롯된 축제'와 '불교적 소재를 기반으로 하는 축제' 등은 불교에 우호적인 정서 함양과 불교의 대사회적인 이미지 제고, 지역문화의 중심처로 불교가 기능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사찰이 지역축제에 동참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다. 하나는 사찰이 기존의 지역축제에 불교적 콘텐츠(contents)를 가지고 참여하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사찰이 불교적 소재를 활용하여 지역축제를 만드는 방법이다. 전자는 행사 주최가 지방자치단체이고, 후자는 행사 주최가 사찰이 되는 것이다. 전자의 예로는 하동 '야생차 축제'와 진주 '남강 유등제', 화순 '운주문화축제' 등을 들 수 있으며, 후자의 예로는 해인사의 '팔만대장경축제'와 대흥사의 '초의차 문화제', 전등사의 '삼랑성 역사문화 축제', 그리고 여러 사찰에서 하고 있는 '연꽃 축제'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지역축제와 사찰이 결합할 수 있는 것은 불교가 한국의 전통종교인데다가 많은 문화 콘텐츠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어 지역축제의 프로그램 다양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절 마당이라는 야외행사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점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찰의 장점을 살려 사찰이 지역축제에 능동적으로 참여 하는 것이 지역 내 불교에 대한 우호적인 정서 확산과 지역 내 중심적인 위치 확보에 있어서 매우 필요하다.

사찰공간도 시민에게 개방해야

지금까지 사찰의 지역친화적 문화포교 방법으로 산사음악회와 지역축제 참여를 살펴보았다. 이 두 가지는 프로그램 차원의 문화포교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이 아닌 보다 하드웨어적인 사찰공간의 활용을 통한 문화포교를 고민하고자 한다. 사찰은 그 자체가 하나의 사회적 문화공간이고 우리 사회에 어디를 가나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사찰공간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한다면 사찰의 지역사회 참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는 사회적 유휴자산을 활용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문화적인 콘텐츠를 공급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찰공간의 지역문화 공간화는 문화 불균형 해소와 소규모 문화 활동 육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우리나라 지방문화 활성화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중앙과 지방과의 문화격차이다. 문화시설이 대부분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어서 지방 주민들의 문화향유 여건은 매우 열악하다. 하지만 중소도시나 농촌지역에서 지역특성을 고려한 문화시설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중소도시나 농촌지역의 사찰공간을 활용한다면 문화불균형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공공 문화공간은 규모가 큰 시설물들을 위주로 설립하였기 때문에 조그만 장소에서 해야 할 예술 · 문화 활동에 적합지가 않다. 이는 공연시설물이 없던 과거의 상황을 돌이켜보면 이해할 수는 있지만, 문화적 기호가 다양하고 동호인 모임이 많은 현재 상황에서는 소규모 지역행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요구된다. 여기에 사찰공간이 유용하다. 최근 도시 지역에서는 전용의 성격을 갖춘 소규모 문화공간이 도처에 신설되고 있으나, 농어촌 지역에서는 소규모의 문화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에 사찰공간은 지역문화와 연결된 특장(特長) 문화의 공간으로 적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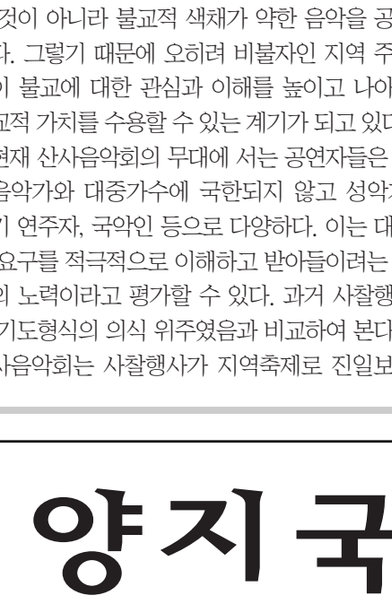
한국불교는 1,700년의 유구한 역사를 통해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를 형성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에 들어서는 불교문화를 생명력 있게 대중에게 전달하지 못해왔다. 과거의 불교문화가 전통으로는 계승되고 있으나 현재의 살아있는 불교문화를 창조하여 후대에 전달하는 노력은 부족했던 것이다. 이의 개선을 위해선 일선 사찰이 지역사회와 현재의 불교문화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사찰이 문화포교를 해야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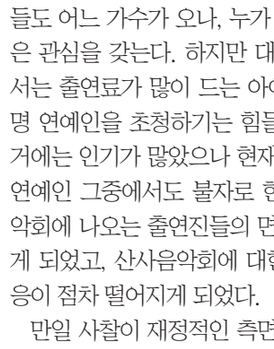
개신교는 이미 1984년 한국기독교협의회가 발표한 〈사회선교지침〉에서 지역사회 특성에 맞추어 목회의 모형을 모색하고 지역 주민의 생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교회 차원의 문화선교 전략을 수립하여 왔다. 가톨릭 또한 1990년대 후반 이후부터 현재까지 각 교구별 시노드(synod) 회의를 개최하여 문화선교를 비롯한 종합적 지역사회 접근전략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불교는 몇몇 사찰의 문화포교 모범사례가 생겨나고는 있으나, 두 종교에 비하여 지역사회의 참여가 여전히 미약한 편이다. 불교는 여타의 종교에 비하여 문화포교에 장점이 많은 종교이다. 다만 불교문화를 관람용 · 보존용의 전통으로 가둬두지 말고 시민, 주민과 더불어 호흡하는 생명력 있는 대중문화로서 사회와 지역에 전달하는 노력만이 남아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선 개별 사찰의 역량이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개신교와 가톨릭처럼 각 불교종단 차원에서 문화포교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지원을 해야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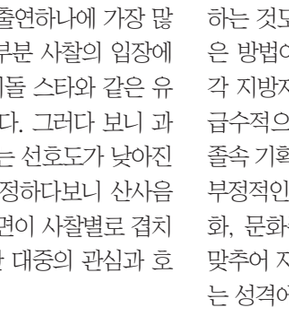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chokiryong@dongguk.ed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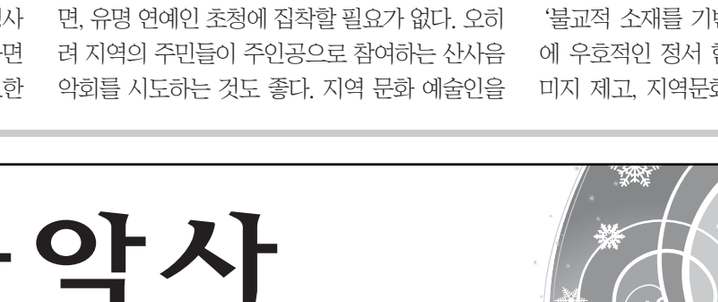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대북


2자


태징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764-2159 / 010-5264-3906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www.yangjikukak.com

대한명인
제14-406호
대고제작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02-456-8831
강 원 도 019-396-1110
충 청 도 010-6545-3350
경 상 도 010-4187-0062
전 라 도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사랑하는 이여, 극락가소서



원웅 스님의 경전산책

㉘ 정토삼부경 3 〈관무량수경(觀無量壽經)〉 2

자신이 지은 업보로 인해 아들에게서 사형을 언도받은 남편을 생각하니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을 떠나는 날엔 꼭 극락세계로 가고 싶다는 위제희왕비의 머리 위로 부처님의 입에서 5가지 광명이 피어올라 감싸더니 빔비사라왕이 있는 감옥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두 사람은 그 광명의 은덕으로 장애가 없는 마음의 눈이 열리고 신통력이 생겨나 멀리 허공에 계시는 부처님을 만날 수 있었다. 왕은 즉시에 무릎을 꿇고 부처님께 예배를 올리자 과거에 지어온 모든 선업이 그대로 증장되어 모든 죄업을 소멸하고 아나함과를 증득한다.

"왕비여, 누구나 극락을 갈 수 있다. 단 3가지 복을 지어야 한다. 첫째,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고 지성으로 봉양하며 스승과 어른들도 공경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산 생명을 죽이지 말아야 한다. 둘째는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스님들을 공경하고 청정한 삶을 위하여 계를 받고 지켜야 할 것이다. 셋째는 반드시 깨달아야 겠다는 마음, 보리심을 일으켜 일상에서 수행해야 한다. 이것이 극락에 태어나는 전제 조건인 청정한 선업을 닦는 것이다. 누구든지 부처가 되고자 한다면 이 선업부터 수행해야 한다."

부처님은 아난을 불러 위제희와 미래의 일체 중생들을 위하여 위신력으로 극락세계를 직접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을 설할 것이니 잘 기억해 두라고 하신다. 위제희와 아난은 두 손을 모으고 부처님께 법을 청하고 자리에 앉았다. 부처님은 극락세계에 가기 위한 방법 16가지에 대해 말씀하신다. 우리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과 자연환경과 부처님과 사람들을 바라보며 직관하는 능력을 키워 그들을 통해 공존하는 삶의 지혜를 관조해 보라고 하셨다. 부처님은 단순히 방법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방법을 말할 때마다 극락세계를 볼 수 있도록 해주셨다. 요즘 말로 하면 4D를 사용한 영상교육이었다.

첫째는 일상관(日想觀)이니 먼저 타오르는 번뇌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 서쪽 하늘에 걸려있는 태양을 바라보라. 이글거리는 번뇌도 저 태양처럼 사라져 가리니 눈을 똑 바로 뜨고 태양을 내 마음에 새겨두고 언제든지 일념으로 극락을 직관하도록 하여라. 둘째는 수상관(水想觀)이니 맑고 깨끗한 물을 바라보라. 물이 얼음이 되고, 얼음이 물이 되는 과정을 생각하라. 유리같은 얼음위로 조금 전에 보았던 극락세계의 장엄한 건물과 장식을 생각해보라. 바람이 불면 거기서 "미혹한 삶은 고통이다. 그러나 그것의 실체는 없다. 왜냐하면 모두 무상하니 다 사라져 가기 때문에 나조차도 없는 것이다."는 법문 음악이 흘러나온다. 얼음이 녹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 직관하라. 셋째는 보배의 땅((寶地觀)이니 극락세계의 땅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분명하게 생각하여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해야 한다. 부처님이 극락을 낱낱이 보여주셨다. 넷째는 보배로운 나무(寶樹觀)이니 아까 본 극락세계의 땅에서 자란 아름다운 나무들이다.

일곱겹으로 늘어서 있는 그 나무들은 고운 잎들과 꽃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에게서 나오는 광채는 모든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있었다.

그 속에서 서로 공존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가슴에 새겨두고 일념으로 기억해두라. 다섯째는 보배로운 연못, 여섯째는 보배로운 누각, 일곱째는 아름다운 연꽃으로 된 사자좌, 여덟째는 아미타불과 두 보살이 이 연화좌에 앉아 계신다 생각하며 일념에 드는 상상관(像想觀), 아홉째는 진신관(眞身觀)으로 이 땅에서 극락세계 부처님이 지닌 형상과 공덕상을 두루 생각하며 극락세계를 직관하는 것, 열째는 관음관(觀音觀)으로 관세음보살의 진실한 모습을 생각하며, 열한번째는 세지관(勢至觀)으로 대세지보살의 광명을 보고 기억하는 것, 열두째는 보관(普觀)으로 아미타불의 계시는 곳에 직접간다는 생각으로 하는 것, 열세째는 잡상관으로 아미타불, 관음, 세지를 한꺼번에 생각하며 친견을 꿈꾸는 것, 열네째는 극락에 태어날 우리들의 모습인 상배관(上輩觀)으로, 열다섯째는 중배관으로, 열여섯째는 하배관으로 상품상생부터 하품하생까지 9품의 사람들이 극락에 태어나는 모습을 생각하라고 하셨다.

위제희는 이 법문을 듣고 감동이 가시지 않은 상태로 옆에 시녀를 보니 그녀가 잠자고 있어서 얼른 깨우며 부처님께 한 번만 더 해달라고 간청한다. 시녀에게 말한다. 이 법문을 잘 듣고 후일 아사세가 부모를 죽인 것을 후회할 때 유언이라며 모든 이들이 극락을 향해 갈 수 있는 방법을 널리 세상에 알리라 하자 부처님은 다시 한 번 똑같은 방법으로 법문을 하셨다고 한다.

〈서울 반야사 주지〉

고난이 곧 축복, 번뇌가 곧 보리



김원수의 〈금강경〉 강의

㉗ 금강경의 네가지 진리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 말씀하신 네 가지 진리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현상이 다 우리 마음이 빚어낸 결과라는 일체유심조, 우리 마음이 실은 착각이요 없는 것이라는 공(空), 마음을 닦으면 너와 나의 장벽이 사라짐과 동시에 번뇌가 곧 보리요 부처님과 내가 둘이 아니라는 불이(不二), 부처님과 내가 둘이 아니니 따라서 나는 부처님처럼 모든 것을 다 구족했다는 구족(具足)입니다. 금강경 중 특히 16분에서 불이(不二)의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은 중생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중생들이여! 금강경 16분을 수지독송하라! 그러면 그대들이 받는 경천의 고통은 고통이 아니요 죄업의 소멸이요, 축복의 근원이라는 진리를 깨닫게 된다. 이것은 번뇌가 곧 보리요 생사가 곧 열반이라는 불이의 진리를 깨닫는 것으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생사를 자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16분 중 어떤 구절이 사람들로 하여금 번뇌가 곧 보리며 생사가 곧 열반이라는 불이의 진리를 일깨워주는 것일까요?

수지독송차경(受持讀誦此經) 약위인경천(若爲人輕賤)

시인(是人) 선세죄업(先世罪業) 응타악도(應墮惡道)

이금세인(以今世人) 경천고(輕賤故) 선세죄업(先世罪業) 즉위소멸(則爲消滅)

당득아누다라삼막삼보리(當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

위 글을 쉽게 풀어 다음과 같이 의역할 수 있습니다.

중생들이여! 이 금강경을 수지독송 하여도 고난이 되풀이된다면 이 사람은 전생에 지은 죄업이 지중함으로 당연히 사람 몸을 못 받고 악도에 떨어져야 할 사람이다. 그러나 언제인가 지은 선근으로 말미암아 용케 사람의 몸을 받기는 하였으나 전생에 지은 죄업이 워낙 무거워 각종 고난이 생기는 것이다. 이 재앙은 금생(현생)에 죄지은 결과로 생기는 고난과는 다르다. 보통 사람들의 지혜로는 고난의 원인을 알 수 없게 되는데, 이는 그 원인이 금생에 있지 않으며 전생에 지은 죗값이기 때문이다. 다행히 이 사람이 금생에 금강경을 만나 수지독송 할 수 있다면 전생에 지은 죄로 인한 각종 재앙에서 벗어나서, 행복해질 뿐 아니라 마침내 밝아지게 되는 것이다.

불이의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풀어서 말씀드립니다.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대여! 만약 그대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에 맞닥뜨렸다 하더라도 내게 너무나 힘든 일이며 극복할 수 없는 것이라 이름 지으며 절망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 정성껏 부지런히 부처님께 바치다보면 이 생각들이 점차 엷어지며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라는 생각에 벗어나는 자신을 발견 할 수 있을 것이다. 계속 바치다 보면 이 생각이 착각임을 알게 되면서 마음이 안정될 것이다. 그러면 그대 앞에 있는 행복과 축복을 발견할 것이다."

〈사회복지법인 바른법연구원 이사장〉



청운 스님의 생활속 '이뭣고' 수행

여실지견(如實知見) '이 뭣고'

불지견(佛智見)이라는 말이 있다. 오온에 대해 있는 그대로 알고 보는 지혜가 생겨나서 오온이 청정했을 때 다시는 윤회하지 않음을 생활속에서 '이뭣고' 수행으로 깨닫고, 더 이상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단계를 말하며,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달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이르는 말이다.

우리의 몸은 무시무종(無始無終), 상주불멸(常住不滅)한 마음 위에 이뤄진 하나의 형상이다. 마치 풀 위에 맺힌 이슬같이 아침에 낀 안개와 같은 것이다. 또한 산골짜기서 메아리가 울리지만 메아리 소리가 고정된 실체가 없듯이, 우리의 몸도 그와 같은 허망(虛妄)한 것이다.

인류의 역사속에 이어지는 수많은 전쟁과 혼란의 시초는 무명(無明)의 한 생각서 시작된 것이다. 사회적인 지위, 권력, 명예 등도 역시 허상(虛像)에 불과한 유한(有限)한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가 본래불(本來佛)이라는 진실을 멀리 하고 '내가 누구인가?' 하는 근본적 문제를 뒤로하고 전도(顚倒)돼 착각 속에서 생사윤회를 하는 것이다. 불성이란 내 생명과 우주 만물 만생의 본성이다. 그러니 전체가 다 너와 내가 사물과 둘이 아닌 한 생명 인데, 너와 내가 둘이 되어 시시분별(是是分別) 속에 다툼이 있고, 겉으로는 사랑을 외치면서 세계적으로 전쟁이 끝이 없이 이어지고 있다.

우주의 도리란 자비 지혜 행복의 능력을 스스로 갖춘 진실한 생명으로 인간뿐 아니라 일체 만물 만상이 다 갖춰져 있는 것이며, 자기만이 최고라는 아만심서 벗어나야 일체가 평등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사물의 모습이나 현상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익에 맞춰 이해하고

인류의 역사속에 이어진 수많은 전쟁과 혼란의 시초는 무명의 한 생각서 시작됐다. 사회적인 지위, 권력, 명예 등도 역시 허상(虛像)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 하는 근원적 문제를 뒤로하고 전도돼 생사윤회를 하는 것이다.

판단해 생겨난 잘못된 이념은 결과적으로 나와 남을 파괴와 혼돈으로 몰아 피해를 입히는 죄업으로 나타나게 마련이다.

자살폭탄테러를 자행한 IS전사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신(神)의 뜻에 따른 것이고, 자신의 죽음을 순교라 믿고, 무고한 사람들을 폭탄테러로 희생시킨다. 이러한 맹신 행위가 나중에 왜곡된 어리석은 짓으로 밝혀진 사례는 지금까지도 수없이 이어진다.

악마로부터 사회를 지키겠다는 자신만의 믿음으로 행해진 중세의 마녀사냥이나, 유대인을 악의 근원으로 믿던 히틀러의 홀로코스트, 낡은 사상과 문화를 척결하겠다고 수많은 희생과 파괴를 낳은 중국의 문화대혁명때 홍위병의 만행, 360년이나 이어진 십자군 전쟁 등은 모두 무명의 한 생각으로 시작된 사상으로 인해 인류에게 끼친 악업의 사례이다.

조선시대 당파싸움의 결과가 임진왜란과 일제의 침략으로 36년간 치욕의 식민지 생활을 거쳐 6.25전쟁으로 이어져 현재에 이른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중심적 사고를 갖게 마련이며 나를 중심으로 아집과 아상에 사로잡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습성을 갖기 마련이다. 자기의 잘못된 식견을 끝까지 옳다고 주장하며 정반합(正反合)의 도리를 망각(忘却)하고 남의 의견을 받아 들이지 않기 때문에 서로의 갈등을 겪는다.

내 욕심과 아집을 내려놓고 상대방 입장서 바라보는 여실지견(如實知見)이야말로 사회와 국가간에 빚어진 크고 작은 갈등서 야기된 수많은 인명 피해가 뒤따르는 전쟁을 피함은 물론 진정한 인류의 행복이 찾아오게 만든다. 모든 오해의 근본인 한 생각의 뿌리를 생활속에서 '이 뭣고'로 다스리는 수행이 절실한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남양주 선재사 주지〉

굴셀건

80ml × 60팩
13만원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無색소, 無방부제, 無화학첨가물로 만들어진 다슬기 엑기스!
껍찔채 가마솥으로 재래식 중탕해 고농축 멸균처리로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 강화에 좋은 다슬기, 간 기능에 좋은 껍질까지 들어간 2배 엑기스!



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물 맑고 공기 좋은 지리산 일대 국산 야생 느릅나무 껍질(유근피)!
가마솥에 오래 달여 진공포장해 편리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위장을 맑게! 염증은 싹~ 가라앉히는 효과!

100ml × 60팩
6만 5천원

평안할 康

제품문의 : 칠성상회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130,000/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65,000원

승가전통 건강비법

마 가 목(원탕)



허산 대진스님
(용문산 참나선원)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마가목과 약초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한달분 60봉, 두 재 분량, 한 박스)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 방영
■ 2010년 10월24일 일요일 – 오전7시20분 MBC TV "고향이 좋다" 「마가목」 효능방영
■ 2014년 7월 31일 목요일
– 오후7시30분 KBS-1 TV '한국인의 밥상' 경남 밀양 얼음골 「마가목」 건강식 방영
■ 2014년 10월 6일 일요일
– KBS-1 TV 오전 5시10분 '내고향 스페셜' 설악산 백담사마을 「마가목」 방영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위하여 마 가 목(원탕)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시주하시는 불자님의 요청에만 보시합니다.

상담문의 011-9049-2848 (공휴일 및 야간전화 사절)

• 농협 : 227027-51-090791 (예금주 : 남궁성균) ※ 제방선원이나 수행스님께 대중공양 올릴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

조계종 사회특보 · 문화교류특보 임명

사회특보 지일 · 문화교류특보 정우 스님


지일 스님


정우 스님

조계종 총무원 사회특별보좌관에 지일 스님, 문화교류특별보좌관에 정우 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7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사회특보 지일 스님과 문화교류특보 정우 스님에게 임명장을 전달한 뒤 "종단을 위해 헌신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사회특보 지일 스님은 정련 스님을 은사로 1989년 수계했다. 중앙승가대를 졸업하고 봉암사 태고선원에서 안거수행했으며, 연미사 주지를 역임했다.

문화교류특보 정우 스님은 종진 스님을 은사로 1988년 수계했다. 팔공총림선원 · 덕숭총림선원 등에서 안거수행했으며, 현재 해인선원 주지를 맡고 있다. **윤호섭 기자**

연꽃명소 달군 전통문화 향연



전국적인 연꽃 명소로 꼽히고 있는 전주 덕진공원에서 2018 전주연꽃문화축제가 열렸다.

(사)우리문화연구원(대표 성우)은 7월 21~22일 전라북도와 전주시, 전북은행, (사)날마다좋은날 후원으로 연꽃문화축제를 개최했다.

'아름다운 연꽃향기에 취한 문화향연'을 주제로 열린 연꽃축제는 국악공연, 통기타 연주 등의 각종 공연과 전북 각 사찰 합창단이 출연하는 전북불교합창제가 진행됐으며, 전통놀이문화 체험도 이어졌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수계 공덕이 학교생활 힘 되길"



영천 은해사(주지 돈관)는 7월 20일 경내 육화원에서 학교법인 동곡학원 선화여고 수계법회 및 하계방학 인성계발 문화체험학습활동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증명법사로 나선 돈관 스님은 "수계 공덕의 힘이 참 불자로서 올바른 학교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당부했다. 이날 수계법회서는 학생과 교직원 124명이 계를 받았으며, 한마음으로 '참된 스승'과 '학업성취'를 발원했다. 수계식 이후에는 조별장기자랑, 행운권 추첨, 감사편지 낭독, 촛불의식 등이 진행됐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흩어진 부산불심 하나로 모아 화합"

Interview

박수관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 초대회장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부산 불교 이미 통합 찬성
남은 문제 열린 자세로 소통
불교계 대 사회적 역할 위해
봉사와 나눔 실천 이끌 것

"부산불교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언제나 열린 자세로 많은 의견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흩어진 부산 불심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는 구심점이 필요합니다.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는 부산 불자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고, 화합을 최우선 가치로 자비나눔과 불교 대사회 활동에 앞장서겠습니다."

부산불교를 대표하는 '부산불교신도회'와 '부산불교연합신도회'의 통합을 위해 조직된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 초대 회장으로 취임한 박수관 회장은 아직까지 미완의 상태인 신도회 통합을 위해 열린 자세로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그는 7월 25일 기자간담회서 "이미 신도회 통합에 대한 의견은 모두 찬성이다. 진정한 화합을 위해 소소한 부분에 대해 서로 협의하는 일만 남았다"고 현재 분위기를 전했다.

지난 7월 12일 총연합신도회 출범식 당시 부산불교신도회가 일방적인 집행부 구성과 소통 부족을 이유로 보이콧을 선언하며 총연합신도회 출범은 '반쪽 통합'이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는 당시 부산불교신도회가 추천한 수석부회장의 자격 부적절성 논란이 발생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은 "부산신도회가 추천한 인사는 수석부회장을 맡기에 나이가 너무 젊고, 불교계 영향력도 적어 어울린다고 보기 어려웠다"며 "결코 일방적으로 반대하진 않았다.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서로 대의를 위해 낮은 자세로 양보하고, 항상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박 회장은 최근 2년간 부산불교연합회장인 경선 스님이 신도회 통합을 위해 매진해온 점을 높게 평가하면서, 두 신도회 모두 화합에 공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회장은 "오랫동안 갈등이 지속됐지만 충분히 대화해 모두 통합에 찬성했다. 빠른 시일 내에 완전한 통합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 이상의 갈등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 회장은 부산불교의 발전을 위해 재계에서 활동하는 불자 기업가들의 참여를 늘리고 자비나눔과 사회적 역할에 이바지하도록 신도회를 이끌 것을 다짐했다.

"현재는 흩어진 부산불교 불자들을 모아 사회공헌 역할을 다하도록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부산불교대상'을 제정해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고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불자를 발굴해 매년 연말 시상할 것입니다. 아울러 불자 봉사단체를 독려하고 나눔을 실천해 밝은 사회에 일조하는 불교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불교국가들과 교류 사업도 활발히 진행해 역동적인 부산불교로 발돋움하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한편 박수관 회장은 국내에서 (주)YC-TEC을 비롯한 여러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불자 기업가다. (주)YC-TEC 베트남, (주)YC-TEC 인도네시아 등 해외에서도 활발한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맑고 향기롭게 부산모임 회장을 맡고 있으며, 범어사 신도회장, 부산불교지도자 포럼 회장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 불교발전에 이바지해왔다. 2009년부터 베트남 명예총영사로 활동하며 한국과 베트남 간 우호증진 및 상호 투자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민간 외교관으로 양국 정부로부터 높은 신뢰와 평가를 받고 있다.

"자비나눔 행보 계속 잇는다"

이금석 직할교구 신도회장



"자비나눔의 행보를 앞으로도 활발히 진행하겠습니다. 더불어 교구 내 사찰의 애로점을 듣고 문제해결에 힘을 보탤 수 있는 교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계종 직할교구의 실질적 활동을 이끄는 신도회장에 이금석 신도회장〈사진〉이 재선출됐다. 7월 26일 진행된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재선에 성공한 이금석 신도회장은 첫 임기동안 진행한 소외계층을 위한 자비행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이금석 신도회장은 출판사인 신원문화사에서 일할 때 노적사 사보 편집을 도운 인연으로 불자가 됐다. 1996년 도서출판 무한을 설립, 제작 · 기획 · 광고 · 편집 등을 해오고 있다. 이런 역량을 바탕으로 2016년부터 직할교구신도회장을 맡아 자비실천 골프대회, 일일찻집 등 다양한 모금행사를 통해 기금을 모아 소외계층을 도왔다.

이 신도회장은 "직할교구 신도회는 제1교구 신도회로 전국 신도들의 모범이 돼야 한다"며 "가장 먼저 발로 뛰고 궂은일도 앞장서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교구 목적사업 활발한 참여"

김봉영 조계종 제4교구 신도회장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가 12대 김봉영 신도회장〈사진〉 취임식을 열고 지역포교 활성화를 다짐했다. 7월 15일 월정사 법륜전에서 봉행된 취임식에는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을 비롯한 본 · 말사 스님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김봉영 신도회장은 "본 · 말사간의 화합과 신도회의 단합된 힘으로 지역포교와 교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신임회장은 1988년 형제중기를 시작으로 건설업에 뛰어들어 지구종합건설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원주불교대학 6기를 졸업하고 건강한 신행생활을 모토로 2005년 원주불교산악회를 조직, 초대회장을 역임했다. 또 원주불교대학 동문회장을 거쳐 월정사 신도회 수석부회장을 오랫동안 지내왔다.

김 신도회장은 "교구는 현재 명상마을 안착이란 중차대한 과제를 지니고 있다. 교구 목적사업의 성공을 위해 신도회 차원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자원봉사 박람회 달군 스님들

탑사 · 쌍봉사 청소년 봉사박람회 참가



진안 마이산 탑사(주지 진성)와 쌍봉사(주지 보경)는 7월 20일 진안군민 자치센터 광장서 열린 제3회 진안군 청소년 자원봉사 박람회에 참여해 △합장주 만들기 △불교관련 상담 △떡볶이 스님 요리솜씨 보여주기 등 부스를 운영했다. 이날 스님들은 400여 명의 청소년들과 봉사활동 정보를 공유하며 청소년들의 활동을 독려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학업에 지친 청소년 위로

불국사, 경북생활과학고 템플스테이



경주 불국사는 7월 17~18일 '2018학년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도제 2기생 현장체험학습 일환으로 사찰을 찾은 경북생활과학고등학교 학생 22명과 교사들과 함께 템플스테이를 실시했다. 템플스테이는 취업과 자격증 준비 등으로 심신이 지친 학생들을 위로하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불국사는 학생들에게 △스님과의 차담 △108배 △염주 만들기 △사물소리 명상 △참선 △숲속걷기 명상 △불국사 사찰투어 등을 제공했다. **윤호섭 기자**

"발달장애인과 희망 물들여요"

해남장애복지관, 염색교육 '꽃물드림'



해남군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보련)은 12월까지 16회에 걸쳐 만60세 이하 성인발달장애인 14명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염색교육 프로그램 '꽃물드림'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복지관은 염색교육을 비롯해 부모-자녀 재발견 프로그램, 염색 전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지원 수습기자

바다의 미네랄과 폴리페놀 덩어리. 지구상 최고의 항산화 식품

맛이 샘나 효모 밥 죽 순
국내기술로 만든 콩단백 조직 콩고기

몸속의 오염된 지방을 분해 배출시키는 탁월한 항산화 식품!
전립선 및 다이어트, 성인병 예방에 최고!

❶ 스님들의 단백질 영양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된 고단백 식물성 콩고기 식품
❷ 효모와 항산화(폴리페놀)가 함유된 건강 단백질 콩고기
❸ 하루 섭취량 40g(가격 하루 1,000원대)로 충분한 단백질 영양 섭취
❹ 가격은 1kg 25,000원 (25인 분량)
〈사찰에서 다량 구매시 할인하여 드립니다.〉

영양성분표 : 수분 10%이하, 탄수화물 28%내외 단백질 60%이상 지방 3% 이하, 총열량 360Kcal 이하
특 수 성 분 : 폴리페놀 2.793mg/kg, 사포닌 1,807 mg/kg, 베타글루칸 1,233 mg/kg



효모 밥 죽 순 차(茶)용
• 500g 茶용 (6개월분) 12만원
• 깨끗한 물에 씻어 2L기준 20g 정도 넣어 30 ~ 40분 끓인 후 복용하시면 됩니다. 재탕으로 1회 더 복용 가능합니다.

(주)샘나 대표전화 1661-4288 / 010-4746-0335
인천광역시 서구 보듬로 158(오류동) 블루텍공존 3층 312호 ㈜샘나
농협 301-0222-8806-71 / 기업은행 418-038069-04017 [예금주 : ㈜샘나]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신화 종합 불사

▷ 전통한옥 법당 철거, 개축, 신축
▷ 30년 경력 대목장이 함께 합니다.
▷ 40년 경력 불모조각장인이 함께 합니다.
▷ 40년 경력 범종 장인이 함께합니다.

범종 공장 개업 한정
파격가 할인 판매합니다.

■ 석탑 5~7층 다수 있음 (5~3천만원)
■ 수익형 기도처, 서울 양도 21억(2억, 월 1천만원 세있음)
■ 강원도 철원, 대지 4.800평, 대웅전, 삼성각 등
건물 800평, 전통 한옥 목조 건물임
납골당, 수목장, 요양시설 등 전환가 양도가 40억원
■ 안성, 전통 한옥, 특A급. 대지 1,600평, 건평 140평,
사찰, 연수원 등 전환 가능. 양도가 25억 급매
■ 서울시내 전통사찰, 부지 1,200평
양도가 120억원, 잔고 증명 요함
■ 의정부, 사찰 대지 4,800평, 대웅전, 산신각, 요사채,
위치 좋음, 양도가 15억원
■ 그 외 다수의 사찰, 또는 매물 등이 있습니다.

010-6545-2020

천년고찰서 느끼는 문화재 美

고창 선운사, 문화재 프로그램 8월 18일 선봬

선운사 대웅보전과 삼존불, 만세루, 지장보살 좌상과 산내암자 도솔암 마애불, 참당암 등 여러 점의 보물급 문화재를 보유한 고창 도솔산 선운사(주지 경우)가 전통산사문화재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천년고찰 선운사, 그 시간을 거닐다'라는 주제로 오는 10월까지 운영되는 선운사 문화재활용 프로그램은 8월 18일, 9월 15일, 10월 13일, 10월 27일 매회 1박2일 일정에 맞춰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을 맞이한다. 첫 행사는 8월 18일 1박2일 일정으로 선운사 일원에서 오후 2시부터 펼쳐진다.

이번 행사는 선운사가 보유한 석씨원류 경판 등 문화재들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고, 문화재와 관련한 토크콘서트를 열어 문화재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는 신선한 시도가 될 전망이다.이밖에 다도, 탁본, 서각, 소조상 만들기, 도예체험, 벽화그리기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첫날 문화재(인문학 토크) 콘서트에서는 지역 가야금 전수자의 가야금 연주가 예정돼 있어 선운사 경내에 전통문화의 향기가 가득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선운사 문화재활용팀 관계자는 "전통산사의 정취를 느끼고 우리 문화재를 바로 알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선운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1박2일에 2만원, 당일은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어르신 일터 '다방매점' 개소

부산진시니어 24일 개소식… "노인 일자리 모범사례"

부산지역 어르신을 위한 일터 '다방매점'이 문을 열었다.

사회복지법인 불국토(대표이사 범산)에서 운영하는 부산진시니어클럽은 7월 24일 부산시 개금동에 위치한 한국신발관 3층에서 다방매점을 개소하고 첫 출발을 알렸다.



다방매점은 부산광역시에서 주최한 노인일자리 특화사업 공모에 당선됐으며, 만 60세 이상 어르신 12명을 고용해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를 위해 보조금 예산 3000만원이 투입되며 한국신발진흥센터가 협력한다.

개소식에는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상임이사 정현 스님, 부산광역시 장노년지원팀 정권철 팀장, 부산진구청 주민복지과 박영진 국장, 한국신발진흥센터 안광우 센터장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해 다방매점 개소를 축하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불교문화에 푹 빠진 외국인 유학생들

전북불교네트워크, 유학생 대상 불교문화체험

전북지역 대학에 유학중인 외국인 학생들에게 한국의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다.

전북불교네트워크(공동대표 오종근)는 7월 20일 전북생명평화센터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초청해 불교문화체험을 진행했다. '어서와! 한국 문화와 놀자!'란 주제로 열린 행사에는 잠비아, 조지아, 과테말라, 키르기스스탄, 중국 청년들과 대만에서 온 단기문화체험 학생 3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한국 사찰음식을 비롯한 자연음식의 정신을 배우고 연잎영양밥, 김장아찌, 녹두전 등을 직접 만들었다. 또한 한지 전통등을 제작하면서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하는 시간을 보냈다.

대만에서 온 주이난(21) 학생은 "재료를 직접 다듬어서 한국 전통음식을 만드는 과정이 재미있었다"며 "음식솜씨가 없어서 평소 한국 식당에서 먹던 맛보다는 못했지만 신선한 재료로 직접 만들어 먹으니 건강해지는 느낌이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선율과 함께한 백중 기도 '화제'

홍법사, 강형진 단장 재가법사 초청 음악법회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백중 우란분절을 특별하게 기념하는 음악법회가 봉행됐다. 부모에게 못 다한 효가 아픔이 되어 상처로 남은 대중은 강형진 니르바나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단장이 연주하는 음악에 눈물지었다. 눈물은 이내 기도가 되어 부처님께 간절히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간절함으로 바뀌었고, 강연이 끝나자 큰 박수와 환호가 법당에 울려 퍼졌다.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는 7월 22일 대적광전서 봉행한 백중법회에 강형진 니르바나필하모닉 단장을 재가법사로 초대해 특별한 치유법회를 선보였다. 강형진 단장은 국내 유일한 불교 오케스트라 니르바나필하모닉을 이끌며 수십 년 동안 찬불가 대중화 및 전문화를 위해 활동한 음악가다.

'그리움'이란 주제로 강형진 단장은 먼저 영화 '사랑과 영혼' 주제가를 성악곡으로 맞춰 편곡한 음악을 들려주며 죽음에 대한 상실과 아픔을 설명했다. 이어 동요 '섬집아기'를 들려주며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이끌어냈다. 강 단장은 돈황본 육조단경에 무념·무상·무주를 음악에 맞춰 쉽게 설명하고 팔정도를 지켜야 하는 바른 삶의 중요성도 덧붙여 강조했다.

강 단장은 "죽음으로 잃어버린 인연 가운데 가장 그리운 이름은 '엄마'일 것"이라며 "유한한 삶을 닮은 음악은 무념과 무상 그리고 무주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음악을 통해 불교의 참된 가르침을 배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회서는 홍법사 동림어린이 합창단이 참여해 함께 공연했으며, 자모회 세향기도반에서 10만배 수행 입재 100일을 기념하며 템플스테이관 건립기금 3000만원 약정식도 진행됐다.



홍법사는 새로운 법회 형식을 선보이고자 강형진 니르바나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단장을 재가법사로 초대해 음악법회를 진행했다.

음악과 함께한 부처님 말씀
대중 위로 도움, 호평 받아
시대변화 맞춘 新법회 평가
"다양한 방법으로 佛法 전파"

자모회 세향기도반은 현재 10만배 수행을 진행 중이며, 기도 후 매일 1000원씩 보시하고 불사 동참금을 마련하고 있다. 이날 법회 후 심산 스님은 수행 100일을 기념하는 기념식에서 참가자 수행집에 〈금강경〉과 〈천수경〉에 나오는 무위심(無爲心)을 적어주며 헤아림 없는 마음, 상이 없는 마음으로 정진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대중은 음악과 함께 한 강연이 쉬운 설명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을 뿐 아니라 마음에 감동을 줘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10만배 기도 수행에 동참하며 불사에도 함께해 더욱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경숙 홍법사 어린이청소년교육연구소장은 "오늘 많은 대중이 눈물 짓고 감동받는 모습에 저도 함께 행복했다"며 "음악과 부처님의 법으로 치유 받는 시간이었으며 특히 자모들이 함께 동참해 더욱 뜻 깊다"고 말했다.

감해경(56) 불자는 "절 수행에 동참한 것도 기쁜데 뜻 깊은 불사에 함께 하고 오늘과 같은 법회에 참석해 진심으로 행복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새로운 음악법회는 문화 예술을 통해 부처님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개최됐다. 아울러 새로운 법회 형식을 구상하고 도전해 부처님 말씀을 전달하는 색다른 법회로 좋은 사례가 됐다는 평가다.

주지 심산 스님은 "시대가 변하면 법을 담는 형식도 새로움을 추구해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불교계에서 유일한 오케스트라인 니르바나필하모닉은 이런 의미에 적합하고 불자들에게 소개할 수 있어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이어 자모반 세향기도회 10만배 수행에 대해 "젊은 불자 포교와 신심을 위한 능동적인 활동이며 내부적으로도 정말 고무적인 방향"이라고 격려했다.

해영사 상량 "장엄한 불사 이룩하길"

천태종, 22일 법요식
연면적 2,475㎡ 규모

천태종이 부산 해운대구에 불사 중인 해영사의 대들보를 들어올렸다.

천태종은 7월 22일 해영사 경내에서 법당 상량법요식을 봉행했다. 법요식에는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 총무원장 문덕 스님, 해영사 주지 세운 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 2,000여 명이 동참했다.

천태종은 현재 해운대구 좌동에 위치한 부지면적 696.3㎡(211평), 연면적 2,475㎡(750평)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새로운 천태도량 해영사를 건립 중이다.

법요식은 △상월원각대조사 법어 봉독 △경과보고 △개회사 △상량문 낭독 △상량법어 △치사 △축가 △축원 및 정근 △상량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 등 내빈이 해영사 상량식에서 상량하는 모습.

종정 도용 스님은 "장산의 힘찬 기운이 이 자리에 머무르니 관음보살 자비 손길 금빛 물결로 일렁이며 천태의 사부대중 신심으로 모여들어 좋은 인연 뜻을 모아 큰 불사를 일으켜 세운다"며 "선근공덕 싹이 터서 꽃봉오리 아름다워 큰 공덕의 결실을 약속하는구나. 일심으로 기도하며 정진하고 정진하여 장엄한 불사를 이룩하라"고 상량법어를 했다.

주지 세운 스님은 "스스로 부단히 정진해 고통에 빠진 중생들을 구제하는 일은 불자의 사명이다. 천태종도들은 억조창생 구제중생을 실천하기 위해 해영사 건립 불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삼보와 외호신장들이 보호하는 청정도량이 되도록 낙성 때까지 더욱 정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해영사는 1998년 부산 해운대에 종교부지로 땅을 매입, 2015년 8월 22일 종정 도용 스님에게 해영사(海永寺)라는 사찰명을 받았다. 같은 해 10월 21일 정부기관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아 11월 9일 기공식을 봉행했다. 해영사는 오는 12월 완공을 목표로 두고 있으며 불사 기간 중 지역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쌀 나눔, 장학금을 전달해 자비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해영사는 부산에 천태종을 전파한 이래 삼광사, 광명사, 용평사, 정법사에 이어 5번째로 건립하는 사찰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 광 수 련 원 ☎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empas.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거울을 닦아 때가 없어지면 밝음만 있는 것과 같아서 욕심을 끊어 구함이 없으면 마땅히 숙명을 알 수 있다.

〈사십이장경〉



관상 (손금)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암,질병,묘터, 송사재판,산소,낙태유산, 조상영가,교통사고,직장운, 승진운, 재물운,이혼수)
- **성철스님 사주 비법전수**
- 철학원 하실 분 천기누설 전수
- 스님, 무속인, 일반인

010-4014-8822

범불교조계종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종도모집 및 승려증 발급종단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0-9317-6686
「유투브」에서 **대명스님**를치세요!
대명 합장(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작법 천수바라연수원

염불 사물, 승려증 발급 종단
– 특별반 3개월 과정 모집
제9호 영산재 작법무, 천수바라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 출장탐사 * 개인사업자 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범음범패 학인,회원모집

- 염불을 여법하게 하고 싶은 분
- 염불 내용을 알고 싶은 분
- 사찰행사 함께 공유하고 싶은 분
- 사물,바라,작법을 배우고 싶은 분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 5시)
사찰행사 문의 환영
(살풀이, 극락무, 지전무, 관음무)
055-744-5300
010-5243-3587
진주 여여불음원 법일 합장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기도와명상

"신간 책 소개!"
기도와명상
교보문고 영풍문고 전국서점 구입!
책이름검색 손재찬선사 북갤러리 인터넷 구입!

모든불교인의 '필독서'입니다
문의010-5105-5000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의식은 불교의 꽃입니다.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49재, 천도재, 점안의식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문의 010-3263-6544
010-5530-2388

천기누설 운

"엄청난 책내용"
천기누설
검색!! **운**
토굴기도실와
운명점술학박사1호 손도사왕
책제목 검색 후 인터넷 구입
문의010-5105-5000

풍수지리 신통력

음택명당 이장하는데
해무리, 무지개 3시간
1년에 30회 뜹니다
무지개 스님
010-4413-3377

동이민간의술학회

간질환, 당뇨병, 고혈압, 암, 각종 고질병
치유 전문 도량
전문치유사 교육생모집
심복사 지덕 합장
010-5758-8689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보삼로 263-46 (북가현리 8-1)

최면 전수생 모집

① 누구나 전문가가 될 수 있다.
② 최면치료는 부작용이 없다.
③ 빙의(신들림)에서 우울증, 자살충동까지.
④ 최면치료는 재발이 없다.
⑤ 사고장요법까지 전수해준다.

HOMEPAGE : www.hypnosis.or.kr
최면치료사 상담치유학박사 강성진교수
010-4844-7002

불광(佛光)에너지 체험

관세음보살 · 약왕보살
가피받는 비법 전수,
건강회복, 운명(팔자)바꿈
블로그에서 「묘진사」 검색
053-652-2714
010-9616-2477
묘진사 (대구 내당동 소재)

모 집 안 내

사암, 포교원 등록
종단, 연합회 등록
불교문화원 시설 등록
지방 종무청 설치 등록
한국불교 종무청
종무집정기관 종무집정관
종통정승 011-412-8040
서울시 노원우체국 사서함 25호

명 상 (무료)

"누구나"
T.1588-5654
화 태 명 상 원
서울시 마포구 연남로 3길 31
전철 2호선 홍대역 2번출구

뇌강기도법 전수

뇌강검의 비밀?
☎ 02)963-1148 / 011-741-0867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스님 상좌 및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 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 (대학, 강원, 기본선원) 교육비 전액지원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문의 : 054-753-8228, 010-8852-0075

수인작법 사주팔자

- 옛 고승과 도인에게만 전수되어 내려온 수리 비술
- 수리의 비밀과 의미를 알려 드립니다.
- 손 하나만으로도 몇 년, 몇 월, 몇 일, 몇 시 전 후의 운세를 예측할 수 있는 운세 작법
- 명리나 운명학을 배웠어도 시원치 않는 분

천지조화의 수치를 열어 보입니다
010-7703-1188

점안식 49재 천도재

불공 사찰행사 전문
범음범패 실전위주교육
바라나비무,법고,화청,풍수,
명리,육효,주역,작명 (학인모집)
남여 결혼 성사 접수 중
대광명사 (동양불교대학)
031-953-3328
010-8893-8361

율곡 범음 대학 (광주전남 범음범패)

의식교육 학인 모집

- 대상 : 스님, 법사, 보살 가능, 사찰행사 합께 하실 분

초급 · 중급반	상 급 반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4시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30분 ~ 6시

광주무형문화제 제 23호 범음기능보유자
문의 010-6241-8499

(사)한국불교 조계종 영락사

요양하실 분 / 기도 하실 분
위치 :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033) 435-9556
010-7137-5924 / 010-4717-1960

청정한 제주에서 기도하며 함께 살아갈 비구스님 모십니다

010-3516-6375
(문자로 남겨주세요)

인생상담 능력있는 비구,비구니부전스님 및 기도스님,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0-9421-0730

부전스님 모십니다

(지역 : 경북)
010-2078-9595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아침죽, 오전 8시
점심, 12시(정오)
저녁5시30분(감자,떡)
(경기도 양평)
070-7779-7711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62세 이하
(충남 지역 사찰)
041-673-8385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 정 홍 산 현 불

종 도 모 집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FAQ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 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宗) 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수행도우미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쏙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선하트조율
하루 10분 수행으로 몸맘 행복한 조율
상·중·하 단전 챠크라 열려 기운 쌩쌩!
스트레스 제로! 피로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감 체험

氣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휴~ 힐링베개
잠이 스르르~ 저절로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완전해결!
이완이 스르르 저절로 와선삼매 100% 체험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 (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 스 님 – 오십만원 (책값 별도) ◆ 일반인 – 일백만원 (책값 별도) ◆ 우체국 :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 (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이메일 jabi2018@naver.com | 02) 2004-8213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가르침을 듣고 나서 믿고 기뻐하며 의심치 않는 사람은 최고의 깨달음을 속히 성취하여 여래들과 같아질 것이다.

〈화엄경〉



양평 추천 사찰 안내
(www.이박사.com)
- 한옥 법당. 요사채. 토지 1,200㎡
- 주변 산사찰. 기도 도량. 전망 좋음.
- 양도 : 2억 8천만원(토지값정도로) (위치 알려드리지 않음)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공인중개사
010-7347-1010 (02-430-0284 이박사)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18길 40,가락동프라자@상가(대표:이규철)
■ 비밀 보장. 방문 접수. 전국사찰. 암자 급히 구함 !!!

사찰(급)안내
- 위치 : 원주시 치악산 자락
- 대지 : 900평
- 건물 : 대웅전 28평 (전통 목조)
- 요사채 2동, 산신각(4평) (각 30평)
- 가액 : 5억 5천만원

010-4028-8896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 4층 건물 중 3층 60평
- 법당, 방 3개, 공양간, 창고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2,000만원
- 즉시입주, 몸만 오시면 됨

010-8842-4225

논산 사찰(급)안내
- 마을기도도량.토지 400㎡
- 목조 한옥 법당.요사채. 삼성각
- 운영잘됨. 위치좋음. 건물4동
- 스님사정으로 타지방 불사
- 양도가액 : 1억2천만원(융자가능함)

010-7347-1010 (02-430-0284)
구입의사 있으신 스님만 모심
(서울이박사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무료상담

사찰(급)안내
- 위치 : 서울 정릉유원지 근처
- 대지 : 734평(국유지) 인법당 10평 정도
- 방8개, 화상실 3개 시설완벽
- 주차 : 마당에 10대 가능 연못, 방가로 시설
- 가액 : 6억

010-3700-1893
02)911-9247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수도권 ◎ 위치 : 서울 북한산
◎ 부지 : 150평 ◎ 부지 : 100평 사용
◎ 법당 : 40평 ◎ 인법당 : 약 60평
◎ 요사 : 70평 ◎ 산속, 무허가 건물
◎ 양도가 : 11억 3천 ◎ 양도가 : 5천 5백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 대지 : 254평, 하천부지 330평 총 580평 사용중
- 건물 : 대웅전,산신각,관음전, 공양간, 요사채(방 5개)
- 종무소 2층 건물, 주차장
- 답사 후 절충

010-6514-0405
010-2041-818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함안군 가야읍
- 대지 : 1140평, 주차장
- 건물 : 대웅전30평, 요사채
- 기도방 6칸, 산신각, 스님친견실, 창고, 일주문
- 가액 : 5억 8천만원 (대출 1억)

010-8916-5680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시 중랑구
- 대지 108평, 건평 104평 1층 요사채, 2층 법당 각 52평
- 서울 시내 공원 입구 가족테마공원 개발 서울시 인가득 상태
- 가액 : 시설 포함 14억 5천

010-3124-3952

사찰(토굴)안내
- 위치 :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손맞이길 107
- 사찰건물 : 법당, 방2, 주방, 다용도실, 독채등기필
- 대지 : 도지료1년 35만원
- 넓은마당 및 텃밭200평 사용 (건물은 지상권 등기되어 개인소유임)
- 가액 : 4천 3백만원

010-8525-1959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읍내 거리 5분
- 부지 : 약 1,700평. 가액 : 14억
- 대웅전 1동, 삼성각 1동
-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돌탑 높이 9m30 둘레 13m 돌탑 108개, 요사체 2동 정자각 1동,심야전기보일러 태양광열 설치,대형주차장완비
- 집기일체, 법회 바로 가능

문의 : 033-562-0448

사 찰 안 내
- 위치 : 산청군 삼장면 소재
- 600평 건물 6동
- 법당 53평 그 외 용왕당, 산신각, 요사채
- 가액 : 전화 상담

010-8957-8089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용학로)
- 아파트 밀집지역 시장 입구17년째 운영
- 평수 : 40평, 3층 옥상 사용 사무실, 스님방
- 법당 : 삼존불, 시설 원만, 몸만 오시면 됨
- 전세 1000만원, 월40만원.에어컨 완비
- 시설비 1000만원, 가격 절충 가능

010-7536-258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의령군
- 전원주택형, 요사채 25평 법당 33평 • 총대지 300평
- 정자(3×5m) 원목
- 진주20분 도로 잘되어 있음
- 삼존불, 영단, 신중단, 지장단, 소불(한쪽 벽면)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문의처 010-2607-7114

도심 별장 같은 사찰
- 위치: 시청 5분, 김해공항 10분 거리
- 토지 : 270여평,주차장 완비
- 법당,산신각,종각,용왕당,종무소 주지실, 요사채(방3) 30평
- 돗대산, 주변1500세대 아파트
- 가액 : 평당 280만원 (은행 2억1천 안고)

010-9906-3631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영천 청통 부근 산을끼고 아주 조용한 사찰
- 단청, 주련 현판
- 총평수 465평, 현대식 건물 2동 1층 요사 30평, 14평 2층 30평 법당
- 가액 : 3억 9천만원

011-503-0517

15년 기반 포교원안내
- 위치: 대전 복합터미널 근처 대전역 인접
- 제반시설 : 법당, 주방, 상담실, 방 3개, 60평
- 2층 건물, 옥상 60평 사용
- 초기설비 : 3000만원
- 보증금 1000만,월세50만원

010-3452-112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관이 수려한 고찰로써 수행하기 좋은곳
- 대지 1,800평
- 대웅전, 삼성각 요사채(황토) 창고
- 주차시설 아주 좋음
- 확인 후 절충가능

주지직 010-7918-7328

주택안내(토굴하실분)
- 위치 :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353-20 외
- 대지 약 380평, 전290평
- 전통한옥ㄱ자형, 본채, 별채 (2채 약70평,부속건물포함)
- 준공일 : 2012년 12월
- 가액 : 8억 5천만원 (답사후 절충가능)

010-7449-292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마산 근교
- 임야 4천평, 대지 약1천평 법당 35평, 요사 60평
- 1천 3백년 고목 있고, 산세수려, 교통 편리, 지하약수 천혜의 명당지리
- 가액 : 12억

010-4602-9661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역5번출구에서 5분거리
- 평수 : 2층 상가건물 약30평
- 교통 위치 좋음
- 보증금 1000만원,월50만원 시설비일체 1000만원 (가격절충)

010-8887-9894

임법당 토굴안내
- 위치 : 충북 단양군 소백산 앞 개울끼고 공기 좋은 곳, 조용히 공부하실 스님 원함
- 불기일체,집기일부, 수도,전기,보일러 유
- 벽돌연와 건물 35평, 텃밭, 대형주차 총 평수 714평
- 스님 사정으로 양도. 2억2천

주인직 : 010-4747-3468
낮 12시 이후 4시전 통화가능

펜션 별장 토굴
- 위치 : 경북 북부 지역 일월산 자락에 아담한 곳
- 현대식 목재건물
- 건평 30평, 대지 밭 1천평
- 앞마당 계곡, 법당 부지 있음
- 가액 : 2억 4천만원

010-5424-4969

포교원 안내
- 위치 : 울산. 동울산 시장 옆
- 2층 50평
- 칠보 삼존불, 천수천안, 호신불 617불 등 320등
- 원목3단 수미단,신중단,영단
- 주택,아파트,상가,시장, 인구밀접지역
- 방, 거실, 주방, 화장실, 창고
- 전화주시면 법당 사진 보내드립니다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월60만원 시설비 3,500만원

010-8424-0042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미주상가 건너편
- 마당 22평, 법당 및 사무실40평, 요사채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교통요지, 1호선,중앙선,버스 정류장 앞, 옥상 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3,900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 99만원

010-7409-0490
02)957-0824

토 굴 안 내
- 위치: 신림 IC 15분
- 넓은 주차장에서 바로 산으로 연결
-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환상적인 전망
- 스님 토굴용으로 최적
- 대지 639평, 건평 60평
- 방3, 화장실3, 심야전기, 매우 따듯, 마을 상수도
- 가액 : 4억 2천

010-6399-3379

포교원 안내
- 위치 : 울산시 북구 화봉로
- 2층 : 33평
- 몸만 오시면 법회 가능, 준비 할 것 없음
- 가액 : 전세 3,0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 2,500만원
- 22년 포교중 ※ 불사관계로 (급)

052-287-8526
010-7572-8526

사 찰 안 내
- 위치 : 창원
- 대지 125평중 건평 100평
- 법당 35평, 삼성각, 용왕단, 호신불 650불,인등 1008등
- 방 5개, 화장실 3개
- 아파트 대단지 4만5천세대 부근
- 가액: 3억 5천만원

010-5019-5385

포교당(주택)안내
- 위치 : 대구 수성구 만촌동
- 법당(삼존불)
- 몸만 오시면 법회가능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1천만원

010-2048-4229

사 찰 안 내
- 위치 : 함양군 마천면
- 작은 암자터 계획 관리지역 360평
- 측량, 배수공사 완료, 토목공사 진행중
- 소임자리 관계로 급양도
- 가액 : 상담후 결정

010-4162-2900

도심한복판(산속)사찰안내
- 위치 : 광양 •땅 : 4,450평
- 건물 : 법당,종무소,창고 스님친견실,요사채,소각장, 화장실(실내 및 외부)
- 양도금액 : 7억 9천
- 사찰주변 : 공원녹지이며, 대형주차장, 건설 및 공원 형성중

010-2803-256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요지)
- 부지 : 280평
- 삼존불, 각단탱화, 법당 스님방,공양주방,다용도방,창고! 실내화장실2, 실외화장실2 집기일체, 즉시법회가능
- 가액 : 대출1억 안고 2억

010-8643-5235
010-7475-0474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중구 국제시장, 자갈치시장 입구
- 포교하기 최상 장소
- 평수 : 약 80평
- 가액: 보증금 1,500만원 월세50만원
- 시설비: 협의 결정

※ 불사관계로 급

010-4766-3200

금정산 전통 사찰
- 위치 : 부산외대 뒷산 고찰
- 법당, 산신각, 주지실, 요사채
- 산림도 접, 600여평 점유
- 등산로, 샘물 식수 명당
- 짚차 4WD 올라감
- 가액 : 2억 5천만원

주지 010-3585-0200
010-9906-3631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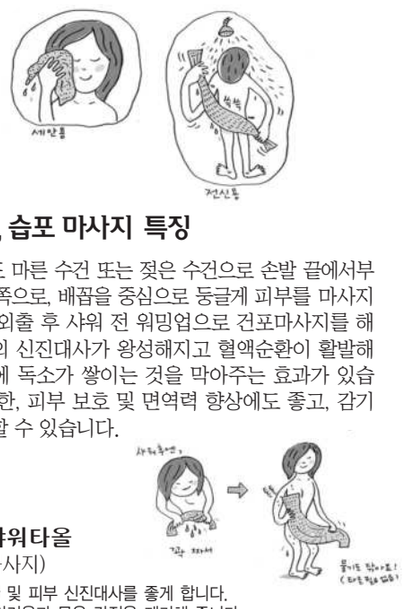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3종 세트
27,000원 (배송비 포함)

법회, 환갑, 돌잔치, 칠순 명절 등 각종 행사용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

현대불교 현불샵 T.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 건포, 습포 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둥글게 피부를 마사지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워밍업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삼베샤워타올
(건포마사지)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묵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지치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환자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값 15,000원

■ 삼베세안타올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행군 후 닦아줍니다.

값 6,000원

■ 삼베수세미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값 4,000원

일본 포교원 안내
- 위치 : 오사카 쯔루하시 재래시장 입구 한국인들 집중 거주지역
- 2017년 건립, 3층 건물 전체사용, 각층20평,법당,신중당,공양간, 접견실,침실,휴식처
- 시설 완벽, 몸만 오시면 됨
- 스님 건강 문제로 급 안내함
- 가액 : 문의 후 상담

010-3545-5060
일본 080-5358-5060
무료 070-8836-5060

사찰, 학원 어린이집 부지
- 위치 :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큰길 옆 산자락
- 5천세대 자이 2차 아파트 단지내 자명요양병원 입구
- 평수 : 256평
- 가액 : 5억

010-3173-5151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장흥군
- 대지 : 220평
- 건물 : 대웅전(50평, 공양간, 종무소 포함), 요사채 2동
- 특이사항 : 법당 바로 법회가능 (불상, 불단, 냉방시설완비)
- 가액 : 9천 5백만원

전화 : 010-6241-8499
(사시기도, 오후 통화가능)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 남구 대명동
- 단독 주택 약 50평
- 법당, 방3, 화장실2
- 법당(아미타 삼존불), 청동불(3자)
- 보증금 1천 500만원, 월 30만
- 시설비 : 청동불 인수 포함 2천만원

010-9735-8032

사찰 터 기도원 안내
- 위치 : 경산 용성면 용천리
- 임야 : 12,000평
- 수목 : 소나무, 참나무 진달래 약초, 고사리 참옻나무
- 작은 연못도 있으며 산정상으로 등산로 탐방길 되어 있습니다

010-4953-1728

조그마한 빈 암자나
빈 농가주택(초가집)이라도
좋습니다.
월세도 괜찮습니다.

010-6402-4997

몰입도 높은 CG법회, 신세대 '인기몰이'

프로젝션 빔 활용해 법회 여는 日사찰 눈길

박영빈 객원기자

엄숙한 분위기로 일반인들이 쉽게 발을 들이기 힘든 이미지를 가진 사찰 법당. 무거운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컴퓨터 그래픽(CG)과 프로젝션 빔을 사용한 법회를 여는 사찰이 있어 화제다.

'산케이 뉴스'는 7월 16일 프로젝션 빔으로 극락과 지옥을 표현한 법회를 보도했다.

도쿄 중심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한 사찰 마치야 코묘지. 현대식 건물로 지어진 법당 불단엔 아미타불상이 모셔진 평범한 모습이지만 매월 1회 '프로젝션 맵핑법회'를 봉행한다. 프로젝션 맵핑이랑 건물의 벽면 등에 영상을 비춰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술이다. 법당의 벽과 마루를 활용해 스크린에 표현되는 프로젝션 맵핑의 스토리는 '지옥과 극락정토'다.

먼저 보여주는 영상을 통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인생의 흐름을 나타낸다. 배경음악으로는 시원한 바람소리와 산새소리, 영상도 꽃과 나무가 가득한 희망찬 이미지다. 그러나 까마귀 떼가 화면을 가르고 순식간에 화염이 타오르는 지옥 이미지가 나타난다.

프로젝션은 바닥으로 끌려 들어가는 이미지를 비추고 배경음악도 아비규환의 비명소리와 함께 무시무시한 광경들이 펼쳐진다. 이러한 지옥을 진정시키듯, 법당 한 편으로 스님이 걸어 나온다. 프로젝션 빔은 스님을 따라 밝은 빛을 비추고 불단 앞에 앉은 스님이 염불을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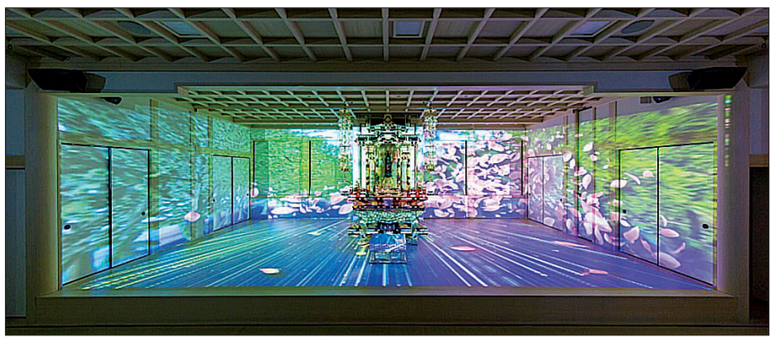
스님의 염불에 따라 지옥의 불이 서서히 식고, 고통 받던 영가들의 비명도 줄어든다. 스님의 독경이 끝날 무렵, 불단에 모셔진 아미타불로부터 오색광명이

매월 '프로젝션 맵핑법회' 여는
일본사찰 마치야 코묘지 입소문
주제 바꾸며 다양한 영상 선봬
40대 미만 법회 참가자 늘어나

뿜어져 나온다. 법당의 벽과 바닥에도 꽃잎과 금빛 모래가 일렁이는 극락의 이미지가 펼쳐진다.

약 10분간 진행되는 프로젝션 맵핑법회는 참석자들로 하여금 일순간 이곳이 절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할 정도로 집중도가 높다고 한다.

주지인 오호라 타츠노리(49) 스님은 최신 디지털 기술을 법회에 도입하게 된 계기에 대해 "원래 사찰은 그 시대의 문화와 학문을 선도하는 장소다. 그렇다면 최신 디지털 기술과 무대공연과 같은 요소를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법회야말로 본래 사찰의 모습"이라고 밝혔다.



프로젝션 맵핑으로 표현한 극락정토. 입체적인 영상이 법회 참가자들의 몰입도를 높인다.

사진출처=산케이 뉴스

오호라 스님은 CG와 프로젝션 맵핑이라는 디지털 기술에, 원래의 스님들이 진행하는 법회라는 아날로그적 감성을 합친 결과가 지금의 법회라고 말했다. 실제 법회에서 영상만을 틀어주기보다는 등장인물로 스님들이 실제 등장하고, 염불과 같은 의례를 공연요소로 적용하였기에 참가자들이 더욱 집중한다는 것이다.

또 법회를 마치고 나서는 참가자들에게 연꽃잎모양으로 만든 작은 책갈피와 참배증서를 수여한다. 책갈피에는 봉황이나 춤을 추는 천인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어 젊은 여성들에게 인기라고 한다. 이를 통해 단순히 영상을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닌 실제 불교를 체험했다는 인식을 참가자들에게 심어주는 것이다.

오호라 스님은 "현대인들에게 당장 법문이나 부처님 가르침에 관심을 가지라고 강요하기보다 먼저 영상과 음악으로 부처님의 세계를 느끼고 관심 가지게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법회의 프로젝션 영상은 그때의 절기에 따라 변화를 준다. 스님은 "지금은 백중기간이기에 젊은 층이 잘 모르는 백중의 이야기와 다음 생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극락 지옥을 선택했다. 다음 달에는 부처님의 출가 전 이야기를 주제로 법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법회가 입소문을 타면서 젊은 층의 참가자들이 대폭 늘어났다. 실제 프로젝션 맵핑법회에 참석하는 이들의 절반 가까이가 40대 미만이어서 일반적인 법회 참가연령대와 비교할 때 매우 젊은 편에 속한다. 참가자들은 "불교에 흥미가 생겼다" "절에서 최첨단 기술을 보게 될 줄 몰랐다. 너무나 신선하다" 등의 후기를 남겼다.

불교지도자 까르마빠, 미국 망명설 점화

美 전법활동 이후 인도 재입국 불가능 추측 따라

달라이라마에 이어 중요한 불교지도자인 17대 까르마빠 오갠 틴레 도르제(33)가 미국으로 전법활동을 떠난 후 인도 재입국이 불가하게 되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 7월 16일 현지 언론 '더 트리뷴 인디아'는 이 문제를 보도하며 다양한 추측을 제시했다.

까르마빠는 지난해 5월 제자들의 요청에 따라 유럽과 북미지방 전법을 위해 인도를 출국한 이래 지금까지 인도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미국 망명설이 고개를 들고 있다. 까르마빠 측은 수개월 전에 이에 대해 공식 사이트를 통해 "치료와 휴식을 위해 머물고 있을 뿐 망명설은 사실이 아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6월까지 귀국 의사를 밝힌 까르마빠가 시간을 넘기면서 다시 망명설이 나오고 있다.

'더 트리뷴 인디아'는 까르마빠의 미국 망명 또는 무기한 현지체류의 가능성을 히마찰프라데시 주 경찰 및 정보기관 관계자의 말을 빌려 제시했다.

지난 2000년에 1월, 종교의 자유를 찾아 티베트에서 인도로 망명한 까르마빠는 전통적인 주석사원인 시킴주의 룸텍 사원으로 가길 요구했으나 인도 당국은 이를 거부했다. 인도 당국은 까르마빠 환생자 논쟁, 중국 스파이설, 중국 정부와의 관계 등의 이유로 17대 까르마빠의 외부 활동에 제약을 걸었다.

'더 트리뷴 인디아'는 정보부 요원의



미국법회에서 기도 중인 17대 까르마빠 '오갠 틴레 도르제'. 사진출처=Karmapa U.S.

말을 인용해 "까르마빠는 미국에서 더 자유로운 활동을 하고 있으며, 대중 접견에서도 큰 제약을 받고 있지 않다. 심지어 중국대륙에서 온 인사들까지 자유롭게 만나고 있다"며 "까르마빠 스스로가 미국 생활에 만족하는 것 아니겠는가"라는 추측성 발언을 제시했다.

일부 소식통들에 의하면 "인도당국이 까르마빠에게 제공된 보시금에 대해 불법모금 혐의를 걸고 있다"며 "금전적인 문제도 한 몫 하는 게 아니겠냐"는 추측도 제시되고 있다. 현재 인도당국은 외국 재단이 직접적으로 까르마빠에게 보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까르마빠 공식 사무국과 티베트 망명정부에서는 아직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까르마빠의 현 거처인 규뙤사원의 소식통은 "까르마빠의 일정과 여러 상황을 보았을 때, 올해 귀국은 무리로 보인다. 단 귀국이 늦어지면서 현지 티베트인들이 동요하고 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태국 동굴 소년들, 단기 출가… 구조대 추모

기독교도 제외한 12명
삭발후 9일간 승려체험

태국 치앙라이에서 동굴에 갇혔다가 17일 만에 극적 구조된 소년들이 단기 출가했다. 이들은 동굴에 갇혀 있는 동안 불교 명상을 통해 굶주림과 공포를 이겨냈다고 전해져 화제 된 바 있다.

방콕포스트 등 외신은 '동굴 소년'들이 7월 24일(현지시간)부터 9일 간 승려로 생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9일'은 이들이 수색대에 발견되기 전 동굴에 갇힌 시간과 같다고 더가디언은 설명했다.

13명 생환자 중 유일한 기독교도인 아둔 삼온을 제외한 나머지 12명은 8월 4일까지 승려 생활을 한다. 아둔 삼온은 자신의 종교에 따라 머물던 교회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진다.



동굴 소년들은 지난 24일 삭발한 후 왓 프라 탓 도이 와오 사원에서 불교 귀의 의식을 치렀다.

사진출처=더가디언

동굴 소년들은 지난 24일 삭발한 후 왓 프라 탓 도이 와오 사원에서 불교 귀의 의식을 치렀다. 이들은 흰색 예복을 입고 엄숙한 의식에 임했다. 승려들은 염불로써 그들의 생환을 축복했다.

치앙라이 지역 불교계 지도자 쁘라푼 콤조이는 "12명 유소년 축구팀 선수 및 코치는 각자 다른 사원에 들어가 9일간 머무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소년들은 의식을 통해 '넨'이라 불리는 불교 초심자 단계에 올랐다.

불교도가 대다수인 태국에서 남성의 단기 출가는 전통 의례와 같다. 의식에 참여하는 남성들은 법명(法名)을 받고 계율에 따라 생활하며 명상 수련도 한다.

하지만 이들의 단기 출가는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수색 작업 중 희생당한 태국 해군 사만 쿠난(37)을 추모하는 의미인 것. 태국이 속한 '테라와다(Theravada)' 불교권에서 승려가 되는 것은 한 인간이 타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영광 중 하나다. 소년들은 퇴원 후 그를 추모하기 위해 불교 사원을 방문하기도 했다.

한편 태국 정부는 소년들에 대한 인터뷰를 금지했다. 소년들은 일주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지지만, 트라우마 등 정신적 고통이 예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무 빠'(야생 멧돼지) 유소년 축구클럽 소속 선수들과 코치 13명은 지난 6월 23일 훈련을 마치고 매사이 지구 탐루엉 동굴에 들어갔다가 갇혔다. 폭우로 인한 수심 증가가 원인이었다. 이들은 실종된 후 열흘 만에 생존이 확인됐고 17일 만에 모두 생환했다. 소년들은 동굴에 갇힌 동안 과거 승려 생활 경험이 있는 엑까뽄 찬따웡(25) 코치 지도에 따라 불교 명상을 했다고 전해졌다.

박정현 객원기자

中, 티베트 학생들 종교활동 전면 금지

티베트 제재조치 분석… 동의서 서명까지 받아

중국 정부가 티베트 학생들의 종교활동을 전면 금지했다.

7월 24일(현지시간) 중국 신화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티베트 학생들은 오는 여름 방학 동안 종교활동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중국 당국이 전통적으로 불교도인 티베트 학생들에게 '종교 활동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한 것.

해당 정책은 중국이 티베트 불교문화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외신들은 인도에 망명 중인 티베트 영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함으로 보고 있다.

티베트 수도 라싸 지역 한 중학교의 정치 교육 부서장 초펠(Choephel)은 "부모와 교사의 지도 하에 학생들이 중국 정부의 방침을 준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힌두스탄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티베트 학생들은 중국 정부로부터 오는 여름방학 동안 종교활동이 금지됐다.

사진출처=홍콩스탠다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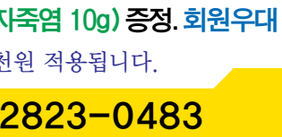
초펠이 근무 중인 해당 부서는 전화번호도 없고, 외부로부터 엄격히 제한돼 있다.

중국은 티베트가 7세기 이상 중국 영토의 일부분이었으며, 달라이 라마를 당국에 위험한 분리주의자로 보고 있다. 반면 티베트인들은 1950년 중국 공산당의 인민군이 히말라야 지역으로 진격하기 전 본질적으로 독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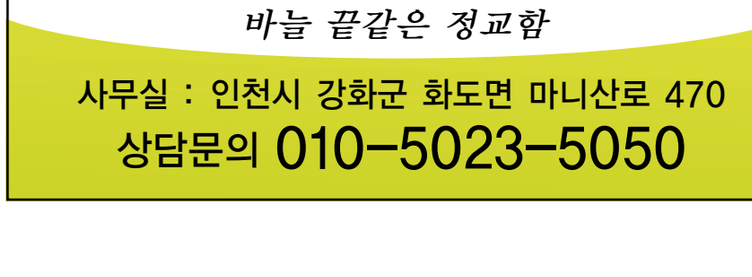
박정현 객원기자

사찰신도관리프로그램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동종업계 최저 가격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월사용료 : 기본 19,800원
설치비 없음, 세팅비 전액무료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연등표 출력 인등표 출력 위패 출력
문자발송 기부금 영수증 사주팔자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NAVER 지엠소프트
대표전화 070-7633-2525 / 010-8588-2525
상담문의 : 평일 09:30 ~ 17:3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http://www.gmst.co.kr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올라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가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국내최초
한국스틸 고건축
특허 제10-1767202호
사 대웅전 | 스틸한옥
업 일주문 | 가든
부 건축 및 조형물

목재대비 유사도 90% 이상 저렴한 비용!
바늘 끝같은 정교함
사무실 :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마니산로 470
상담문의 010-5023-5050

아무것도 남기지 않기

아잔 브람

〈3〉 고요한 숨 (호흡수행 5~8단계)

수행은 인내 아닌 즐거움이다



지난 강의에서 설명했듯 호흡 수행의 제3단계는 호흡의 처음부터 끝까지 아는 단계였고 제4단계는 호흡이 고요해지도록 놓아두는 단계였습니다.

호흡이 고요해지도록 그대로 놓아두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고요해지도록 놓아두면 정지하고, 정지한 것은 사라집니다. 이 과정이 삼매 수행입니다.

또한 호흡이 고요해지면 마음챙김이 계발됩니다. 그리고 마음챙김의 힘이 강해지면 저절로 기쁨과 행복감이 일어납니다. 이 과정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기쁨과 행복감을 일으키려고 애쓰지 않고 전체 과정을 있는 그대로 놓아두게 될 것입니다.

마음챙김이 강해져 저절로 기쁨이 일어나는 과정을 알기 위해서는 마음의 특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경전에서도 지나가면서 슬쩍 언급되기는 하는데 분명히 설명되지는 않았습니다.

마음에는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한 부분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부분입니다. 들리는 소리를 그저 듣고, 보이는 것을 그저 보고, 떠오르는 생각을 그저 알아차리는 마음의 수동적인 부분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아는 자(knower)'라고 부릅니다.

다른 한 부분은 경험에 반응하는 부분입니다. 대상을 명칭으로 개념화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하고 외부에 반응하는 마음의 능동적인 부분을 저는 '행위 하는 자(doer)'라고 부릅니다.

일상생활에서 '행위 하는 자'가 마음의 에너지를 대부분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는 자', 마음챙김으로 흘러 들어갈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정신적인 피로를 느낍니다. 하지만 수행 중에 수행자는 결정하고 반응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래서 '행위 하는 자' 쪽으로 에너지가 흘러들지 않게 되어 소모되는 에너지가 적어집니다. 따라서 남는 에너지가 '아는 자' 쪽으로 흘러듭니다.

생각하고 걱정하고 계획하면 마음챙김에 갈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행위를 하지 않아야 '아는 자' 쪽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는 에너지의 여유가 생깁니다. 에너지를 마음챙김 쪽으로 펌프질해주어서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셈입니다.

호흡 수행을 포함하여 수행이라는 것은 행위를 단순화시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행위가 줄어들면 마음챙김에 에너지가 흘러들고 마음챙김의 힘은 점점 더 강해집니다.

손전등을 들고 어둠 속을 걷는데 손전등의 건전지가 약하다면 밝게 비추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발 앞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전지가 강한 손전등으로 비추면 어둠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건전지가 약한 손전등은 마음챙김에 힘이 없는 상태와 같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이 많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에너지가 강해져야 마음이 깨어나 더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알게 됩니다.

〈앙굿따라 니까야〉의 '아누룻다 경'에서 부처님은 마음챙김이 자리 잡고 삼매를 갖추는 등의 여덟 가지 특성을 갖춘 수행자는 단순한 탁발 음식도 최고급 음식처럼 맛있게 느끼고 소박한 거처도 화려한 저택처럼 만족해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더 즐겁고 행복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마음의 힘이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마음챙김의 힘이 강해진 호흡 수행의 5~6단계에서 기쁨과 행복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쁨과 행복감은 마음챙김의 힘이 강해지면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이며 동시에 마음의 힘이 강해졌다는 표시입니다. 강화된 마음의 힘을 기쁨과 행복감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행위를 멈추었을 때 일어나는 에너지는 자연스러운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는 마음의 수동적인 부분인 '아는 자', 마음챙김으로 흘러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비로소 잠에서 깨어납니다.

수행의 즐거움

이 단계가 주는 또 하나의 장점은 더 이상 호흡을 알아차리기 위해 억지로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호흡이 즐거워진다면 마음챙김이 호흡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게 됩니다. 약속이 있거나 다른 할 일이 있어도 계속 호흡을 보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디가 니까야〉의 '정신경'에는 외도 수행자들이 '불교도는 명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며 지낸다'고 비난하거든 '그렇다'고 긍정하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상의 즐거움을 추구한 결과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으면 '그 결과는 예류자, 일래자, 불환자, 아라한'이라고 대답하라고 합니다. 그 네 가지는 우리가 성취해야 할 깨달음의 단계입니다. 수행의 행복감을 추구하며 지내면 우리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행의 행복감을 추구하는 것은 수행자가 하기로 되어 있는 바람직한 일인 것입니다.

고요하게 놓아두면 정지하고
정지하면 결국 사라지는 호흡
수행하면서 느끼는 행복감은
치과 치료 아닌 휴일 여행이다

감각적인 즐거움보다 훨씬 더 큰 행복이 바로 수행의 즐거움입니다. 수행의 즐거움은 수행자에게 허용된 특권입니다. 따라서 수행 중에 기쁨이 일어난다면 즐겨야 합니다. 기쁨을 만끽하세요.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기쁨을 없애려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어떤 수행 지도자가 수행 중에 일어나는 기쁨과 행복감을 조심하라고 말하고 수행의 행복감에 집착하지 말라고 한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고마양', 어리석은 헛소리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수행은 치과 치료 같은 것이 아니라 휴일에 놀러가는 것과 같습니다. 수행에서 기쁨을 느끼는 수행자는 수행을 좋아하고 수행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명상 수련회를 예약하면 수련회가 시작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게 됩니다. 호흡 수행의 5~6단계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또한 수행자는 힘들이지 않고 오랜 시간 수행하게 됩니다. 몇 시간씩 앉아서 수행하는 것은 인내의 힘이 아닙니다. 수행에서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호흡에 대한 인식이 사라지는 순간

저는 〈청정도론〉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한 적은 없습니다. 그저 여기저기 뒤적거리며 보았습니다. 그렇게 보다가 아름다운 비유를 하나 찾았습니다. 호흡 수행을 톱질에 비유한 것입니다.

톱질을 시작할 때 목수는 자르는 나무토막, 톱의 끝, 톱의 손잡이, 톱날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톱질을 하다 보면 목수는 나무토막도, 톱의 끝도, 손잡이도, 톱날도 보지 않고 오로지 톱날과 나무가 닿는 부분만 보게 됩니다. 나무토막에 닿는 톱날이 톱의 어느 부분인지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수행이 진전함에 따라 대상이 단순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저는 이 비유에 동의합니다. 호흡 수행의 어느 단계부터는 더 이상 호흡의 시작, 중간, 삼 분의 이, 끝 부분을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톱질하는 사람에게 각각의 톱날이 모두 동등하게 여겨지는 것과 같습니다. 호흡 수행에서도 호흡의 각 부분이 모두 동등하게 여겨집니다. 이것은 호흡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호흡이 평안해지고 마음챙김의 대상이 한결같게 됩니다. 이 단계가 마음의 작용을 경험하고 편안히 하는 호흡 수행 7~8단계입니다.

호흡이 평안해지면 호흡에서 변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호흡에 대한 인식이 사라집니다. 호흡 수행의 모든 단계가 계속 호흡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호흡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디가 니까야〉의 '사문과경'에서 아자따삿뚜 왕이 부처님을 만나러 웰루와나(죽림정사)로 가면서 코끼리를 타고 갈 수 있는 곳까지는 코끼리를 타고 가고, 그 후에는 코끼리에서 내려서 신발을 신고 갈 수 있는 곳까지는 신발을 신고 가고, 그 다음 신발을 벗고 마지막에는 맨발로 다가가 부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호흡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흡은 여기까지 수행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호흡은 자신의 일을 마치고 사라집니다. 호흡이 사라지는 단계가 호흡 수행의 제9단계입니다. 호흡이 사라지면 많은 수행자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수행의 대상이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호흡은 더 이상 수행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호흡이 사라졌을 때 마음에 나타나는 아름다운 빛, 니밋따가 수행의 대상입니다.

계율은 마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좋지 않은 일을 하거나 다른 사람과 말다툼을 하거나 계율을 어긴 경우 니밋따가 일어났을 때 자신이 한 일을 곧 알게 됩니다. 계율을 어긴 것을 남들에게는 속일 수 있지만 자신의 마음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선하고 계율을 잘 지키고 너그러운 사람이라면 니밋따가 매우 밝게 나타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처음 니밋따가 나타났을 때 이미 아름답고 밝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계율을 잘 지키며 생활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계율이 그다지 썩 좋지 않아 니밋따가 밝지 않은 경우에도 니밋따를 계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니밋따의 깨끗하고 밝은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가장 아름다운 부분을 '줌인(zoom in)'하듯이 확대하십시오. 확대해서 보고 그렇게 확대해서 본 부분 중 다시 가장 아름다운 부분을 또 확대해서 보십시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마음,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결점을 찾는 마음은 자신과 주위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또한 수행까지 방해합니다. 니밋따가 나타나는 것을 방해하고, 니밋따가 계발되는 것을 방해하고, 결국 선정에 이르는 것을 방해합니다. 세상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수련회 기간에도 말을 합니다. 밤에는 개들이 짖어댑니다. 그것이 개가 하는 일입니다. 평소의 생활에서 자신과 주위 사람에게서 가장 좋은 부분을 보는 수행을 한다면 저절로 니밋따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에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이 글은 아잔 브람의 위빠사나 명상 강의 〈아무것도 남기지 않기〉(불광출판사)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청소년 심신수양을 위한 템플스테이
제 53회
골굴사 청소년 화랑수련회 여름캠프

원효스님의 열반 성지! 신라 화랑들의 기상이 담긴 선무도 총본산 골굴사에서
청소년들의 인성교육과 심신수련을 위한 **제 53회 화랑수련회 여름캠프**를 개최합니다.
21세기 새로운 리더로서의 자질을 기를 수 있는 신화랑 캠프! 자연속에서 공동체 수행생활을 체험하며,
호연지기를 기르고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청소년 화랑수련회와 함께 하세요.



■ 언 제 : **2018년 7월 29일 ~ 2018년 8월 18일 (3주간)**
■ 모집인원 :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1주간 참가인원을 60명으로 제한합니다.
매주 일요일 15시까지 입교, 토요일 12시 퇴교
■ 대 상 : 초등학생 ~ 중학생 (고교생은 평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으로 참가)
■ 수련회비 : **1주 - 35만원 · 2주 - 70만원 · 3주 - 90만원**
(교재비 포함이며 수련비를 입금하셔야 예약이 확정됩니다.)
국민은행 823301-01-476572 (예금주 : 대한불교조계종 골굴사)
■ 준 비 물 : 세면도구 · 수건 · 필기도구 · 양말 · 운동복 · 운동화 등
(현금, 휴대폰, MP3 휴대 금지)
■ 예약 및 문의 : **TEL 054-775-1689 / 054-744-1689** 홈페이지 www.sunmudo.com

- **기본 프로그램** 선무도, 승마, 국궁, 다도, 민요, 불교강의, 108배
- **부모님께 효도마사지 실습 및 예절교육**
- **매주 색다른 경주문화유산 탐방 :** 감은사지, 문무대왕릉, 기림사, 경주국립박물관 양남 주상절리길 및 감포깍지길 탐방
- **자아성찰 :** 힐링 명상, 요가, 자자회



일 과 표 〈일과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간	내 용	시간	내 용
5:00	기상	13:00	독서와 사색
5:30	새벽 예불 / 좌선 / 걷기명상	14:00	요일에 따라 선무도, 승마, 국궁, 다도, 민요, 효도마사지, 예절교육, 호신술, 트래킹
6:20	아침 공양 (주1회 발우공양)	16:30	울력 (도량 청소 및 정리)
9:00	원어민 영어 수업/불교 강의	17:10	저녁 공양
10:00	선무도 수련과 힐링 명상	18:30	저녁 예불
11:00	108배	19:00	자아성찰 및 참회록 쓰기, 방학 숙제하기
11:40	점심 공양	21:00	취침

1500년 전통사찰 · 외국인 7천명 이상이 참여하는 템플스테이 도량!!
대한불교조계종 골굴사
선 무 도 화 랑 학 교
본 프로그램은 종교를 초월한 청소년 인성교육을 목표로 합니다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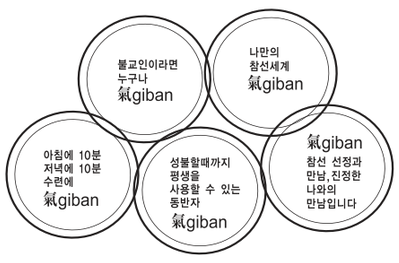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www.hyunbulshop.com



대행 스님

배울 때는 자기 내면세계에 주인공 안테나를 세워 놓아야

무엇을 세워서 공부해야 하는지요

질문 공이 색이고 색이 공인 그 가운데에서, 세상이 본래 공하고 공한 그 가운데에서 무엇을 세워서 공부해 나가야 하는지요. 그리고 본래자성불이라고 하셨는데 또다시 무엇을 닦아 나가야 하는지요.

답변 그러니 제일 조건은 뭐냐. 내 주인공의 안테나. '주인'이라는 건 축을 말하고 '공'이라는 것은 프로펠러와 같이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루 24시간 살아나가시는 데에 고정관념과 고정된 행과 고정된 말과, 고정되게 듣는 거와 고정되게 만나는 거와 고정되게 가고 오는 거와 고정되게 먹는 거…, 그렇게 고정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정된 것이 있다고 본다면 그렇다고 말씀하십시오. 모든 게 고정됨이 없습니다. 왜 공이 색이고 색이 공이라고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루 온종일 그렇게 놓고 가면서도, 고정됨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공했다는 걸 알면서도 여러분은 '그것이 도대체 뭐길래 주인공이라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주인이자 공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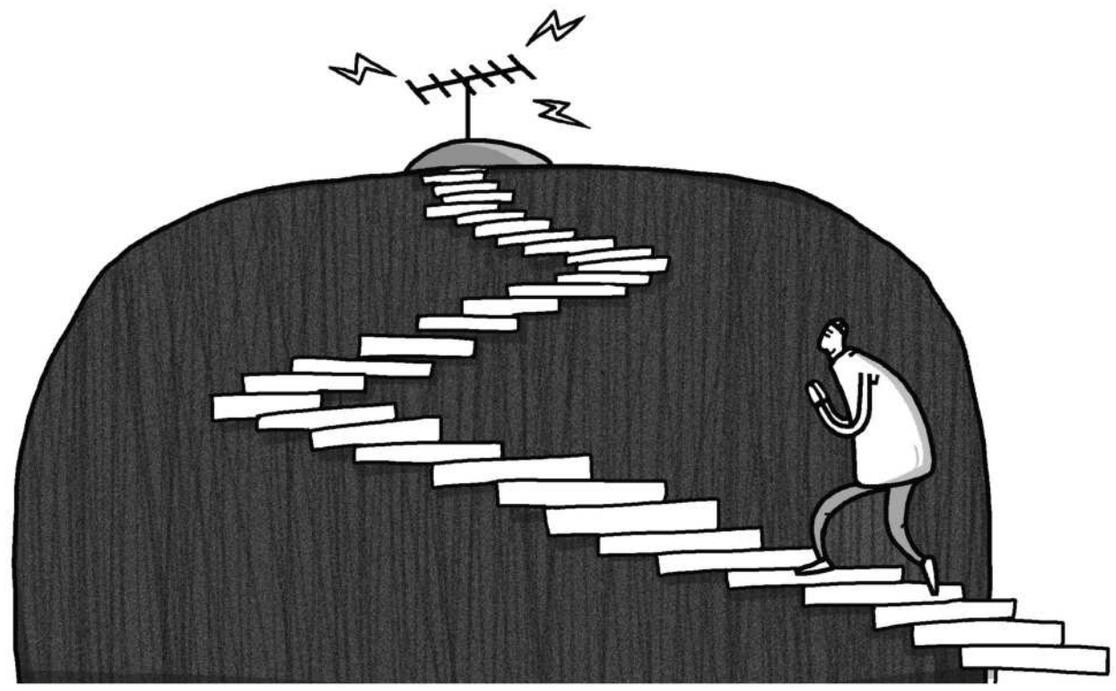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래서 예전에 혜능 선사가 이런 말을 했죠? 오조 홍인 선사가 밤중에, 삼경에 들어오라고 그래서, 들어오라는 말이나 했나요? 주장자를 탕 탕 탕 세 번 쳤었죠. 그러니까 벌써 알고서 삼경에 들어갔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얘깁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금강경』을 강설하시는데 육조 스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죠. 네 가지 조건 말입니다. '본래자성불이 청정함을 어떻게 알았으리까.' 이런 말이요. 이 중에 청정이라는 자체는, 바다가 깊어서 모든 물이 바닷물로 다 모이는 거. 더러운 거 깨끗한 거, 구정물 깨끗한 물 뭐, 고름물 핏물 다 한데 합쳐서 거기에 모이는 거. 모이는 그것도 아니라고 해서 젖는 거. 허허, 똥물에도 젖고 핏물에도 젖지 않습니까? 그걸 청정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어찌 본래자성불이 청정함을 알았으리까. 본래자성불이 생멸이 없는 줄 어찌 알았으리까. 본래자성불이 일체 갖추어 가지고 있는 줄 어찌 알았으리까. 본래자성불이 움죽거림이 없이 들이고 내는 줄 어찌 알았으리까.' 이 네 가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고정관념도 없고 어떤 것도 없이 여러분은 그대로 본래 자성, 바로 신이며 본래자성불입니다. 여러분은 본래자성불인데 그 본래자성불 가운데에 바로 중생들이 수없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다. 여자 남자가 둘이 아니요, 동서가 둘이 아니요, 세상이 전부 둘이 아니다."라고 한 겁니다. 그 뜻을 아신다면 내 몸속에 있는 중생들의 마음을 한마음으로 돌리면서, 깔보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아상 부리지 말고, 살생을 일부러 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실천해 가십시오. 그러면 이런 계율들을 일부러 지키려고 하지 않아도 그 지혜롭고 자비스러운 마음으로써, 안에서나 바깥에서나 회사에서나 사회에서나 위로는 충성을 다하고 아래로는 통솔력이 있어서 잘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손을 쩍 벌려서 다 안아 줄 수 있는 지혜와 자비를 가져야만이 우리 이 마음이, 요 지금 마음속에 있는 중생들이 다 회전을 해 줍니다. 그러면서 '아, 당신이시여! 당신도 나고 나도 당신이라니 얼마나 좋은가?' 하면서 화목하게, 즉 말하자면 파워를 일으키지 않고 회전을 해 줄 때에 내 몸도 건강하게 되고, 건강한 몸을 가졌으니 마음도 건강해져서 일하는 것도 능률이 나고 가정에서도 화목하고 사랑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또 능력이 있어서 위로는, 부모 조상들한테는 묵은 빚을 갚을 수 있고 아래로는 햇빛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에 비로소 원심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심력은…, 보는 것만도 도가 아니고 남의 속을 아는 것도 도가 아니고, 과거의 일을 잘 아는 것도 도가 아니고 오고 가는 것이 없이 오고 가는 것도 도가 아닙니다. 그 오신통도 놓고 나와야 바로 원통력을 굴릴 수 있다 이 겁니다. 바깥으로 나오지 않으면 굴릴 수가 없어요!

불법이라는 거대하고 광대무변한 우리의 이 마음 하나가 수억을 죽이려 해도 죽일 수 있고 수억을 살리려 해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의 도법이, 바로 중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한테 다 주어져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생각을 잘하셔서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배울 때는 자기 내면세계에 주인공 안테나를 탁 세워 놓고 '보고 듣고 하는 오신통이 모두 여기에 관련이 되어 있구나!' 하는 거를 아셔야 합니다. 이 안테나를 세우지 않으면 세균이나 유전성이나 영계가 들어와서 내 집이 빈집인 줄 알고 맘대로 왕래를 합니다. 그러나 주인공의 안테나는 바로 자동적으로 버릴 건 버리고 들일 건 들이게끔 해서 내 몸과 내 가정과 사회를 튼튼히 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안테나라고 표현하는 것은, 지금 현시대를 잘 내다보십시오. 텔레비전이나 전화나 모든 게 안테나를 세우지 않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몸뚱이가 나왔으면 칼을 뺀 거와 같습니다. 그냥 갈 수는 없죠?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와서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거를 모르고 그냥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본마저도 공해서 없다 하셨는데

질문 큰스님께서는 내 안에 근본이 분명히 있으니 그 근본을 놓치지 말라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법문에서는 근본마저도 공해서 없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저의 사량으로는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변 "자식의 묘지가 있고 아비의 묘지가 있는데 이 아비의 묘지에서 아들로 가면 아들로 하나가 되고 아들의 묘지에서 아들이 아버지한테로 가면 아버지로 하나가 되느니라." 언젠가 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이게 왜냐. 내가 육신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을 하게 되면 자식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랬다가 한순간 '아, 이게 주인공을 놓쳤구나.' 이럴 때는 벌써 아버지로 한데 합쳐지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 마음이, 이 마음 근본이 바로 중간에서 매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공했고 부동한 그 근본도 공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건 움죽거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도 허수아비고 이것도 말하자면 뿌리 없는 기둥처럼 하늘을 받치고 있는 그 근본이란 얘깁니다. 그러니까 무한의 능력을 가진 바다와 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 이 선장이 지금 문제입니다. 선장이 어떻게 육신을, 차를 끌고 다니며 기름을 어떻게 넣어 가지고 어떻게 끌어야 올바로 끌고 다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올바로 알려면 무조건 이유를 붙이지 말고, 꼬리를 붙이지 말고…. 아, 내가 공한 이치는 아시겠죠? 내가 왜 공했다는지. 없어서 공한 게 아니라 너무 빠르게 돌아가니까, 어떤 거 할 때 나라고 세울 수 없으니까 공했죠. 그래 부처님께서 "사대와 오온이 공한 줄 알면 그대로 여여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모든 거를 놓고 갔을 때 비로소 들이고 내고 하는 것이…,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댁의 것들이 아니에요. 댁의 주인 거지 이 육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관리하는 관리인이에요. 차도 운전수에 달려 있는 거지 꼬라박든 뭐, 좋은 데 아스팔트로 끌고 가든, 또 잘못해서 부딪치든 그 운전수에 달렸지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또 딴 차가 와서 받아도 아, 그 운전수에 달렸지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그러니까 그 차가 있기 때문에 또 그 차가 받은 거지 그 차가 없다면 왜 받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차를 끌고 다닐 때에 올바로 차를 끌고 다닌다면 기름도 올바로 자꾸 넣어 가면서 끌고 다닐 텐데, 그 도리를 모르기 때문에 올바로 끌고 다니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누구에게 항거합니까. "차가 지금 꼬라박혔으니 이걸 어떡하겠습니까." 하고 누구더러 물어봅니까? 운전수가 그렇게 했는데 운전수가 그걸 또 물어봐요.

그리고 여러분,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란 말을 많이 듣죠? 지금 밥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밥 먹죠? 내가 밥 한 그릇을 놓고 먹을 때에 '주인공!' 하면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우주 전체, 일체 제불, 일체 보살, 일체 중

☞ A18면으로 계속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CD

위없는 법열(法悅)
환희심 가득 찬 향기로운 연꽃으로 거듭 피어나길
맑은 향 사르오며 두 손 모읍니다.

詩人 김하리 합장

판매가 : ~~10만원~~ ➡ 5만원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 CD

CD01-제1. 서품(39:25)
CD02-제2. 방편품(46:51)
CD03-제3. 비유품(54:48)
CD04-제4. 신해품(30:24)
제5. 약초유품(16:08)
제6. 수기품(17:13)
CD05-제7. 화성유품(51:41)
제8. 오색제자수기품(21:11)
CD06-제9. 수학무학인기품(11:22)
제10. 법사품(18:39)
제11. 견보탑품(22:19)
제12. 제바달다품(15:54)
CD07-제13. 권지품(10:07)
제14. 안락행품(27:27)
제15. 종지용출품(21:13)
CD08-제16. 여래수량품(21:15)
제17. 분별공덕품(23:31)
제18. 수희공덕품(13:23)
CD09-제19. 법사공덕품(24:17)
제20. 상불경보살품(13:15)
제21. 여래신력품(08:59)
제22. 촉루품(04:36)
제23. 약왕보살본사품(23:10)
CD10-제24. 묘음보살품(16:12)
제25. 관세음보살보문품(19:26)
제26. 다라니품(10:07)
제27. 묘장엄왕본사품(14:46)
제28. 보현보살권발품(14:07)

구입문의
02)2004-8216
현대불교 현불샵

나와 세상이 다 공했으니 포함해서 공한 주인공에 놓으라

☞ A17면에서 계속

생이 전체 한마음으로 들어서 주인공이거든요. 주인이자 공했다 이겁니다. 일체 모두가 전부 공했는데 바로 그 공한 게 둘이 아니어서 내 주인공에 그냥 전체가 직결돼 있어요. 이 우주 전체 삼라대천세계의 근본마저도 없기 때문에 내 근본에 직결돼 있는 이 자체가 바로 한마음 주인공이에요, 그냥.

여러분! '대(對)가 없다, 근본도 없다' 이런 얘기를 지금 비유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아버지라는 분이 대들보이자 근본이라고 합시다. 근데 그 아버지라는 분은 모두를 먹여 살리고 심부름하느라고 열났지, 근본은 근본이라도 근본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버지는 아버진데, 이름은 아버진데 그냥 전부의 심부름꾼이에요, 똥 친 막대기처럼. 그래서 대가 없는 게 부처다 이겁니다. 가정에 충실하게 남편 노릇을 하고 자식 노릇을 하고, 또는 아버지 노릇을 하고 형님 노릇을 할 수 있는 사람, 또 바깥에 나가서도 질서를 문란치 않게 하고 시간과 도의와 의리를 지키며 무슨 말을 해도 신뢰받는 사람, 계율을 지킨다 안 지킨다를 떠나서 인간의 도리를 그대로 하는 사람이라야만 그것이 대 없는 아버지, 대 없는 부처다 이거예요. 대가 없는 게 부처지 대가 있으면, 하나라도 거기 끼어 있으면 부처가 아닙니다. 보살 노릇도 할 수 없어요.

그런 거와 같이 지금 부처님의 뜻은, 부처님의 뜻이라고 하기 이전에 여러분 주인공의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렇게 들고 나면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니까 몸 안에서는 모두 진화돼 가지고 천백억화신으로서 호법신이 되고 수호신이 되고 화신이 되고 법신이 됩니다. 지금 내 몸뚱이 하나 속에 온갖 인과로 뭉친 그 중생들이 화해서 들고 나면서 그렇게 바깥 경계 안 경계를 수호한다 이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그 뜻을 아셔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는 일체라고 그전에도 항상 말했죠. 천문학이나 천체물리학이나 과학, 공학, 의학, 지리학, 이것들을 전체 한데 합친 공부라고요. 그러니 항상 얘기한 "한 찰나에 들어왔다 한 찰나에 나가시고" 하는 게, 우리가 공부하면서 한생각을 내면 그렇게 들고 난다는 것이니 불가사의한 법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을 저 천국에 갖다 놨다가 금방 이리로 갖다 놔도 여러분은 어디 갔다 왔는지 모르니 불가사의하다는 거죠. 그거를 거짓이라고 한다면 요렇게 한번 표현을 해 볼까요? 지구를 버스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지구가 그냥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태워 가지고 어디 타국에, 그냥 막 여러 별성을 통해서 다른 천체에 갖다 놨다가 여기 데려다 놔도 여러분은 모르지 않습니까? 빛보다 더 빠르고 찰나찰나 돌아가는 겁니다.

염주알이 108개인 뜻

질문 어떤 스님들께서는 목에다 염주를 걸고 다니시기도 하던데요, 그 염주알이 108개인 뜻이 무엇인지요?

답변 백이라는 것은 이 큰 우주를 비유한다고 합시다. 팔이라는 거는 사무 사유의, 즉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 이 모두를 따집니다. 이 세상 팔도라고 비유를 해도 되는 거고요. 이 사무 사유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데의 반, 보이는 데 반입니다. 죽는 거 반 사는 거 반. 그럼 이렇게 따집시다. 죽은 사람이 반이라면 사는 사람이 반, 보이지 않는 데의 영령들이 반이라면 산 사람들이 반, 즉 말하자면 어느 사람이든지 정신계의 내 생명의 근본이 있다면 바로 육신 이 자체가 있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반반이.

그러니까 백팔 염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돌리면서 염(念)하라고 한 겁니다, 그게. 백팔번뇌가 있습니다. 이 번뇌, 사람이 그렇게 죽고 살고 하면서 돌아가면서 살려면 얼마나 많은 번뇌가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나가는 게 애고가 오고, 죽음이 오고, 아픔이 오고, 슬픔이 오고 정말 여러 가지가 오니까 그게 찰나찰나 일어나지 않습니까, 속상하고 그러는 것도. 어떤 거든지 일어나는 그 자체를 두고 또 백팔번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번뇌, 이 망상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 즉 탐진치 이 삼독을 다 놓고 버려라. 놓고 돌려라. 이 지구 자체, 이 우주 전체 삼천대천세계 전체가 염주알 돌아가듯 하느니라. 빈틈이 없죠, 염주알 자체는요. 그래서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는 그 표현, 표시입니다, 그게.

참다운 공의 맛을 보려면

질문 『금강경』의 대의(大義)를 교학에서는 '파이집 현삼공(破二執 現三空)'이라 해서 집착을 없애고 공한 이치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집은 아집(我執)과 법집(法執)을 말하고 삼공은 아공(我空) 법공(法空) 보살공(菩薩空)을 말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모든 분별이 끊어진 부처의 성품을 나타내는 진공묘유(眞空妙有)의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이 마음공부를 통해서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금강경』에서 설하는 참다운 공의 맛을 볼 수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답변 예전에 큰 조사 스님네들은 말씀도 안 하시고 법상에 앉으셔서 주장자를 한 번 꽝 치고선 '이 눈이 보이느냐.' 하시곤 낚싯밥을 던져서 건지게끔 하는 말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은 너무들 말로는 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처님 법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손가락을 드는 사람도 있고 춤을 추는 사람도 있고 일어나서 걸음 걷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많습니다. 그리고 '참 맛이 좋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물을 떠다 놓는 사람도 있고 합장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많아요. 그것은 생략하고, 그런 말을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가슴에 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의 그 깊은 잠재의식 속에, 참나가 공(空) 안에 들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자기에게 맡겨 놓으라고 하는 그것도 내가 공했고 이 세상이 다 공했으니 포함해서 공한 주인공에 놓으라는 것입니다. 내게 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부처도 이루고 세상이 공한 줄 알고 나도 공한 줄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인공(主人空)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모든 일체 생활을, 들이고 내는 것을 다 몰락 놓고 '다 당신이 하는 거, 들이고 내는 걸 바로 당신이 하는 거니까 당신이 다 알아서 길잡이가 돼 주실 거다.' 하고, 또 길잡이가 될 거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도 안 되는 거는 '나를 테스트 해 보는구나.' 하고선 놓고, 또 되는 거는 감사하게 믿고 놓고, 모든 것을 맡겨 놓을 때에 비로소 자기 자신의 은사 아닌 은사, 참은 사를 만날 것입니다. 진짜 은사! 자기를 수시로 이끌고 다닐 수 있는 참자기를 말입니다.

> **모든 것을 맡겨 놓을 때에 비로소 자기 자신의 은사 아닌 은사,**
> **참은사를 만날 것입니다. 진짜 은사!**
> **자기를 수시로 이끌고 다닐 수 있는 참자기를 말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가졌을 때 그것을 한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도 얘기했죠? 땅에서 싹이 나오는 거와 마찬가지고 어른들이 어린애 낳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입니다. 어린애를 출산했을 때 갓 나와 가지고 어른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한 소식 얻었다 할지라도 어린애 갓 낳은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내가 한 소식 했다는 말 할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둘째는 내가 갓 나와서 사리를 알고 판단을 할 정도로 커졌을 때는 이 세상 돌아다니면서 크고 작은 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체험하면서 놓고 다시 또 체험하면서 놓고, 참자기가 그렇게 거침없이 여여하게 돌고 행한다는 걸 알았을 때 어른이 된 것입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한 소식 얻었다고 결론지어서 꽂아 놓지 말라는 얘깁니다. 한 소식 얻었다고 해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는 얘깁니다. 점점 자라서 어른이 될 수도 있고 늙을 수도 있고 늙었다가 또 애가 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우리는 어른이 하는 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심부름도 해 주고 심부름 하는 걸 받기도 하죠. 우리가 지금 높은 일만 합니까? 어린애를 낳아 가지고 똥 기저귀도 빨고 똥을 씻기도 하고, 어린애를 기를 때에 별의별 일을 다 합니다, 궂은일을. 어른이 돼서 애의 밑을 씻어 줘야 하고 애는 애기 때문에 또 애 노릇을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높아도 높은 게 없고 얕아도 얕은 게 없이 평등한 진리의 그 뜻을 항상 생활 속에서 파악하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스스로 샘물이 솟듯, 솟아나는 그 샘물의 맛을 알고 역력하게 나를 끌고 다닐 수 있는 나의 참주인공이 진짜 생기는 것입니다, 홀연히. 그저 생산이 되기만 하면은 그때가서는 언젠가는 성불할 단계가 오고 언젠가는 열반할 단계가 오죠. 어린애만 낳아 놓으면 저절로 어른 되고 늙어지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그 차원을 알고 차원이 높아져서 나중엔 백지로서 크고 작은 게 없고 내세울 게 없을 때는 또다시 요다음에 모습을 가지고 나오지 않아도, 여러분이 내 모습이기 때문에 따로 모습을 가지고 나오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자유스럽게, 여기만 내 집이 아니라 우주 삼천대천세계가 다 내 집이니 그저 한 찰나에 이 집도 내 집이요, 저 집도 내 집인데 따로 내가 내 몸을, 내 모습을 그려서 또 내놓을 게 뭐 있겠습니까?

알아듣기 쉽게 요렇게 말을 해 드리는 건데 이 차이가 얼마만큼 크고 귀중한 뜻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이 도리를 완벽하게 안다면 내가 당신이 될 수 있고 당신이 내가 될 수 있으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모습은 다를지언정 마음이야 어찌 다를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마음이 둘이 아닐진대 당신 하나가 이 나라의 임금이라면 국민을 위해서, 어떠한 문제가 잘못돼 돌아갔을 땐 내가 그 대통령 속에 들어가서 내가 대통령이 됨으로써 그거를 잘 지켜 나갈 수 있다는 얘깁니다. 커버해 나갈 수 있고…. 대통령의 마음도 그러겠지마는 그 마음과 이 마음이 둘이 아니어서 마음으로부터 오관을 통해서 정신이 번쩍 들면서 자기가 잘못 끌고 간다는 걸 알게 됨으로써 그것을 확 고쳐서 잘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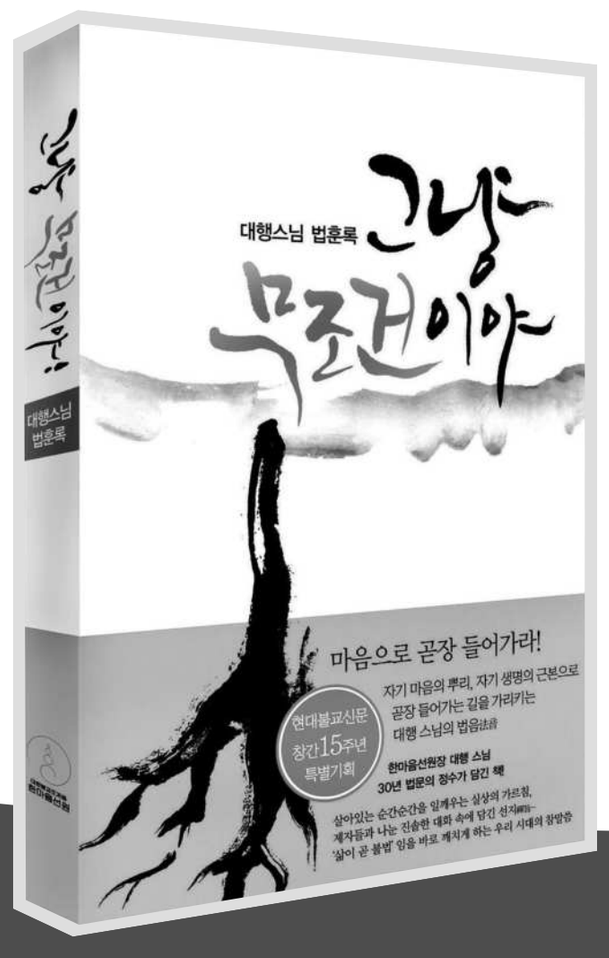
그렇기 때문에 내 모습을 따로 가지고 나오지 않아도, 창살 없는 감옥이나 매한가지인 이런 세상에 내가 그 모습을 해 가지고 나오지 않아도 그 속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여기저기 나 아님이 없다 이겁니다.

그 뜻은 미생물에서부터 인간에 이르기까지, 선신에 이르기까지, 부처에 이르기까지 어디고 아니 닿는 데가 없이 내 몸 아닌 게 없다는 얘깁니다. 내 자리 아님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 "이런 것이 옳다, 저런 것이 옳다. 이런 것이 좀 낫다. 이것은 정법이 아니다. 사법이다. 무당이다." 이렇게 흉볼 것도 없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없었다면 높이 보이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거를 흉보지 말고 '저런 거는 이렇게 해야 할 텐데….' 마음 속으로…, 겉으로 입 밖에 내어 구업을 짓지 말고 항상 이익하게 마음을 내 주는 데 목적이 있다는 얘깁니다.

어린애들을 기를 때에 사랑하는 자녀들이라면 그 자녀들이 잘못한 거를 드러내겠습니까? 도둑질을 했다 하더라도 어머니는 숨길 것입니다. 그와 같이, 내 자식을 사랑하듯이 숨기면서 거죽으로는 말없이 안으로 굴리면서 이익하게 마음을 내 주는 그것이 바로 무주상 보시(無住相布施)며 부처님의 뜻이며 바로 보살의 행이라고 봅니다. 하나서부터 열까지 우리가 남을 해하게 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아마도 억겁을 걸쳐 가면서 요만한 거 하나라도 내가 한 것만치 내게 돌아올 것입니다.

세상에 만약에 조그마한 소나무가 없다면 중치 소나무가 없고 중치 소나무가 없다면 큰 소나무가 없고, 또 삐뚤어진 게 없다면 바로 선 게 없을 겁니다. 조화가 이렇게 이루어져서 진리라고 이름을 지었고 산천초목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자연의 조화가 이렇게 보기 좋다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도 삐뚤어진 사람, 똑바로 곧게 올라간 사람, 옆으로 굴려진 사람, 땅 끝에 붙어서 자라지도 못하는 사람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사람의 모습은 그렇지 않지만 마음이 그러해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그런 행을 하면서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 마음이 중하지 몸이 중한 게 아닙니다. 마음에서 비롯되어서 모든 것을, 몸은 행하게 되고 앉게 되고 서게 되고 말하게 되니까요. 우린 부처를 이룬다 하기 이전에, 깨치기 이전에 이 도리를 알아야 깨쳐도 '아하, 다 이렇게 하나하나 나투어 가면서 놓아가고 돌아가는 이 텅텅 빈 그릇을, 괜히 여기다가 내 마음으로 담아 놓고 무겁게 애를 썼구나!' 하는 생각이 그때서야 들 것입니다.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현불샵

현불 논단

불교는 휴식의 종교



방영준
성신여대 명예교수

제대로 된 휴식 의미 모르던
20대 후반 대기업 재직시절
매년 휴가 때마다 불안했다

이젠 '워라밸 · 주52시간' 도래
쉼이라는 생활 양식 '구체화'
휴식, 삶의 질 결정 중요 요소

붓다의 가르침이 최고의 휴식
이번 여름휴가엔 禪 · 내려놓기를

"아난다여, 너는 나를 대신하여 샤카족 사람들을 위해, 그들이 도를 구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시 법을 설해 주려무나. 나는 등이 아프다. 잠깐 누워야겠다". 아난다는 "그렇게 하겠습니다"하고 대답했다. 붓다는 옷을 넷으로 접어서 깔고, 발을 포갠 다음 오른쪽 겨드랑이를 아래로 하고 누우셨다. 위의 글은 초기 경전 잡아함경에 실린 내용이다. 필자는 붓다께서 등의 아픔을 호소하시며 휴식을 원하시는 이 장면의 글을 읽고 애처로움과 함께 붓다와 일체감을 느낀 기억이 생생하다. 붓다와 나의 육신이 다름이 없다는 사실에서 붓다와 가까워 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이다.

폭염이 태풍처럼 계속 몰아치고 있고 이제 휴가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나는 20대 후반 몇 년간 대기업체에서 근무했는데 그 때의 휴가 기억이 지금도 생각난다. 신입직원 입사 후 첫 휴가인데 왜 그렇게 불안했는지? 마치 해고당한 느낌으로 며칠간의 휴가를 소비한 것 같다. 개미와 베짱이의 우화에 이미 쇠뇌당한 세대라 휴식에 익숙하지 못한 것이리라. 일 할 때는 휴식을 생각하고 휴식할 때는 일을 생각한 것이다.

이제 세상이 변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의미하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이라는 용어가 유행이다. 주 52근로시간 제정 등 제도적으로도 '쉼의 삶의 양식'이 구체화되고 있다. 휴식은 일의 반대가 아니라 동반자이고 상호보완적인 관계로서 서로를 완벽하게 만들어 주는 관계임을 강조하는 시기가 왔다. 이제 휴식은 단순한 쉼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제일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우리는 일하기 위해 쉬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쉬기 위해 일하는 것이라는 사고가 등장하면서 휴식에 대한 기존의 관념을 폐기시키고 있다.

독일 학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병철 교수는 저서 '피로사회'에서 오직 자신의 능력과 성과를 통해서 존재감을 확인하려는 자아는 피로해지고 황폐해진다고 말한다. 즉, 자기가 스스로 설정한 목표와 요구에 성과를 내지 못해 좌절하게 되고, 이 좌절감은 우울증을 낳는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사회를 '성과사회'로 보고 이러한 사회는 그 구성원을 피로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성과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시스템의 진화과정에서 나온 결과로 본다. 더 큰 성과를 올려서 더 큰 성공을 거두고자 하는 개개인의 욕망을 부추 킴으로서 성과주체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을 착취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욕망의 수레바퀴에 빠져 스스로가 가해자가 되고 동시에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한 교수는 성과사회의 과잉성을 극복하기 위해 사색적 삶, 새로운 영감을 주는 무위와 심심함, 타자와의 관계 회복 등을 역설하면서 휴식의 가치를 강조한다.

휴식의 가치가 강조되면서 휴식의 방법과 지혜에 대한 책과 글도 많아지고 있다. 휴식에 관련 자료를 탐색 탐독하는 과정에서 크게 느낀 점은 바로 불교가 휴식의 종교이고 붓다의 가르침이 휴식의 최선의 방법이고 지혜라는 것을 알았다. 갈애와 분노, 그리고 어리석음에 대한 인식, 하심(下心)과 '내려놓기', 참선과 위빠사나 명상 등 붓다 다르마와 수행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 저서들이 불교적인 저자들에 의해 지어진 것이 아니고 불교적 용어를 사용하지 않음에도 결론은 불교의 인식 방법과 수행론으로 연결되고 있었다.

그렇다. 이제 휴식의 가치가 살아나는 시대가 오고 있다. 그런데 불교는 휴식의 종교다. 그리고 한국 불교는 명산 곳곳에 전통 사찰을 가지고 있으니 천혜의 휴식처를 가지고 있다. 한국 불교가 이 피곤한 사회의 피곤한 중생을 위한 진정한 휴식처가 되어야 한다는 당위는 저절로 나온다. 이를 어쩌라. 한국불교와 불자들의 할 일은 이처럼 태산처럼 다가오는데.



기자칼럼

워마드 종교 폄훼에 대한 단상

신성민 취재부 기자

지난 7월 12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성체 훼손, 워마드 등이 실시간 검색어로 올라갔다. 급진적 여성우월주의를 표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에서 7월 10일 성체 훼손 사진이 올라왔기 때문이다. 홍대 남성 누드모델 사진을 올려 물의를 빚은 지 얼마되지 않는 시점이었다.

성체는 가톨릭에서는 예수의 몸을 상징해 공경하는 대상이다. 한 워마드 회원이 이를 불에 태우고 "천주교는 지금도 여자는 사제를 못 하게 하고, 낙태죄 폐지도 절대 안된다고 한다" "천주교를 존중할 이유가 어디있냐"는 글을 썼다.

이에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입장문을 통해 "자신의 신념을 표현하고 주장하는 것은 자유롭게 허용되지만, 그것이 보편적인 상식과 공동선에 어긋나는 사회악이라면 마땅히 비판받아야 한다"고 성토했다. 교황청에도 사안을 보고했다고 한다.

얼마 가지 않아 지인에게서 한 통의 제보가 왔다. 워마드가 불교도 폄훼했다는 것이다. 받은 사진은 충격적이었다. 지면에는 공개할 수도, 글로 소개하기도 민망한 수준이었다. 차라리 성체 훼손이 나았을 정도다. 지인은 이슬람 경전인 코란을 태웠다는 이야기도 전했다.

분노를 가라앉히고 생각을 정리해봤다. '우선 워마드가 무엇인가'였다.

적지 않는 언론매체와 여론은 워마드를 '여자 일베(일간베스트)'라고 규정하고 비판한다. 하지만, 면밀히 보면 워마드와 일베는 근원이 다르다. 일베는 여성 · 진보정치인 등에 대한 폄하를 놀이문화로 여겼던 커뮤니티이고, 워마드는 어디까지나 페미니즘 운동을 표방했던 메갈리아에서 갈라져 나온 곳이다.

그래서 메갈리아와 워마드 모두 '미러링'을 자신들의 운동(movement)의 도구로 삼고 있다. 한국사회에 만연한 여성혐오에 대한 다양한 말 · 글 · 행동들에서 성별을 남성으로 대체해 그대로 되쏴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워마드는 생물학적 여성을 제외한 모든 존재, 즉 남성과 남자아동 · 장애인 · 성소수자들마저도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이다. 그리고 일반 상식 안에서 이뤄질 수 있는 되쏴주기가 아닌 소위 '혐짤(혐오+짤(사진을 의미하는 은어))'로 자신들의 운동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워마드들이 주장하는 '여성들만을 위한 운동'이 한국사회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대중이 혐오라고 느끼는 운동은 지지하기도 호응하기도 어렵고, 자기들만의 잔치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의 워마드는 일베가 아니지만, 얼마든지 일베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다분하다.

다만, 불교를 비롯한 종교계도 생각해 볼 지점은 있다. '워마드는 왜 종교에게 분노했는가'이다. '혐오'라는 콘텐츠를 거둬내면, '남성 위주의 종교 권력'이라는 비판이 존재한다. 각 종교 안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성은 여전히 소외되는 존재이다. 그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었다면 성체 훼손 등과 같은 혐오 콘텐츠들이 돌아다닐 수 있었을까. 한번 쯤은 생각해볼 일이다.

社說

생활 속 환경보살이 됩시다

연이은 폭염으로 수은주가 38℃를 가리키던 7월 23일, 불교환경연대와 본지는 텀블러 사용 캠페인을 시작했다. 혹한의 지난해 겨울과 대비되듯, 올 여름은 전국 기온이 37℃를 넘나드는 지독한 폭염에 휩싸였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기후변화가 지구온난화 때문이라고 밝혔다.

온난화로 뜨거워지는 지구, 그리고 대한민국은 각종 환경문제들로 신음하고 있다. 우리는 더욱 불교환경운동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불교환경운동은 대규모 토목건축을 반대하는 운동에 치우친 감이 있다. 대형 개발에서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움직임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들 생활 속에서 환경보호 운동에 나서야 할 때다. 본지가 불교환경연대와 일회용품을 줄이는 캠페인에 본격 나선 이유도 여기에 있다.

벌써부터 효과는 나오고 있다. 사찰에서 배포할 예정인 텀블러를 기증코자 하는 독자가 나왔다. 이 독자는 주변 이웃의 텀블러를 모았다. 또 일회용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변을 독려하고 나섰다.

이처럼 환경을 지키는 것은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 알리는 것부터 시작한다. 누군가로부터 주도되는 환경운동이 아닌 자발적으로 나설 때 진정한 환경 보호는 시작될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생명평화 사상으로 이는 다양한 뭇생명이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는 삶을 말한다. 우리의 삶 속에서 무분별하게 자행되는 다양한 환경파괴를 멈춰야 한다.

우리의 후손을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바뀌어야 한다. 그 시작은 불교환경연대가 진행하는 일회용기 사용 줄이기 캠페인에서부터 일 것이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에 거는 기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전국철도노조가 2006년 정리해고된 KTX 승무원 180여 명을 12년여 만에 코레일 정규직으로 특별 채용키로 했다.

이로써 풀리지 않을 것 같던 코레일과 해고승무원의 기나긴 갈등이 4,526일 만에 일단락됐다.

이번 철도노사의 복직 합의는 최근 불거진 양승태 前대법원장의 '재판거래 의혹'이 큰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해고승무원들이 1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온갖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지해준 불교계의 숨겨진 노력이 있다.

불교계는 2006년 파업 100일을 하루 앞둔 해고승무원들을 위해 불교인권위원회가 '제4회 박종철 인권상'을 수여하면서부터 이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후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중재와 시위, 해고승무원들을 위로하는 정기법회 등을 주관하며 선봉장 역할을 맡았다.

이처럼 진심을 다해 나선 불교계 노력에 해고승무원들은 힘을 얻어 지금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해고승무원들은 자신보다 더 자신의 일처럼 행동을 보여준 불교계에 감사인사를 잊지 않았다.

이제 사회노동위원회는 쌍용차 노조를 비롯해 제주 예멘난민 등 또 다른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손길을 뻗는다. 이들의 손길에는 모든 중생을 빼놓지 않고 구원하겠다는 '중생무변서원도'가 담겨 있다.

이 손길이 KTX 갈등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다른 약자들에게도 희망을 불어넣는 동력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손을 보태는 계기로 거듭나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악령, 귀신 잡는 스님이 있어 화제

憑依(빙의)와 귀신병(鬼神病)

은 자신의 생각 의지 마음과 상관없이 악귀에 조종 당하여 자신과 가정은 예기치 못한 행동으로 끔직한 사건으로 비화되거나 또는 집안이 망신과 수치로 황폐화되고 사회적으로는 각종 사건사고에 연관되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본인 또는 가족 중에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있으면 빙의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으며, 청정 수월도량 자비사와 인연이 되어 가정에 사랑과 건강함과 평화가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빙의와 귀신병의 주요 증상

* 혼자 중얼거리고 방에서 누구하고 대화 하듯이 씨부렁거린다. * 환청이 들리고 신경이 예민하여 고함을 지르고 발작을 일으킨다. * 공황장애와 과대망상 우울증으로 자살 하고픈 마음이 자주 생긴다. *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어깨가 한 짐이 되어 무겁고 양쪽 팔과 다리와 허리가 찢어질 듯이 아프다. *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하는데 항상 머리가 무겁고 아픈 두통이 계속 되고 몸 전체가 몸살 난 것처럼 고통스럽다. * 평상시는 순하고 순한데 술만 마시면 난폭해지고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고 이상한 사람으로 바뀐다. * 무엇에 홀린 듯이 술을 연속하여 밤새도록 마시거나 또는 줄 담배를 피운다. * 몸속에 귀신이 드나드는 느낌이 들고 이유 없이 몸이 아프거나 잘 나가든 집안이 갑자기 몰락한다. * 술은 마시면 말과 방언이 튀어 나오고 본인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평상시와 다른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한다. * 누가 집에 들어와서 음식에 약을 타서 먹지 못하게 한다는 말도 안되는 말을 한다거나 성격이 포악하고 욕을 잘하는 경우 * 돌발적인 행동과 발작을 일으키고 자꾸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고 한다거나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경우. * 신내림굿을 하였는데 도리어 더 이상한 사람으로 변했다. * 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 신 내림굿을 하였는데 신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원상복귀를 원하고 있는 사람. * 돌아가신 조상이 좋지 않은 모습으로 꿈속에 자주 나타난다. * 계속하여 악몽을 꾸거나 헛것이 보이고 귀신이 보인다. * 귀신하고 사랑을 한다. * 입산수도 하다 오히려 잡귀에 씌어 고통 당하고 있다. * 신병과 귀신병으로 고생하고 있다. * 집안에 연속하여 대형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가족 구성원이 아무 이유 없이 줄초상을 당한다. * 종교계통의 일을 하는데 빙의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자신이 부처이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 * 큰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나간 것처럼 행동한다. * 가족 중에 정상적이지 못하고 누가 봐도 이상한 행동을 한다. * 불교, 기독교 등 종교와 상관없으며 귀신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반드시 해결되며 국내와 해외에 거주하여도 본인이 직접 오지 않고 가족이 와도 무방합니다. **위와 같은 증상이 있으면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청정수월도량 자비사와 인연이 되어 잡귀 마장 사탄 중엄신 조상신등 악마 잡귀의 무거운 짐을 벗어 가정의 건강함과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새롭게 태어나길 바랍니다.**

그 어떠한 악령귀신도 불법승으로 단 한번에 제도하여 고통의 무거운 짐을 내려 놓게 하며 심신의 안녕과 평화를 찾게 합니다.

다른데서 몇번이나 했는데 안되더라 하는 마음을 버리시고.....

반드시 해결되는데 믿지못하고 의심하고 망설이는 것은 또 뭐꼬!!!

귄 대한불교 자비사 예약 상담전화 010-8600-7409 (서울 강남구 대치동 2호선 선릉역 지하철 1번 출구)

불교미술 집대성·유적 발굴 선도한 개척자



문명대 한국미술사연구소장이 자신의 연구소에서 연구 중인 불화를 살펴보고 있다.

테마人 문명대(77)

한국미술사연구소장 · 동국대 명예교수

글=신성민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조선시대 고승 서산대사(1520~1604)는 '답설(踏雪)' 이라는 게송에서 이렇게 말했다.

'눈을 밟으며 길을 갈 때에는(踏雪野中去)/ 함부로 어지러이 걷지마라(不須胡亂行)/ 오늘 내가 남긴 발자취는(今日我行蹟)/ 후세들에게 이정표가 될 것이니.(遂作後人程)'

이는 자신의 길이 후대 사람들에게 이정표와 모본(母本)이 됨을 알린 서산대사의 경책이다. 기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은 어렵고도 고되다. 어지간한 개척정신과 자기 관리가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다. 누구나 갈 수 있지만,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그래서 그 고된 길을 걸어온 사람들에게 우리는 존경을 표한다.

문명대 한국미술사연구소장(동국대 명예교수)은 '불교미술' 이라는 외길을 오롯이 걸어온 학자다. 문 소장은 그 외길을 걸으며 후대를 위한 수많은 이정표들을 남겼다. 현재 불교미술사학이 어느 정도 체계를 잡기까지는 문 소장의 공로가 적지 않다.

그는 불상 및 불화 연구, 사지 발굴 등 한국불교미술사 분야뿐만 아니라 간다라 · 실크로드 등 해외 발굴조사 활로를 열었던 개척자이다. 지금도 한국미술사연구소를 이끌며 왕성한 연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역사학도, 불교미술을 만나다

문 소장이 '불교미술' 이라는 평생 원력을 갖게 된 시기는 20대 대학시절이다. 역사학자를 꿈꿨던 그는 경북대 사범대학 역사교육과를 입학했고, 사찰 대학생회에서 활동하며 '불교학' 을 조우하게 된다.

본격적으로 '불교미술' 에 관심을 가진 것은 군 제대 후 경북대 박물관에서 근무하면서부터다. 박물관에서 문 소장이 한 업무는 유물 카드 정리였다. 그는 수만 점의 유물을 실측하고 특성을 파악하며 미술사의 기초를 알게 됐다. 경북대 대학원서 '한국 석굴사원 연구' 를 석사학위 논문으로 쓰면서 '불교미술' 의 길을 걷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박물관에 수장된 유물들을 분석하고 정리하면서 불교미술사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됐죠. 원래는 불교사상사 분야를 전공하고 싶었습니다. 대학원 진학할 당시에는 석굴에 대한 관심이 높을 때였고, 한국 전체의 석굴사원을 조망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석사 논문을 석굴사원을 주제로 썼고, 불교미술사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석사를 마치고 문 소장은 동국대로 진학하게 된다. 당대 최고 불교미술사학자인 황수영 동국대 교수와 인연 때문이다. 국내 오악(五岳)을 중심으로 진행된 유적조사에 경북대 박물관 간사로 참여했던 그를 황 교수가 눈 여겨 봤고, 석사 이후 동국대 진학을 제안했다. 망설일 이유는 없었다. 국내 유일 불교박물관인 동국대 박물관서 황 교수의 지도를 받는 것은 행운에 가까웠다.

"석사학위를 받고 인사차 (황수영)선생님을 뵙고 '동국대 대학원을 진학하겠다' 고 말씀드렸더니 '동국대 박물관서 일해 보겠냐' 는 제안을 주셨어요. 바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박물관 근무하고 공부하면서 석굴암 불상들을 박사 논문 연구 주제로 잡았죠."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문 소장의 박사학위 논문 '석굴암 불상조각 연구' 다. 석굴암 내 전체적인 불상에 대해 연구를 한 것은 문 소장이 처음이다.

그래서 문 소장의 석굴암에 대한 애정은 남다르다. 2012년에는 자신의 연구소 주최로 '토함산 석굴 불상의 최초 종학적 연구' 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기도 했다. 또한, 석굴암 보존을 위해 이를 그대로 복제해서 만든 '제2 석굴암' 을 조성할 것을 주장해 세간의 논쟁을 불러오기도 했다.

"한 번은 연구가 아닌 순례 차 석굴암에 갔는데 볼 수가 없더군요. 사람도 많고, 예경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일종의 사원인데 불자가 예경도 할 수 없다면 가장 중요한 기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석굴암 인근에 '제2 석굴암' 을 조성하자고 제안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석굴암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 빨리 위원회를 구성해 제2 석굴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교미술 · 선사 발굴에 새 장 열다

문 소장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주제가 바로 '최초 발굴' 이다. 그의 발굴은 불교미술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문명대' 라는 이름 석자를 세간에 널리 알린 사건은 '반구대 암각화 최초 발견' 이라는 사건이다. 당시 발견 에피소드도 매우 흥미롭다. 본래 문 소장은 원효 스님이 주석하며 〈초장관문(初章觀文)〉, 〈안신사심론(安身事心論)〉 등을 편찬했다고 전해지는 반고사(磻高寺)를 찾고자 했다. 그리고 반고사를 찾아 떠난 그 길에서 역사적인 대발견을 하게 된다. 바로 울산 반구대 선사 암각화다.

문 소장은 당시 상황을 상세히 이야기해 줬다. 1970년 12월 24일 불교미술사로 박사학위를 받고 있던 문 소장은 반고사의 흔적을 찾기 위해 울산 천전리로 왔다. 그곳에서 주변 절터를 안내해 준다고 해서 만난 사람이 "절벽 아래 희미한 그림이 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혹시 마애불인가' 라는 생각에 따라 간 절벽에는 이상한 무늬들이 있었고, 화랑을 의미하는 '랑(郞)' 자가 많았다. 문 소장은 직감적으로 화랑의 유적이라고 생각했다. 이후 그는 연구를 통해 선사시대 암각화임을 알아낸다.

B2면에 계속

역사학도, 불교에 빠지다

역사학자 꿈꾸며 사학과 입학

불교에 반해 불교학생회 활동

박물관 근무하며 불교미술 매료

석굴암 불상 연구로 박사 학위

'최초' 수식의 불교미술사학자

반고사 찾던 중 先史암각화 발견

반구대 암각화 최초 발굴자 유명

최초 해외발굴인 발해사원지 발굴

주도해 금동불 · 막새기와 찾아내

실크로드 · 간다라 발굴 등도 진행

INSI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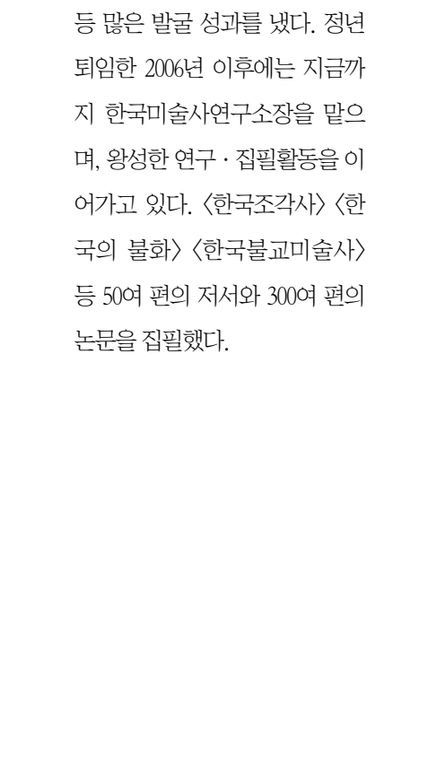
B3 현견 스님의 중국 선문화 기행
선승의 입적과 장송(葬送) 의식

B5 문화
시원한 山寺박물관서 '폭염탈출' …

B6 학술 · 문화재
동국대 '중관과 중론사상' 국제학술대회

문명대 소장은?

문명대는 1941년 출생으로, 경북대 사범대 역사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 대학원에서 '석굴암 불상조각 연구'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동국대 대학원 박사과정 중 울산 천전리, 대곡리 선사 암각화를 발견해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동국대 교수로 재직하면서는 러시아 연해주 발해 사원지 발굴, 파키스탄 탁실라 간다라 유적 발굴 등을 진행하는 등 많은 발굴 성과를 냈다. 정년 퇴임한 2006년 이후에는 지금까지 한국미술사연구소장을 맡으며, 왕성한 연구 · 집필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조각사〉 〈한국의 불화〉 〈한국불교미술사〉 등 50여 편의 저서와 300여 편의 논문을 집필했다.





문명대 소장이 태안마애불 앞에서 불상의 특성 등을 설명하고 있다.





2004~2005년 이뤄진 파키스탄 탁실라 발굴에서 출토된 간다라 불상(사진 왼쪽)과 이를 발굴 지휘했던 문명대 소장의 모습.(사진 오른쪽)

지금도 집필활동 왕성… "연구할 땐 항상 현역"

'문명대 한국미술사연구소장'

B1면에서 계속

1년하고 1일 후인 1971년 12월 25일에는 1~2km 떨어진 대곡리에서 암각화를 발견한다. 불교미술사학자였지만, 문 소장은 이를 운명이자 필연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울산의 천전리와 대곡리를 내 집처럼 다니며 10년을 연구했다. 세계 곳곳의 암각화 연구서들을 번역해 읽었다. 1984년 문 소장은 〈반구대 암벽 조각〉이라는 역작을 세상에 내놓았다.

'한국 최대 선사 유적 발견'이라는 유래가 없는 성과를 냈지만 그는 불교미술을 놓지 않았다. 오히려 눈을 돌려 간다라 · 실크로드 등 해외불교유적들을 찾아 나섰다. 여기서도 새로운 도전을 통한 '최초'라는 성과가 이뤄졌다.

1993년 러시아 연해주 '코르사코프카 발해 사원지' 발굴과 2004~2005년 파키스탄 탁실라에서의 '졸리안Ⅱ 사원지' 발굴이 대표적이다. 연해주 발해사원지 발굴은 그에게는 최초 해외 발굴 조사였고, 최초 발해 사원지 발굴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2006년 정년 1년을 앞두고 이뤄진 탁실라에서 발굴에서는 부조상을 포함한 불상 50여점과 동전과 못 등의 금속품과 토기 300여점을 쏟아져 나왔다. 최고의 발굴성과이기도 했다.

"적지 않은 국가가 파키스탄 탁실라서 사지 발굴을 했는데 저희만큼 성과를 낸 곳이 없습니다. 동경국립박물관에서 2000 · 2002 · 2003년 발굴을 했는데 마지막 해에 석불상 11점을 발굴한 것이 전부입니다. 이후 후속 사업을 진행하려 했는데 해외 연구조사 사업이 사라져서 더 성과를 내지는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불교미술 연구 · 신행은 나의 힘

동국대 불교미술학과 설립 주도

韓불교미술사 관련 개론서 발간

20년 간 진관사 다니며 신행활동

매일 독경 · 염불하며 信心 증장

앞으로도 나는 불교미술사학자

동아시아 석굴 전래 · 비교 연구 비롯

한국불교회화사 · 한국조각사 집필 중

팔순 앞둔 나이에도 7~8시간 몰두

해외 발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물으니 러시아 연해주 발해사원지를 꼽았다. 북한 발굴단과 함께 발굴했기 때문이다.

문 소장에 따르면 1993년에 이뤄진 코르사코프카 발해사원지 발굴에서는 한국을 비롯해 러시아 · 북한 발굴팀이 공동으로 발굴했다. 남북 갈등 상황에서 함께 발굴하니 대화가 오갈 리가 만무했다. 말을 붙여도 답을 하지 않았다. 대화의 시작은 '밥'이었다.

"당시 저희에게 밥 해주는 조선족 아주머니가 북한 발굴팀은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밥과 반찬을 넉넉히 준비하라고 일렀죠. 그러고는 저녁 식사 시간에 '같이 먹자'고 했는데 처음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일 정도 지나니 식사하더군요. 나중에는 서로 말도 하고, 그들 연구자들의 논문을 받기도 했죠. 그 분들의 생활을 통해 북한 실정도 어느 정도 알게 됐고요."

불교미술사 연구 토대 세우다

'불교미술'이라는 외길을 걸은 그가 보인 연구 성과는 가히 방대하다. 불교미술 관련 저서만 50여 권, 논문만 300여 편에 달한다. 우리나라 최초 불화 개설서인 〈한국의 불화〉는 관련 분야 연구를 위한 필독서이며, 〈불교미술개론〉은 최초의 불교미술개론서이기도 하다. 〈한국조각사〉와 〈한국불교미술사〉도 관련 분야 개론적 기틀을 만든 중요한 연구서로 평가 받고 있다.

이 같은 연구저서들은 종합적이고 통찰적인 연구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에 문 소장은 당시에는 불교미술과 사상을 함께 공부해야 제대로 된 연구를 할 수 있었다고 술회했다.

"당시 미술사를 하는 사람들이 불교사상사 연구에 많이 소홀했습니다. 저는 불교사상과 미술사 연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관련 연구를 할 수 밖에 없었죠. 지금은 불교사상 관련 연구도 많아서 참고 자료가 많습니다. 이제는 시야를 넓히는 것도 좋지만, 심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시대가 변한 만큼 자신의 연구를 어떻게 이끌고 나갈지를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문 소장은 연구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불교에 대한 신심과 애정이다. 불교를 접하며 '불교학'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고, '불교미술연구'라는 평생 원력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도 매일 새벽이면 〈금강경〉을 독송하고 예불을 한다. 연구소에 출근해서는 책상 위 작은 범종을 두드리며 염불하는 게 일상이다.

"예전에는 법회에도 자주 갔는데 요즘은 나이가 있어서 자주 참석하기 어려워요. 대신 매주 일요일 아침에 진관사로 갑니다. 전각마다 삼배하고 가장 조용한 곳을 찾아서 참선을 합니다. 그리고 인연이 있는 주지 스님에게 들려서 차 한 잔 마시고 돌아오는 것이 제게는 중요한 신행생활입니다."

나는 '현역' 불교미술학자다

이제 팔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문 소장은 왕성한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요즘 연구소에서는 '석굴사원'을 조명하는 연구가 한창이다. 문 소장 자신이 처음 불교미술에 입문했을 당시 주제였던 '석굴사원'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다. 지난해부터 골굴사와 함께 골굴사 석굴을 조명하는 작업이 그것이다. 인도와 중국의 석굴과 골굴사 석굴을 비교 연구한데 이어 올해에는 실크로드 석굴과의 상관관계를 조명해 볼 계획이다.

개인적인 연구 집필도 꾸준히 하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은 〈한국불교회화사〉를 비롯해 〈한국조각사〉도 새로 집필 중이다. 보여준 원고의 양은 어마어마했다. 지금도 매일 7~8시간씩 원고 집필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연구할 때만큼은 현역"이라는 문 소장에게 불교미술 연구는 수행이자 원력이다. 지금도 그는 '불교미술'이라는 외길을 개척하고 있다.



空의 세계로 돌아가다
〈공〉



윤창화의
중국 선원 생활과 철학
⑭ 선승의 입적과 장송(葬送) 의식


선종사원에는 납자들이 입적하면 화장(火葬)을 거쳐 장송(葬送)의식을 행한다.

(1) 죽음이란 공성(空性)의 실현

선승의 죽음을 열반 · 입적 · 입멸 · 원적(圓寂)이라고 한다. 또 육체와 동시에 번뇌의 불이 완전히 꺼졌다는 뜻에서 무여열반(無餘涅槃)이라고 한다. 모두 번뇌가 사라진 상태 즉 적멸(寂滅)을 뜻한다.

'죽음'이란 곧 공(空)과 합일이다. 그리고 일체 존재의 귀착지는 '무(無)'이고 '공'이다. 무와 공으로 돌아가는 길을 바꿀 수 있는 존재는 아직은 없다. 우리의 붓다도, 그리고 달마도 공으로 돌아갔다. 그것이 선승들이 말한 안심입명처(安心立命處)이기도 하다.

선종사원에는 납자들이 입적하면 화장(火葬)을 거쳐 장송(葬送)의식을 행한다. 그 과정은 시종일관 제행무상(諸行無常)과 일체개공(一切皆空)의 관점에서 시행되는데, 고승과 일반 승려의 경우가 좀 다르다. 고승이나 주지(방장)의 경우는 왕실과 관청, 사대부, 그리고 인근 사찰 등에 부고를 보내는 등 법식과 절차가 매우 많다. 그러나 일반 승려의 경우는 그런 것 없이 간소하게 연수당(열반당)이나 중병각에서 이루어진다. 다음은 일반 승려의 장의 절차이다.

(2)열반당과 병승(病僧)의 입적

병승(病僧 · 환자)이 발생하면 열반당주(堂主 · 혹은 연수당주)는 먼저 수좌 · 감원 · 유나 등 상위 소임자들에게 보고한다. 그런 다음 병승을 연수당이나 열반당으로 옮겨서 치료한다.

그런데 병승(病僧)이 열반당에 들어온 지 3일이 지나도 아무런 차도가 없거나 병이 더욱 악화되면, 간병은 병승을 일반 환자실인 열반당에서 중환자실인 중병각(重病閣)으로 옮긴다.

중병각에서도 차도가 없거나 악화되면 대중들은 병승의 침상 앞에 불상을 모시고 향촉을 밝힌 다음 경전을 염송(念誦)하고,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등 10불 명호를 외우면서 쾌유의 기도를 한다. "엎드려 바라건대 일심(一心)이 청정하고 사대가 편안하며 수명과 혜명을 연장하여 육체도 법신처럼 견고하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이 점점 더 악화되면 다시 대중들은 병승을 위하여 아미타불을 100번,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청정대해중보살을 각각 10번 부른다. 그리고는 "엎드려 원컨대 지금 병에 든 비구 ○○는 인연이 아직 다하지 아니했다면 속히 쾌유하게 하여 주사이다. 만일 대명(大命 · 죽음)을 벗어나기 어렵다면 속히 안양국(정토)에 태어나게 하사이다."라고 기원 · 염불한다.

장로종색의 〈선원청규〉 6권 '망승(亡僧)' 편에는 병승이나 망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만약 병세가 점점 더 악화되면 연수당주(간병)는 유나 · 감원 · 수좌 · 장주 · 서기 · 지객과 함께 상의하여, 병승으로부터 유언을 받아 기록해 두고, 사부(祠部 · 도첩, 면정유, 수계첩, 좌하유)와 의발, 도구 등을 모아서 함(函)에 넣어 유나실에 보관한다. 수좌는 함(函)에 봉인(封印)을 하고 자물쇠로 잠근다. 그런 다음 지사(유나)는 (병승 발생 사실을) 관청에 신고한다. 만약 병세가 위독해지면 재차 위독하다고 신고하고, 천화(遷化 · 입적)하면 관청에 신고한 다음 장송(葬送 · 장례)을 청한다. 병승(病僧)이 입적하면 3일 안에 사부첩(祠部牒)을 반납해야 한다" (장로종색, 〈선원청규〉 6권 亡僧. "如僧人病勢稍困, 堂主, 計會維那監院首座藏主書記知客, 同共抄箚口辭收祠部. 并衣物入堂司收掌. 首座封押并收掌鑰匙, 知事申官, 如加病勢, 即再申困重. 如已遷化, 又申官乞行殯送. 三日內繳納祠部."(〈신찬속장경〉 63권, p.541a)

납자 입적 후 화장 · 장송의식
일반승려 2~3일장 후 장례 · 다비

당송시대 불교는 거의 국가의 관리 하에 있었다. 당시 종교를 관장하는 관아는 예부(禮部) 산하의 사부(祠部)였다. 사부에서는 승려의 도첩(승려허가증), 계첩(수계첩), 면정유(免丁由 · 부역면제증) 등 '사부첩(祠部牒)'을 관리해야 하고 승려의 변동 상황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 승려가 되거나 병승이 발생하거나 입적하면 수시로 관아에 그 사실을 자세하게 보고해야 한다.

병승(病僧)의 병세가 더욱 악화되어 위독한 상태가 되면 연수당의 당직 행자인 직병자(直病者)는 연수당주에게 고하고, 연수당주는 수좌와 감원, 유나 등에게 알린 다음 함께 병승 앞에 와서 유언을 받아 적는다. 유언을 구사(口詞)라고 하는데 정해진 양식은 다음과 같다.

"병승(病僧) ○○는 본관은 ○주(州)이고, 성(姓)은 ○인데, ○○해(年)에 ○○곳에서 도첩을 받고 승려가 되었습니다. ○○년에 ○○사(寺)에 괘탑(掛塔 · 입방)하였으나, 지금 와서 포병(抱病 · 병에 걸림)하니 지수화풍 부정(不定 · 일정하지 못함)할까 염려됩니다. 몸에 소유하고 있는 행리(行李 · 의발과 도구 등 소지품)를 기록하여 주시고 사후 문제는 모두 총림의 청규에 의하여 장송(葬送)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포병승(抱病僧) ○○는 유언하나이다." (〈칙수백장청규〉 7권, 病僧念誦. "抱病僧某. 右某本貫某州某姓幾. 歲給到某處度牒為僧. 某年到某 寺掛搭. 今來抱病. 恐風火不定. 所有隨身行李合煩公界抄箚. 死後望依叢林清規津送. 年月日 抱病僧 某甲口詞(〈대정장〉 48권, p.1147c).

유언장의 요점은 사후 처리 및 소유하고 있는 의발, 도구 일체를 모두 총림에 위임하니 청규에 따라 장송(葬送)해 주기 바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유언 내용으로 보아 개인의 귀중품 등 재산에 대하여 제자나 속가의 가족들이 개입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었던 모양이다. 유언을 받은 다음에는 그 스님이 가지고 있던 물건은 모두 함궤 속에 넣고는 봉인(封印)한다. 다만 상하복(上下服 · 즉 直裰)과 괘락(掛絡 · 5조 가사) · 속옷 · 염주 · 행전 · 신발 · 수건 등은 시신(屍身)을 염할 때 필요하므로 남겨 둔다.

(3) 장례 절차

일반 승려의 장례는 며칠 장(葬)으로 했는지 청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도첩은 3일 안에 반납해야 한다." 또 〈선원청규〉 '망승' 편에 "이날 밤에 법사(法事)와 송계(誦戒 · 염불, 독경)를 하여 회향한다. 다음날 아침이나 점심 공양 후 바로 진송(津送, 葬送)한다(是夜法事誦戒廻向, 來日早晨或齋後津送)"라는 문구가 있는 것으로 보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일반 승려들의 경우는 입적한 다음 날이나 그 다음날에 바로 장례와 다비를 한 것으로 보인다.

병승이 완전히 입적하면 연수당주는 감(龕 · 棺)과 욕선(浴船 · 시신을 물 위에 놓고 목욕시키는 배)을 준비한 다음 조두(澡豆 · 비누)를 사용하여 망승(亡僧)의 시신을 깨끗하게 목욕하고 삭발을 시킨다. 그리고 속옷과 상하의(上下衣)와 오조가사를 입혀서 나무로 만든 통(桶) 속에 가부좌 자세로 앉힌다(눕히는 것이 아님). 그런 다음 다시 감(龕 · 棺)에 넣어서 연수당 내에 안치하고 위패를 써서 관 앞의 탁자 위에 놓는다.

위패를 쓰는 방식에 대하여 장로종색의 〈선원청규〉에는 "歿故(몰고) ○○上座之靈"이라 되어 있고, 후대에 편찬된 〈칙수백장청규〉에는 "新圓寂 ○○上座 覺靈"이라고 되어 있다. 우리나라 사찰에서는 "新圓寂 ○○○○ 覺靈"이라고 쓰는데, 이는 〈칙수백장청규〉의 양식을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임 주지의 경우는 "前住 ○○寺 ○○禪師之靈"이라고 쓰고, 나머지는 직함에 따라 쓴다(참고 - '몰고(歿故)'는 '고인(故人)'과 같은 뜻으로 죽은 이에 대한 존칭이다. '신원적(新圓寂)'이란 '금방 입적했음'을 뜻하고, '상좌(上座)'는 존칭이고 '각영(覺靈)'은 '영가(靈駕)'와 같은 말인데 그냥 영가가 아니라, 깨달은 영가를 말한다).

위패를 지키는 행자를 '직영행자(直靈行者 · 영가를 지키는 당직 행자)'라고 한다. 직영행자는 출상(出喪) 때까지 조석으로 영단(靈壇)에 죽(아침엔 죽)과 밥(점심에는 밥)을 올린다. 유나와 수좌 등은 하루 3번 차(茶)를 올리고 향을 사른다. 초하루와 보름 그리고 경명일(景命日, 천자 즉위일)에는 출상(出喪)하지 않는다. 초하루와 보름엔 총림에 정기적인 상당법어 등 행사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망승의 시신을 목욕시킬 때 사용한 천은 목욕시킨 사람에게 주고 수건은 삭발시킨 사람에게 준다.

출상(出喪), 다비(茶毘 · 화장)하는 날, 즉 장례일에 유나스님은 아침 공양이 끝나자마자 백퇴(白槌 · 망치의 일종)를 한 번 치고 나서 대중에게 알린다.

"대중스님들께서는 죽후(粥後 · 선원에는 아침은 죽. 만일 점심 공양 후에 다비를 할 경우는 '齊後'라고 함)에 종을 치면 각기 가사를 수하고 망승을 보내는 법사(法事)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요사의 책임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일제히 나와 주십시오. 삼가 아룁니다." (장로종색, 〈선원청규〉 6권 亡僧. "白槌一下云. 大衆粥後(或齋後), 聞鐘聲各具威儀, 普請送亡僧. 除諸寮頭首並皆齊赴. 謹白."(〈신찬속장경〉 63권, p.541a).

곧이어 종과 북이 울리면 연수당 앞에서 망승(亡僧)을 보내는 장송의식이 거행된다. 대중들이 모두 모이면 주지화상부터 차례대로 향을 사르고 합장한다. 이어 유나가 장중한 음성으로 염송(念誦, 독경, 염불)을 마치면 북을 친다. 대중들은 북소리와 함께 감(龕), 즉 관(棺)을 들어서 다비장으로 이운(移運)한다. 나머지 대중들은 번(幡 · 세속의 輓詞)과 향로 등을 들고 뒤를 따른다.

운구(運柩)가 다비장에 도착하면 장작더미 위에 관(棺)을 얹어 놓고 망승(亡僧)의 왕생정토를 위하여 염불 등 법식을 행한다. 주지 이하 6지사, 6두수 등 중요 소임자들이 마지막으로 향을 사르고 합장한다. 이어 주지가 횃불을 잡고서 장작더미에 점화(點火)를 한다.

주지화상은 점화 후에 무상법문(제행무상을 설하는 법문)을 한다. 대중들은 모두 함께 아미타불을 십념(十念)하면서 다비식을 마친다. 다음 날 아침에 연수당주와 유나는 다비장으로 가서 유골을 수습하여 물에 뿌리든가 아니면 보동탑(普同塔)에 안치한다. 보동탑은 대중 모두의 유골을 안치하는 탑이다.

〈민족사 대표〉





골프 공과 선사 도범 스님 지음/조계종출판사 펴냄/1만 5천원

"뜻한 대로 굴러가는 것은 공인가요, 제 마음인가요?"

타국서 수십 년간 오직 한국불교의 전법을 위해 애써온 스님은 왜 골프 공을 들었을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인 수행과 골프의 교집합은 무엇일까? 건강을 위해 골프채를 잡았다가 그만 골프 속 인생의 의미를 알아버린 한 스님의 골프 그리고 불교 이야기.

어느 절 스님의 이야기일까. 무대는 국내가 아니다, 80년대 후반 미국으로 건너간 보스턴 문수사 회주 도범스님의 골프 입문기다. 마음을 비우고 겸허해야 하며 정신을 집중해야 하는 운동인 골프를 불교와 관계가 깊은 운동이라고 생각한다. 이들에게 불교는 명상을 통해 뇌를 쉬게 하는 종교다.

'중론', 인도사상계에 내던진 도전장



중론

가츠라 쇼류/고시마 기요타카 공저, 배경아 옮김/불광 펴냄/2만 5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기원후 2세기경 남인도서 활약한 용수(龍樹)는 그의 저서 〈중론(中論)〉을 통해 '제2의 붓다'로 추앙받았다. 그만큼 붓다의 진의를 명확히 밝힌 논서라는 뜻이다. 그렇다고 〈중론〉을 불교에 국한된 종교 문헌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중론〉은 인도를 포함한 중국, 한국 등 동아시아 정신세계에 큰 영향을 끼쳤을 뿐 아니라, 근대에 이르러 서양 철학자들이 가장 많이 읽은 불교 논서 중 하나이다. 이처럼 〈중론〉이 세계 사상사에 한 획을 긋고, 서양 사상가들의 마음마저 사로잡을 수 있던 이유는 인간의 언어가 갖는 필연적 허구성을 '공(空)사상'으로 정밀하게 풀어냈기 때문이다. 특히 날카로운 논리로 언어의 모순을 지적해 '있음(有)과 없음(無)' 등의 양극단을 부정하는 논법 형식은 현대 논리학과 언어철학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 그러나 운문 형식의 축약적 표현이 주는 난해함과 내용 이해를 위한 방대한 사전 지식의 필요성은 일반인들의 접근을 쉽게 허용치 않았다.

〈중론〉이 출간 된 후 지난 2천 년 동안 인도와 중국, 티베트의 많은 학승들이 '용수의 진의'를 파악키 위해 다양한 주석과 해석 등 근대 불교학자들의 〈중론〉 연구 논문 수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하지만 이러한 수많은 견해가 오히려 〈중론〉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또 하나의 장벽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중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랜 역사적 흐름을 파악하고 요점을 정확히 짚을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중론:용수의 사상 · 저술 · 생애의 모든 것〉은 〈중론〉의 복잡한 역사적 맥락의 실타래를 풀고, 최신 연구 성과를 반영한 내용을 독자에게 알려준다. 여기에 산스끄리트 원전의 획기적인 현대어 번역과 게송마다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개요를 붙여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또한, 〈중론〉의 저자로 알려진 용수의 생각과 삶, 그리고 그가 저술했다고 알려진 많은 문헌들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재조명한다. 세계적인 불교논리학자이며 범어 학자인 가츠라 쇼류 박사와 용수 연구의 권위자인 고시마 기요타카 박사, 두 저자의 신뢰할 수 있는 원전 번역과 해설은 지금까지 난해한 〈중론〉의 참뜻을 파악하는 데 최고의 안내서로 손색이 없다.

이 책은 크게 '번역 편'과 '해설 편'으로 구성돼 있다. 번역 편은 산스끄리트 원전을 바탕으로 한 귀경게 2게송, 본문 27장 445게송 전체의 번역과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개요를 달았다. 해설 편은 최신 학술 연구 성과를 토대로 용수의 사상 · 저술 · 생애에 관해 면밀히 분석한다.

이 책 본문에 따르면 〈중론〉을 이해한 핵심은 귀경게(歸敬偈)에 있다. 귀경게란 저술의 첫 부분에 위치하는 게송으로, 논서의 취지가 담겨있다.

세계 유명 불서 〈중론〉의 획기적 완역
저자 용수와 '공(空)사상' 파헤쳐
공성으로 논파하지만, '공' 조차 부정
'개인' 아닌 '문화 현상' 용수 조명

"소멸하지 않으면서 생겨나지 않고, 끊어지지 않으면서 항상 있지 않고, 동일하지 않으면서 다르지 않고, 오지 않으면서 가지 않고, 희론을 적멸하면서 상서로운 연기를 설한 설법자 중 최고의 설법자 붓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귀경게〉

흔히 팔불중도(八不中道)라 불리는 이 귀경게는 ① 소멸 ② 생겨남, ③ 끊어짐 ④ 항상함, ⑤ 동일함 ⑥ 다름, ⑦ 오는 것 ⑧ 가는 것'의 여덟 항목을 부정한다. ① ~ ⑥은 용수 생존 당시, 번잡한 이론 체계에 매몰된 불교 아비달마 부파와 베다교의 유력한 학파인 바이쉐시까 · 니야야 학파 등의 실재론을 부정한 것이고, ⑦과 ⑧은 언어의 불멸성을 주장하며 제식(주문 · 주술)의 중요성을 강조한 인도 문법학자들의 세계관을 부정했다.

이처럼 용수는 귀경게서 안으로는 불교 부파의 이론을, 밖으로는 베다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이와 같은 논의들을 모두 희론(戱論, 궤변)으로 간주하며 '연기(緣起)'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선언한다. 따라서 〈중론〉은 당시 존재한 인도의 모든 종교 · 사상가들에게 도전장을 던진 것과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그 희론들을 하나씩 논파해 가면서 '매거법(枚擧法)'이라는 논법을 통해 '존재 = 공성(空性, 실체가 없음)'임을 드러낸다. 매거법이란 모든 견해를 하나하나 들어 공성으로 부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용수는 '공'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이와 관련해서 용수는 게송에 분명히 명시한다.

"인도불교를 통틀어 붓다 이후 가장 저명한 인물, 제2의 붓다, 대승불교의 아버지, 8종(宗)의 조사(祖師)" 〈중론〉의 저자 용수를 지칭하는 찬사이다. 그의 〈중론〉은 대승불교 사상서 두 갈래의 큰 흐름인 중관 학파와 유가행유식 학파의 사상적 원천을 제공했다. 이와 같은 업적을 남긴 용수를 이해하려면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한다.

부처님 사후 약 500년이 흐른 시점서 불교 교단은 분열해 저마다의 교리 해석에만 몰두했고, 기존의 인도 베다교 무리는 불교 세력을 견제키 위해 불교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도전해 왔다. 불교도 입장서 보면 온통 사상적 논쟁만이 난무할 뿐 붓다의 본뜻은 점차 훼손되던 시기였다. 이때 이타 행위를 강조한 보살 사상과 함께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대승불교 운동이 서서히 전개되기 시작했고, 용수는 바로 그 시기에 활약한 인물이다.

아직 대승이 대승으로 불리기 직전의 시대, 공성을 무기로 갖춘 〈중론〉은 불교 교단뿐만 아니라 베다교에도 큰 영향을 끼쳤고, 용수의 〈중론〉은 인도사상사서 끊임없이 회자됐다. 더욱이 〈중론〉의 주장은 대승불교의 지향점과 많은 부분이 일치했고, 이후 〈중론〉은 대승불교 운동의 기폭제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 이 점이 용수가 대승불교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이유이다.

이러한 용수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신화적이고 영웅적인 인물로 변모하기 시작한다. 또한, 여러 대승불교 문헌의 저자로 알려지면서 '용수문헌군'이 출현했다. 어디까지가 사실이며 무엇이 진정한 용수의 저술인지 아직도 의견은 분분하다. 이러한 다양한 용수상(龍樹像) 속에서 어쩌면 용수는 '개인'이 아닌 '문화 현상'으로 파악해야 하는 대상일지도 모른다. 이 책은 신화적인 용수의 모습을 함께 조명하며, 당시의 시대상과 〈중론〉의 진의를 새롭게 규명한다.



"명상은 핸드폰처럼 자신 충전하는 일"



명상하라

문진희 지음/수오서재 펴냄/1만 5천원

40여 년간 많은 스승과 성인의 가르침을 받으며 수행에 몰두한 저자의 명상 안내서이다.

"이 명상서는 문진희 선생님의 오랜 명상 수행 경험과 여러 스승 및 경전을 통해 배운 가르침을 모아 글로 옮긴 첫 번째 책이다. 많은 이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세상 밖으로 나서기를 꺼리는 성품으로 선생님의 책은 늦은 감이 있다." 혜민 스님의 추천 글처럼 명상 고전서와 여러 스승의 가르침을 씹고 또 씹어 잘 소화시킨 후 알기 쉽게 풀어 놓았다.

"휴대전화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충전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휴대전화를 충전하는 일은 우리의 일상이 되었고 습관이 되었습니다. 명상도 이와 같다고 생각하십시오. 자신을 휴대전화처럼 그냥 충전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종교인, 구도자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명상이 현대인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오고 있다. 정신뿐 아니라 육체적 치유 효과를 입증하는 연구가 늘어나고 실제로 다양한 질병 치료에 명상이 도입됐다. 미국의 명상인구는 이미 1,500만에 달했으며, 특히 금융, 법률, 예술 등 전문직 분야 종사자들 사이에서 각광받는다. 한국에서도 걷기 명상, 색채 명상, 사진 명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명상이 보편화되며 친근해지고 있다. 삶을 헛되이 보내지 않기 위해, 보다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위해 우리의 관심과 의지는 자연스럽게 명상으로 수렴된다. 40여 년간 많은 스승과 성인의 가르침을 받으며 명상 수행에 몰두한 명상가 문진희는 영성과 의식에 대한 이해와 통찰의 결과 '명상하라'는 말 이외에는 전할 것이 없다는 생각으로 한 권의 책을 집필했다. 제목으로 메시지를 단도직입적으로 전하는 〈명상하라〉는 '자유와 행복'이라는 우리의 타고난 권리를 찾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것으로 명상을 권한다.

"충전한다 생각하십시오. 적어도 우리는 휴대전화보다 중요한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책을 읽다 이 문장을 마주할 때면 정신없이 돌아가는 하루 속에서 단 10분이라도 나 자신을 마주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는 절박한 깨달음이 찾아온다.

명상가이자 구도자로 평생을 살아온 문진희는 1980년 인도유학을 시작으로 많은 스승과 성인을 만났다. 달라이 라마 승왕부터 라다 소아미까지 40여 년에 걸쳐 스승의 가르침을 받으며 명상 수행에 집중했다. 인도에서 고대 경전을 공부하고 편자브 대학교서 요가 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낯설 수 있는 명상 고전서와 여러 스승의 가르침을 씹고 또 씹어 잘 소화시킨 후 알기 쉽게 풀어놓은 것이 〈명상하라〉이다. 이 한 권의 책을 바탕으로 성인들의 말씀과 경전의 가르침을 익히며 명상을 실천한다면 자연스럽게 깨달음의 다음 단계로 옮겨갈 수 있을 것이다.

"삶의 의미를 찾고 싶다면, 행복하고 싶다면 명상에서 답을 찾으십시오."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질이다. 흩어진 다섯 시간의 명상보다 집중한 10분의 명상이 더 가치 있다' '악기에 대해 쓴 책이 수없이 많지만 책을 읽기만 해서 훌륭한 연주자가 된 사람은 없다. 마찬가지로 명상도 수행 없이는 결코 얻을 수가 없다' 명상에 대해 열 번, 천 번을 물어도 대답은 '명상하라' 단 하나라고 말하는 책의 메시지처럼 이론보다 실천을 강조한다.

김주일 기자

安般守意經

선 수행자라면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할 선경禪經!

안반수의경

불교 수행의 근본이 되는 수식관을 상세히 설하고 있는 『안반수의경』과 지관쌍수의 수행법을 단계적으로 제시한 『도지경』을 상세한 주석과 함께 만난다!

안세고 漢譯, 석법성 역주 / 신국판 양장
240쪽 / 값 14,800원 / 운주사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와 행복을 찾는 수행!

위빠사나 수행의 방법론과 더불어, 저자가 그동안 위빠사나 수행을 해오면서 겪은 경험들과, 그 과정에서 느끼고 깨달은 점들을 아주 생생하게 담아냈다.

영선 지음 / 국판 / 304쪽 / 값 15,000원 / 운주사

마음과 영혼을 일깨우는 가르침!

풍경소리 5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성찰해보고, 영원히 다시 마주할 수 없는 지금 이 순간, 이 생을 소중하고 가치있게 살아가는 지혜!

글 풍경소리, 그림 조병완 / 컬러 / 136쪽 / 값 13,800원 / 자유문고

도서출판 운주사 | 자유문고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시원한 山寺 박물관서 '폭염 탈출'…

전국 20여 개 성보박물관 운영 중
불교중앙박물관서 통도사 특별전도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올 여름 피서는 조금 달라야 할 것 같다. 올 여름의 더위는 단순히 온도의 차이를 찾아나서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폭염'이기 때문이다. '한 생각'이 필요할 듯하다. 산사는 어떨까. 한 생각 하기엔 그 만한 곳이 없고, 그곳엔 또 하나의 특별한 공간인 성보박물관이 있기 때문이다.

전국에 약 20여 곳의 성보박물관이 있다. 주요 사찰의 성보박물관을 소개한다.

통도사 성보박물관

먼저, 얼마 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불보사찰 통도사의 성보박물관이다. 유구한 역사가 말해 주듯이 통도사 성보박물관은 3만여 점의 성보를 소장하고 있다.

'화엄불도(보물 제1352호, 조선1811)', '청동 은입사 향완(보물 제334호, 고려)' 등을 소장하고 있는 통도사 성보박물관은 현재 불교회화실, 통도사 역사실, 기증 유물실로 나누어 상설 전시를 열고 있다. △불교회화실에는 통도사의 각 전각에 봉안되었던 대형 불화들을 한 자리에 모았다.

△통도사역사실은 통도사의 유구한 역사를 지닌 사찰의 전래품을 조각, 공예, 전적, 회화 등으로 구분하여 통도사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기증유물실은 한국화, 유화, 도자기, 민속품 등 월저 김진조 선생이 기증한 300여 점의 문화재를 전시하고 있다.

또한 7월 3일부터 9월 30일까지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2018 특별전 '불보종찰 통도사를 담아내다' 展에서도 통도사의 성보들을 만나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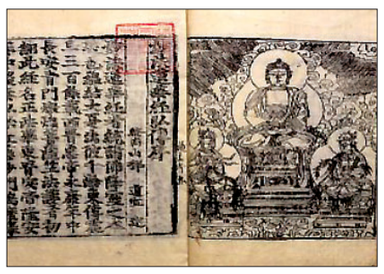
해인사 성보박물관

다음은 고려대장경이 모셔진 법보사찰 해인사다. '해인사 목조건칠희랑대사좌상(보물 제999호)', '해인사영산회상도(보물 제1273호)' 등을 비롯해 서예, 회화, 공예 등 400여 점의 성보를 소장하고 있는 해인사성보박물관은 대장경홀, 해인역사실, 불교조각실, 불교회화실, 불교공예실, 목판특별실로 구성되어 있다.

△대장경홀에는 패업경과 초조대장경, 팔만대장경의 판본을 전시해 대장경의 역사를 보여준다. △해인역사실에는 창건주인 순응 이정화상의 진영을 비롯해 〈해인사중수기〉, 해인사를 대표하는 역대 고승들의 진영 및 관련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다. △ 불교조각실에는 우리나라 초상조각의 유일한 예인 목조희랑조사상을 비롯해 대적광전에서 발견된 금동여래입상과 명부전의 동자상, 업경대 등 다양한 불교조각 성보들이 전시되어 있다. △불교회화실에는 팔상도 병풍, 33조사도 병풍 등 다양한 불화가 전시되고 있다. △불교공예실에는 홍치 4년명 범종(보물 제1253호)를 비롯해 정병과 향로, 칠보촛대와 옥화 등이 전시되고 있다. △목판특별실은 팔만대장경과 제경판이 전시되고 있다. 또한 대장경홀이 있는 2층 전시실에서는 백남준의 팔만대장경 비디오 아트를 감상할 수 있다.


통도사 은제도금 아미타여래삼존상(보물 제 1747호).


월정사 아미타후불도(1861).


범어사 〈묘법연화경〉(1639).

송광사 성보박물관

16국사의 승보사찰 송광사의 성보박물관은 2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2017년 확장 개관한 송광사 성보박물관은 국사전에 모신 16국사의 진영을 비롯해 국보 제314호인 '화엄경변상도' 등 국보 4건, 보물 27건 등 2만여 점의 성보를 소장하고 있다.

총 4개의 전시실에서 상설전시가 열리며, 기획전시실에서는 송광사 승가복지회 기금 마련을 위한 유동영 사진전 '송광사 속의 송광사'가 12월 31일까지 열린다.

전국 주요 성보박물관

박물관	주 소	연 락 처
용주사	경기 화성시 송산동 188번지	(031)235-6886
월정사	강원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 176	(033)339-7000
신흥사	강원 속초시 설악동 170번지 신흥사	(033)636-7044
수타사	강원 홍천군 동면 덕치리 9번지	(033)436-6611
수덕사	충남 예산군 덕산면수덕사로 수덕사안길 79호	(041)330-7777
범어사	부산광역시 금정구 범어사로 250	(051)508-6129
동화사	대구광역시 동구 동화사1길 1	(053)980-7900
은해사	경북 영천시 청통면 청통로 951	(054)335-6991
오어사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항사리 34	(054)292-2083
보경사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중산리 622번지	(054)262-1117
용문사	경북 예천군 용문면 내지리 391번지	(054)655-8695
직지사	경북 김천시 대항면 직지사길95	(054)429-1720
기림사	경북 경주시 양북면 호암리 419번지	(054)744-2292
통도사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055)382-1001
해인사	경남 합천군 가야면 가야산로 1742-17	(055)934-3150
표충사	경남 밀양시 단장면 표충로 1338	(055)352-1150
옥천사	경남 고성군 개천면 북평리 408번지	(055)673-4951
쌍계사	경남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208	(055)883-1901
청곡사	경남 진주시 금산면 갈전리 18번지	(055)762-9751
송광사	전남 순천시 송광면 송광사안길 100	(061)755-0407
무위사	전남 강진군 성전면 월하리 1174	(061)432-4974
도갑사	전남 영암군 군서면 도갑사로 306	(061)473-5122
대흥사	전남 해남군 삼산면 대흥사길 400 (구림리 799)	(061)534-5502
보림사	전남 장흥군 유치면 봉덕리 45	(061)864-2055
화엄사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화엄사로 539	(061)783-7600
백양사	전남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26	(061)392-7502
흥국사	전남 여수시 흥국사길 160(중흥동) 의승구군 유물전시관	(061)685-5633
금산사	전북 김제시 금산면 모악15길(금산리 39번지)	(063)548-4441

범어사 성보박물관

선찰대본산 범어사의 성보박물관은 〈삼국유사〉와 〈불조삼경〉, 〈금장요집경〉 등 다양한 전적들과 책판 및 불교회화 등 국가지정문화재 6건(기탁 2건 포함) 및 70여 건의 지정문화재를 소장, 관리하고 있으며 이밖의 우수한 성보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다. 총 4개의 쇼케이스에는 불화와 불상, 옴마니반메훔 소통, 그리고 선문촬요를 비롯한 경판들이 전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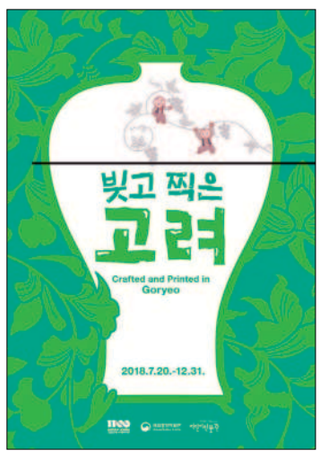
월정사 성보박물관

문수보살의 성산인 오대산에 자리잡은 월정사 성보박물관은 월정사석조보살좌상(국보 제48-2호), 평창 상원사 중창권선문 2건(국보 제292호)의 국보와 5건의 보물 등 총 39건의 지정문화재와 4,000여 점의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다.

상설전시는 총 3개의 전시실에서 열린다. △제1전시실(불보실)은 석조보살좌상과 각종 출토유물을 비롯하여 산내암자와 말사로부터 기증받은 불상류를 전시하고 있다. △제2전시실(승보실)은 신라 말 구산선문의 하나인 사굴산파의 개산조인 범일국사 등의 진영을 전시하고 있다. 또한 조계종 초대 종정으로 일제강점기에 한국 불교의 고고한 선풍을 지켜온 한암 스님의 유품과 한국 불교의 학풍을 진작한 탄허 스님 유품도 전시하고 있다. △제3전시실(법보실)에는 최초의 한글 필사본 문서인 〈상원사 중창 권선문〉, 15세기 전반에 필사된 〈오대산 사적〉 등을 전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수덕사, 직지사 등 20여 곳의 성보박물관에서 성보들을 전시하고 있다.

온 가족이 즐기는 '고려'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7.20 ~ 12.31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배기동)은 7월 20일부터 12월 31일(월)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중심 특별전 '빚고 찍은 고려'를 어린이박물관에서 진행한다.

어린이를 위한 이번 전시는 상감청자와 금속활자를 주제로 고려 문화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전시이다. 어린이들이 고려청자와 금속활자에 담긴 지혜와 가치를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도록 직접 만지고 보며 만드는 아날로그체험과 디지털 체험물을 곳곳에 배치했다. 어린이들이 자신만의 청자풍선을 직접 만들어갈 수도 있고 활자를 옮겨 배열하는 체험으로 고려 사람들의 인쇄 방법을 알아갈 수도 있다. 이번 전시는 부모님 혹은 인솔자가 아이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도록 보호자용 안내지를 따로 비치하여 어른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어린이박물관의 '빚고 찍은 고려'는 오는 12월 4일에 개막하는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 '대고려918-2018 그 찬란한 도전'에 앞서 고려 건국 1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이다. 어린이박물관은 아이들이 상설전시관 또는 기획전시실로 가서 실제 고려 문화재를 볼 수 있도록 전시기간 중 인증사진 이벤트를 진행한다. 문의 (02)2077-9636

박재완 기자

박물관의 소소한 풍경

'사진으로 만나는 국립경주박물관' 展

신경주역 로비 7. 16~8. 15

국립경주박물관의 소소한 풍경을 담은 사진전이 열린다. 국립경주박물관(관장 유명하)은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신경주역 로비에서 '사진으로 만나는 국립경주박물관' 展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국립경주박물관 김상민 주무관이 평소 관람객들이 접할 수 없는 박물관의 아름다운 풍경과 관람객들의 모습, 신라 천년의 역사를 품은 유물 등을 촬영한 25점의 사진을 소개한다.

또한 박물관은 관람객이 전시회 기간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에 대한 감상평을 제출하면 우수한 감상평을 선정하여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한다.

박물관은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여름 휴가기간 동안 사진 전시회는 물론 마당극 · 음악회 등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신라 천년의 문화유산을 간직한 국립경주박물관을 많이 찾아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054-740-7520(이성대 주무관)으로 문의하거나 국립경주박물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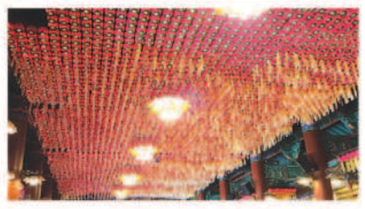
박재완 기자



보련기획 BORYEON
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조립식 도량장엄등설치

전문인력, 장비없이 조립·해체 가능
다목적 활용으로 경제적
기둥을 최소화하여 공간활용 극대화
도량 면적과 형태에 따른 다양한 연출

법당연등 자동승강장치


법당 고정식 연등설치


천불전


인 등


위 패


공단등


만월등


불기등


사찰 고유의 디자인으로 제작 가능

www.boryeon.com
010-5381-9355 /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549-1

세계 불교학자, '중관'을 논하다

동국대 HK연구단, 7월 27일 국제학술대회

'중론과 중관사상' 주제로 개최
대표 중관 학자들 대거 참여해
샤오용 교수 自性관련 분석 '눈길'
"俗諦 인정, 바비베카 이후 도입"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대승불교의 아버지 용수를 그린 불화.

용수의 〈중론〉 등의 저작은 중관학파를 시작을 알렸고, 유가행파와 더불어 인도 대승불교철학의 양대산맥을 구축했다. 동아시아 불교에서도 중관학파는 삼론종 형성의 근간을 이루는 등 큰 영향을 미쳤다. 용수 저작으로 시작된 중관사상의 전개와 의미 등을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인문한국(HK)연구단(단장 김종욱, 이하 HK연구단)은 7월 27일 동국대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중론과 중관사상'을 주제로 2018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에서는 현재 세계 중관학계를 대표하는 학자들이 용수의 대표 저작인 〈중론〉 및 중관사상에 관한 주요 문제들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예 샤오용 베이징대 교수는 '자성이 없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발표를 통해 용수의 주요 주장인 '모든 것은 자성을 갖지 않는다'에서 '자성'의 개념에 대한 맥락적 분석을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사오용 교수에 따르면 용수는 몇몇 게송을 통해 '자성이 없다면 그것이 무엇일지라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후대 중관학파의 주장과는 대조되는 것이다. 이들은 '완전한 부정은 궁극적인 단계에만 적용 할 수 있으며, 사물이 관습적 단계에서 작용하고 기능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오용 교수는 "용수의 저작 중에는 이제설(二諦說)을 통해 부정의 범위를 제한시키는 문헌적 근거가 없다"면서 "〈근본중설〉에 나타난 이제설은 붓다의 설교를 분류코자 한 것으로 이는 서로 다른 가르침 사이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허무주의라는 비난을 '관습적 단계에서 실제를 허용하는' 이제설을 통해 넘어서려는 시도는 용수에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게 사오용 교수의 주장이다.

중도를 이제설과 짝을 짓는 것은 관습적 단계에서 존재를 인정한 바비베카 이전에는 도입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사오용 교수는 "용수가 중도를 주장하고 허무주의라는 비판을 대응하기 위해 자성의 반박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불필요했을 것"이라며 "이런 문맥 상의 한정은 용수의 시스템을 수정하는 것에 기반한 후대의 각색"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이방인들과의 대화(앤 맥도널드 오스트리아 과학 아카데미 교수) △〈쁘라산나빠다〉 제18장의 〈팔천송반야〉 인용에 대하여(니사쿠 요시아키 일본 무사시노대 교수) △바비베카 vs 찬드라끼르티(사이토 아키라 일본 국제불교학대학원대학 교수) 등의 논문이 발표됐다.

고선사지 삼층석탑 현장 '生生 체험'

국립경주博 8월 3일까지 보존처리 현장 공개 행사



북동쪽에서 드론으로 촬영한 경주 고선사지 삼층석탑의 전경.

진도 쌍계사 목조석가여래삼존상과 동화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등이 국가 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진도 쌍계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동화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김홍도 필 삼공불환도', '자치통감 권129~132' 등 4건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7월 24일 밝혔다.

'진도 쌍계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은 17세기 중엽 전라·경상지역에서 활동한 조각승 희장(熙壯) 스님을 중심으로 총 9명의 조각승이 공동으로 참여해 1665년(현종 6년)에 완성한 불상이다. 가운데 석가모니불상을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각 1구의 보살상으로 구성된 삼존(三尊) 형식이다.

삼존의 보존 상태와 구성 등이 조성 당시의 모습을 거의 완전하게 갖추고 있으며, 복장물 역시 안치 당시의 모습에서 크게 훼손되지 않고 발견돼 불상 조성과 17세기 복장법식 연구에도 귀중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중요한 성보다.

'동화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은 높이 2m 이상의 대형 불상조각으로, 17세기에 가장 비중 있게 활동한 조각승인 현진(玄眞) 스님의 작품이다. 좌상의 아미타불상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관음보살, 오른쪽에는 대세지보살을 배치하였는데 좌상과 입상이 삼존에 모두 등장한 것은 이 시기 삼존상으로는 드문 구성이다. 관음보살상의 복장에서 발견된 발원문을 통해 현진을 중심으로 5명의 조각승이 참여하여 1629년(인조 7년)에 조성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불상은 온화한 얼굴과 무게감 있는 신체 표현 등 현진의 개성을 잘 보여주며, 17세기 전반 목조 불상 중 비교적 큰 규모에 속하는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홍도의 마지막 역작인 '김홍도 필 삼공불환도'는 그가 57세 때인 1801년(순조 1년)에 그린 8폭 병풍 그림으로, 1801년 순조의 천연두 완쾌를 기념하여 만든 4점의 병풍 중 한 점이다.

'자치통감 권129~132'은 1436년(세종 18년)에 간행한 〈자치통감〉의 판본 가운데 권129~132에 해당하는 책이다. '자치통감 권129~132'는 인출(印出) 발문이 없으나, 지정된 다른 자치통감과 비교했을 때 경복궁 사정전(思政殿)에서 편집하고 1436년 주자소에서 간행한 판본임을 알 수 있다.

문화재청은 '진도 쌍계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등 4건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조선 간행 佛書 인물 데이터베이스화 된다

순천대 남도문화硏 사업 추진

조선시대 간행된 불서와 이에 나타나는 인물 정보가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된다.

순천대 남도문화연구소(소장 이욱)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2018년 토대연구지원사업'에 선정돼 3년간 6억 원을 지원받는다"고 7월 22일 밝혔다.

순천대 남도문화연구소는 '조선시대 간행 불교 서지 인명 DB 구축' 과제가 선정돼 이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단을 구성하고 조선시대 335개 사찰에서 간행한 1600여 종 불서의 표준 정보와 인명을 DB로 구축할 계획이다.

조선시대 간행 불서는 연구 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에 대한 DB가 없어 종합적인 연구가 이뤄지지 못한 실정이었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5~6만 명으로 추산되는 인명 정보를 DB로 구축하고, 자유롭게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개발해 관련 연구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성민 기자

'문·사·철'·'한국불교사연구' 발간

한국불교사연구소(소장 고영섭)가 자체 학술지인 〈문학·사학·철학〉 제52·53호와 〈한국불교사연구〉 제13호를 잇달아 발간했다.



〈문학·사학·철학〉 제52·53호에는 영어, 일본어로 읽는 한국시를 비롯해 '조선시대의 정업원(민덕식)', '동아시아 불교의 보편성과 특수성(고영섭)', 불화와 함께 보는 경전이야기 등이 실렸다. 또한 〈현대향가: 노래 중의 노래〉와 〈한국불교사탐구〉에 대한 서평도 수록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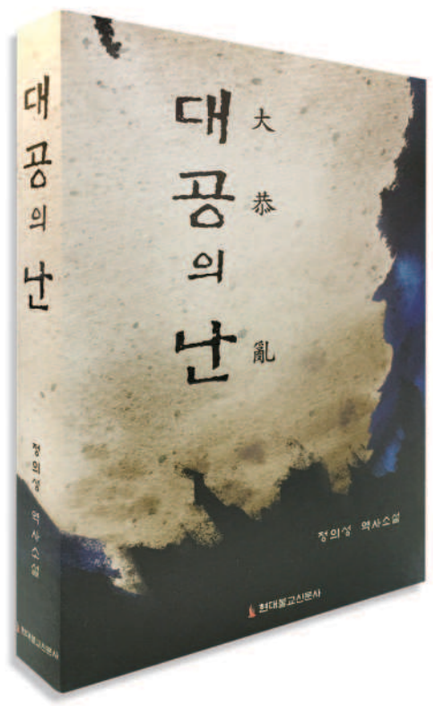
〈한국불교사연구〉 제13호에는 〈삼국유사〉 관련 연구 논문들이 게재됐다. 주요 논문으로는 〈삼국유산의 고승과 성사 이해〉, 〈삼국유산 경전과 경문〉, 〈삼국유사의 사찰과 분포〉, 〈삼국유사의 시가와 향가〉 등이다. 서평으로는 고영섭의 〈분황 원효〉가 실렸다. 신성민 기자

"운명의 화살은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법이 없더라"

불법이 꽃을 피웠던 통일신라,
그러나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더욱 밝게 열리듯이
법멸의 월식 기간이 있었으니,
그 시대를 건너야 했던 왕과 여왕,
화랑과 고승들, 그리고 천하제일을 다투는 검객들의
사랑과 운명이 밤하늘과 별처럼
오늘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작가 정의성(鄭義成)

신라의 김대성 공은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를 지었고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그 멋들어진 효성이 천이백 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남아 있습니다.
저도 작게나마 부처님께 이 책을 지어 바쳐
부모님의 행복을 빌고자 합니다.



대공 大恭의 난 亂
정의성 역사소설 | 신국판 | 704쪽 | 값 22,000원
현대불교신문사

현실을 꿈처럼 재해석하게 하는 불교적 환타지,
무협소설 같은 속도와 긴장,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지혜와 술수의 맞대결…

이 소설은 통일신라시대 중기에 일어난 대공의 난을 다루고 있다.
모름지기 소설은 첫째,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작가 정의성의 〈대공의 난〉은 그 첫째를 충족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암흑의 시기를 통과하는 청춘남녀들의 사랑과 비극이 폭염 속의 단비 같고, 장마 속의 햇살 같은 신들린 작가의 손에 의해 반전에 반정을 거듭하며 절묘하게 펼쳐진다.
〈삼국사기〉,〈삼국유사〉가 갖는 비통일적인 특성들이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결합, 재창조되어 역사 속의 인물들을 더욱 생생하게 눈 앞에 되살려냄으로써 특별한 재미와 함께 인생사의 오묘한 이치를 사유하게 된다.
역사에 대한 깊은 연구와 방대한 자료조사, 검술과 진법에 대한 작가의 해박한 지식과 갈고 닦은 내공이 작품 속에 녹아 있어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박진감을 선사하면서, 영화나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펼쳐진다.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샵 ☎ 02)2004-8216

전국불교대표방송 BTN 대표이사 서성우

박재완의 PhotoEssay



고해(苦海)

오늘, 누군가는 떠났고
누군가는 또 남았다
떠난 이는 모든 것을 해결했고
오늘은 또 숙제로 남는다
소겁 속의 하루
사겁 속의 하루
그 기막힌 순간에
풀들은 하염없이 돋고
바위틈으로 냇물은 흐른다
한 곳에 있지 못하는 것들만이
떠나고, 남고
시간을 세고



정지천의
가족이 건강해지는 비법
⑥ 고혈압을 극복하자

건강의 기본은 '중용'
〈中庸〉

한의학에서 건강을 지키는 기본원칙은 '중용(中庸)'이다. 무엇이든 많거나 부족하면 좋지 않기 때문이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체온은 어떨까? 역시 높으면 나쁘고 그렇다고 낮아도 문제가 크다.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고열이 위험하지만 저혈압, 저혈당, 저지혈증 그리고 저체온은 훨씬 더 위험하다. 가장 흔한 고혈압부터 살펴보자.

고혈압의 진단 기준은?

지난해 11월에 미국심장협회는 고혈압 진단기준을 14년 만에 140/90 이상에서 130/80 이상으로 대폭 낮췄다. 고혈압을 조기에 관리할수록 심혈관 질환 발생과 사망률 감소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라고 한다. 미국의 진료 지침은 세계 표준 역할을 하는데, 만약 우리나라도 새 기준을 따랐다면 천만 명 정도인 고혈압 환자가 한꺼번에 650만 명이나 늘게 되어 30세 이상 성인의 절반가량이 고혈압 환자가 될 뻔 했는데 다행히 따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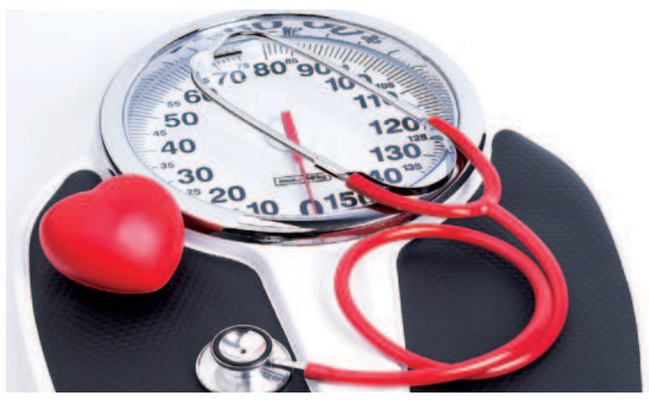
문제는 130/80이라는 혈압이 40대 나이에 심혈관질환 고위험군, 즉 비만이면서 고지혈증이 있거나 중풍, 심장병 등의 유전력이 있다면 고혈압으로 알고 조심해야 마땅하지만, 40대라도 그런 이유가 없거나 만약 60대 이상이라면 고혈압으로 여길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노인 고혈압의 기준은?

원래 고혈압의 기준은 수축기압 160, 확장기압 95 이상이었다가 140/90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정상혈압으로 알려져 있는 120/80은 20,30대 나이의 기준이다. 혈압이나 혈당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올라가게 마련이어서 70대의 기준은 다를 수밖에 없다. 혈압은 정신적 흥분, 고지질, 내분비기능 문란, 고염식, 환경인자, 유전 등으로 인해 올라가게 되고, 노인이 되면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므로 올라가게 된다. 게다가 노인의 혈압은 불안정해서 변동이 많다. 70대에는 다른 상태가 나쁘지 않다면 160/90이 넘어야 고혈압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니 150/90 이하라면 원인을 살펴서 체중을 줄이거나 혈압을 내리는 음식을 먹거나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등으로 원인을 없애주면서 몸 상태를 조절하면 될 것 같다.

고혈압의 예방과 치료에 좋은 음식과 약의 특징

첫째, 습기나 담을 비롯한 몸속의 노폐물을 잘 배출시키는 효능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대변, 소변, 땀이 잘 나오게 되고, 당연히 체중도 줄게 된다. 둘째, 열을 내리고, 기를 아래로 가라앉히는 효과를 나타내야 한다. 왜냐하면 고혈압의 병인이 거의 간장과 심장의 열이고, 고혈압 상태에서는 기가 올라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차가운 성질을 가진 것이 대부분이고, 아래로 내려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고혈압 환자는 열성이나 중간 체질이 대부분이고, 냉성 체질은 드물다. 셋째, 음기를 보충해주는 효능이다. 음기의 근본이 신장이므로 신장을 돕는 보신제(補腎劑)가 많은데, 특히 노인의 경우에는 음기 보충이 매우 중요하다.



지난해 11월에 미국심장협회는 고혈압 진단기준을 14년 만에 140/90 이상에서 130/80 이상으로 대폭 낮췄다.

'고혈압' 기준 연령대별 달라
각자 체질에 맞는 음식 섭취

고혈압에 좋은 음식

혈압을 내려주는 작용을 가진 음식이라도 체질에 맞게 먹어야 한다. 열성 체질은 차가운 성질의 음식을, 냉성 체질은 따뜻한 성질의 음식을 먹는 것이 기본이다. 그리고 열성도 냉성도 아닌 중간 체질은 균형 있게 먹으면 된다.

차가운 성질을 가진 음식으로는 보리, 메밀, 들깨 등의 곡류, 표고버섯, 감자, 오이, 고사리, 콩나물, 연뿌리, 가지, 미나리, 시금치 등의 채소류, 사과, 바나나 등의 과일 그리고 다시마 미역 등의 해조류가 있다. 따뜻한 성질을 가진 음식으로는 양파, 마늘 등이고,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중간 성질의 음식으로는 검은깨, 콩, 토마토 등이다. 약차로는 옥수수수염차, 감잎차, 연잎차, 결명자차, 칡차, 녹차, 국화차 등이 좋다.

고혈압 환자에게 육류는 어떨까? 고지방 식사는 피를 끈적하게 하므로 혈액순환에 장애가 되고 결국 혈관벽의 탄력성이 줄게 되어 혈압을 올리게 되지만, 과도한 육식이 해롭다는 것이지 전혀 먹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기력 유지를 위해선 반드시 육식이 필요하고, 양질의 단백질도 공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기름기 없는 살코기를 조금씩 먹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소고기가 좋다. 열이 있는 사람에겐 돼지고기, 오리고기가 좋고, 냉한 사람에겐 양고기, 닭고기가 좋다.

고혈압에 해로운 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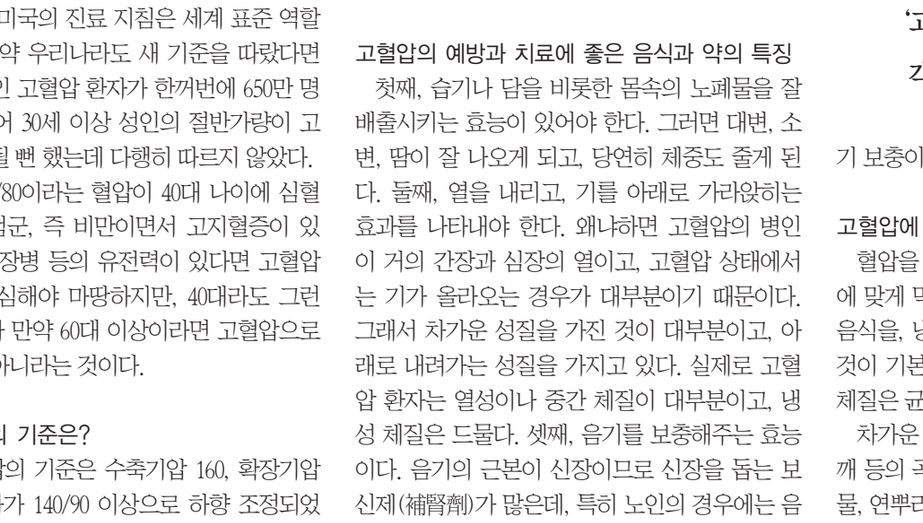
첫째, 소금은 너무나 당연하고, 라면처럼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는 인스턴트식품도 피해야 한다. 고추와 후추 같은 맵고 자극적인 음식과 커피, 진한 차, 탄산음료 등도 해롭다. 단맛도 살찌게 하므로 설탕, 아이스크림, 초콜릿 등을 주의해야 한다. 둘째, 담배가 해롭다. 피울 때마다 확실하게 혈압이 올라간다. 게다가 흡연 자체가 동맥경화를 비롯한 심장 혈관질환을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셋째, 인삼, 홍삼이다. 몸에 양기, 즉 열 기운을 넣어주는 보양제이므로 혈압을 올려주게 된다. 열이 많은 편인 분들에겐 매우 위험한데, 특히 겨울에 운동을 하지 않고 활동량도 적으며 땀도 거의 흘리지 않는 상태에서 인삼을 먹을 경우 중풍이 유발될 수 있다. 몸속에 열이 엄청 많아져 머리로 달아오르고 변비가 생기면서 혈압도 상승하기 때문이다.

고혈압에 술은 어떨까?

하루 30cc 정도의 알코올은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여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을 낮추어줄 수 있지만 합병증이 없는 경우라야 한다. 그러나 과음은 고혈압의 중요한 위험요인이며 고혈압 약의 반응을 감소시키고 또한 단독으로도 중풍의 위험요인이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과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체중이 늘면 혈압도 올라가기 때문이다.

〈동국대 일산한방병원 한방내과 교수〉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 Book



지면에 진열된 상품들은 붓다북에서
미니불상으로
검색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주) 운주사 Tel. 02-953-7181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신중탱화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